

# 성경 공과

제2권

전진반 (Intermediate Class)



언약의 궤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2권

Intermediate Class



아니타 에스 들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2권 제3반, intermediate class만을 가지고 전진반, Intermediate Class로 명칭을 첨가해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반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 속의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간단히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본권 시리즈의 기초 1, 2반을 익혔거나 이 책 차례를 훑어 볼 때 성경 본문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다면 본 반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글자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신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분이 오시는데 사용되는 “구름”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서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상응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상응의 이해는 여러분을 하느님의 말씀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므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예수를 뵈게 해주고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천국의 기쁨 (Heavenly joy)을 받아 영원히 향유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본서는 공동 번역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해서 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의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자주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새 포도주는 오로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 차례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첫 4일) 창세기 1장1-19절 9
2. 아담의 일을 거들 짝 창세기 2장 8-25절 14
3. 홍수가 빠지다 창세기 8장 20
4.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27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장 1-14절 35
6.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 42
7.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39; 40장 47
8.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54
9. 마라와 엘림 출애굽기 15장 61
10. 퀘 출애굽기 25장 1-12절 68
11. 열 두 스파이 민수기 13; 14장 74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여호수아 1장 82
13. 아이 성의 포획 여호수아 7; 8장 89
14. 판관 기드온 판관기 6, 7장 98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상 3장 107
16. 사울의 성급함 사무엘상 13장 112
17.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18
18. 솔로몬의 영화 열왕기상 9:10장 126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33
20. 히즈기야 왕과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40
21. 시편에 관하여(2) 시편 19편 146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2) 예레미야 1장 152
23. 예제키엘의 환상 예제키엘 1장 158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요엘 4장 9-20절 164
25.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 1, 2장 169

- 26. 주님의 세례    마가복음 1장    176
- 27. 새 포도주    마가복음 2장    183
- 28. 열 두 사도    마가복음 3장    190
-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마가복음 4장    196
-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마가복음 5장    202
-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가복음 6장    210
-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마가복음 10장    218
-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마가복음 11장    226
- 34. 성 만찬    마가복음 14장    233
- 35.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마가복음 15장    242
- 36. 부활하신 예수    마가복음 16장    249
-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4장    256
- 38. 봉인된 책    요한 계시록 5장    262
- 39. 심판과 거룩한 성    요한 계시록 20장 1-15절, 21장 1-7절    267
- 40. 새 교회 날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72

# 1

## 창조 (첫 4일)

### 머리말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창조 이야기가 성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이다. 이는 영적 이해와 진정한 선한 생활에 필수 사항이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와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배움을 위한 유일하며 확실한 근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열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제 2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부의 기초인 책은 주님의 책이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의 첫 4일 동안에 관한 것이나, 7일간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1-19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돌아 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돌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우리는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 「Jehovah, 여호와」는 “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라는 뜻을 첫 째로 알아야 한다.
- \* 말씀 전체는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쓰인 비유이다.
- \* 믿음이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된다.
- \* 선한 행실로 인도하지 못한 진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 해설

성서의 제 1장은 다른 성서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유이다. 이 말씀은 자연계의 창조에 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자연계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도 자연에 관한 것은 발견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말씀을 쓰신 것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란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다.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것이며 주님에 의해 어떻게 발달되어가는 가를 말해준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육체적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 본성은 흔히 말하는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계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을 뜻한다. 이것이 우리 영혼 속의 “땅(earth)”이다. 동물들 역시 이 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가지지 않은 또 다른 본성을 가진다. 그것은 하느님과 천국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영적 본성으로 “하늘(heaven)”이다. 하늘은 흔히 말하는 자연계의 저 높고 푸른 창공(sky)이 아니라 영혼 속의 하늘임을 염두 해야 한다. 좀 더 설명하면,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우리말 성경의 하늘도 자연계의 하늘(sky)이 아닌 영계의 하늘(heaven)임을 염두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기 때의 우리 속의 본성은 둘 다 시작에 (태초에...제 1절) 불과하다. 우리의 유아기 상태는 제 2절에 기술된 바와 같다. “어둠, darkness, 흑암”이란 무지(ignorance)를 말한다. 일상용어 중에 “나는 보았다. 또는 나는 안다, I see”라는 것이 있다. 대화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I see”라는 말로 답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I understand”를 의미한다. 이른바, 상응(correspondence)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영적 혹은 천국적인 것들을 자연적 혹은 물질적인 것들과 부합(상응, 대응)시켜 표현하는 언어를 뜻한다. 태초의 사람들은 상응을 이해했고 그것으로 말했다. 그 중 “I see”와 같은 미미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만, 대부분은 잊어져 버렸다. 우리가 상응을 염두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주위의 혼한 대화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전부는 상응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 상응에 대한 본문의 첫 실례로 어둠이란 단어를 살펴보자. 어둠은 빛에 반대되는 것이다. 어둠이 무지를 의미한다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3절에서 “하느님께서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라고 함은 유아 시절에 우리가 처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또는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날은 첫째 날에 관한 것 즉 우리가 먹는 것, 걷는 것 또는 뭔가를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아이라는 말을 듣게 됨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 물은 진리에 상응한다. 그리고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진 뒤 창공 위의 물은 영적인 것 또는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창공 아래의 물은 자연적인 것 또는 지상적인 것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셋째 날에 나타나는 마른땅이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해 갈 때 발달되는 인격이다. 인격은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자라 나오게 하는 땅으로 땅으로부터 각종 종류의 푸른 잎이나 식물이 자라 나오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들이 이끌어 낸 행동이 과일들이다.

넷째 날 또는 넷째 날의 상태란 우리가 충분히 나이가 들어 하느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분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분을 믿으려고 하여 그분에 관해 더욱 알고 싶을 때 또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보려 할 때를 말한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고 우리의 심정을 따뜻하게 해주는 해에 해당되며,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달에 해당된다. 이 믿음은 밤중과 같은 우리의 상태, 즉 뭔가에 대해 “왜”라고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희미하게나마 비춰주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준다. 별들은 천국적인 것에 관해 우리의 지성이 수집한 모든 지식들을 말한다. 이 지식들은 자연계의 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간혹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여겨져 현실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들이 항해자에게 현 위치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듯이, 이 지식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점차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간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나오는 살아 있는 것들이란 우리의 인격이 완속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즉 스스로의 삶을 꾸릴 준비가 되어 모든 지식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 발달하게 되는 애착(affection, 하고 싶어 함) 또는 맛을 보는 정도의 경험(taste)을 말한다. 제 28절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를 돌아다니

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하는 말씀이 이에 해당된다.

시편 118편은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제 23절과 24절은 안식의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느끼게 될 안식과 기쁨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 야훼께서 하신 일이다. 이 날은 야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 기본 상응 공부

땅 = 자연적 마음

식물들 = 우리 마음 안에서 발달되는 진리들

###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 2) 하느님에 대해 어떤 책이 말해 주는가?
- 3)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 4)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는가?
- 5) 성서는 며칠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 6)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 7) 우리 영혼의 측면에서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9) 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성서 3) 우리로 보게 해줌 4) 해, 달, 별들
- 5) 6일 6) 하느님이 쉬셨다 7) 보다 높은 본성과 보다 낮은 본성

8) 진리 9)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발달시키시는가에 대해서

## 2

# 아담의 일을 도울 짝

### 머리말

본문은 글자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지만 그 이야기는 놀랄만하다. 따라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미리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는 본문을 읽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과의 짧은 지면에서 예상되는 질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의문은 본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흥미를 더해 갈 것이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의 짧은 구절에는 어느 누구도 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깊게 감추어진 의미가 들어 있다. 단어 “갈빗대”에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로부터 말씀의 모든 생명이 오고 있음을 염두 해 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8-25절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세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 교리 요점

- \* 모든 진정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 \*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서의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 스웨덴북을 통해 밝혀주신 증거들로 모두 이해된다.
- \* 태고 교회에서는 진리가 하늘로부터 직접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정이 선했기 때문이다.
- \* 결혼은 영원이다. 진정한 결혼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며 더불어 서로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소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해설

앞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가 우리 삶의 어린 상태에서부터 성인 상태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그림임을 배웠다. 스웨덴북은 인류 역시 이와 같은 순서로 무지라는 어둠에서부터 주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데로, 즉 남녀는 진정한 남자와 여자로 발달해 간다고 말한다. 창세기의 두 번째 장에서 언급되는 에덴의 동산은 인간이 하나의 교회, 즉 태고 교회와 같이 되도록 충분히 배운 후 있게 되는 평화스럽고 행복한 상태에 관한 그림이다. 태고 교회의 삶은 결실이 풍부한 동산 또는 아름다운 생각과 선한 애착으로 짝 찬 동산과 같다. 스웨덴북은 태고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열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 삶의 일부분인 지상적인 삶에는 관심이 적었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믿었다. 스웨덴북은 그들을 “천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산은 네 강에 의해 적시었다. 즉, 인간 마음의 모든 평면이 진리로 적시어졌다는 것이다. 동산 한 가운데의 생명나무란 모든 생명과 지식 그리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만 있음을 내면에서부터 인식(認識)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 역시 천국적인 측면과 지상적인 측면을 모두 가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어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상을 받는 대신 스스로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우리의 발달 단계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또는 스스로를 인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님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계신다. 여러분은 나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기를 원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결정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쾌히 승낙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가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럼으로써 자녀가 성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본문에서 주어지는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말씀에서 “홀로 있음”이란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고독함이나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서 외롭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말씀에서의 “홀로 있음”이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의해 전적으로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 (민수기 23:9, 신명기 33:28, 예레미야 49장 31절 또는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139항 참조) 주님과 더불어 홀로 있음은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수용해내야 하는 최고도의 상태이다. 스웨덴북은 이를 “천적인 상태”라고 부른다.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것보다 더 그분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이들은 천국에서도 이런 상태에 도달된다. 그러나 주님을 섬김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와 같이 생각하도록 하는 섭리를 만드셨다.

독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다. 좋은 면에서의 독립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 할 때 과거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왔던 모든 사항에 따라 진실로 옳은 것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은 과거에 그랬듯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사용한다. 반면,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에 관한 것을 잊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결정할 때 그 순간은 대단한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 이는 나쁜 면에서의 독립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은 옳은 독립성에 관한 것을 보여준다.

주님은 먼저 아담이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시기 위해 그것들 모두를 그에게 데려 갔다. 아담은 그것들 모두에게 이름을 붙였다. 동산에 있는 동물과 새란 우리의 애착과 생각을 묘사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의 애착과 생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도록 묻고 계신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예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자신의 본명 대신 별명을 부르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깡쟁이 순이 또는 미스터 곰 등과 같은 별명을 사용할 때 그것은

통상적으로 친구들 사이에 공통되는 그 친구의 특질을 묘사할 때가 많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담이 깊은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초기 사람들이 독립적 인기를 위하여 결정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과거 그들의 하늘에 열려있던 환상들에서 단혀졌음을 의미한다. 단힌 새로운 상태가 바로 깊은 잠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어 그의 협조자, 즉 그에게 꼭 맞는 짝이 되는 여인을 만드셨다. 짝(만남)이란 그 시점에서 그의 필요성에 정확히 맞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뼈는 그 자체로만 보면 아주 적은 생명을 지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뼈는 형태를 주는 구조물로서, 신체의 보다 더 중요하고 살아있는 부분들을 보호하고 지탱해 준다. 따라서 뼈는 각 인격에 속한 것을 그린다. 스웨덴북은 그것들을 인간 자신의 소유물(man's own 또는 proprium)이라고 부른다. 주님으로부터 꾸준히 흘러 들어가는 생명이 없는 자아는 해골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주님은 해골에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그것이 아름답고 유용해 지도록 만드실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아담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이브를 창조하심이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상태가 됨을 알고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안내를 위해 주님을 찾고 우리의 소유물을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인격은 아름답고 유용하게 되어 우리와 세상을 돕는 개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해로움을 초래하는 대신 선을 행하는 독립성의 올바른 종류이다. 그래서 초기 사람들이 그들의 첫 천적 상태에서 하향하게 되었을 때에도 순진한 상태였는데, 이것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려져 있다. 뱀의 유혹이 있는 후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와 본문의 순진한 상태를 비교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는 결혼에 관련된 부분이다. 결혼한 한 쌍은 그들의 생각과 느낌이 본문의 아담과 이브와 같이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3-9절을 읽고, 주님이 이에 관해 말씀하셔서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결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거룩하다. 진정한 결혼은 삶에 있어 최고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지식과 준비 없이 행해진 결혼들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어서 결국 재난으로 인도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문 뒷부분을 기억하도록 하자.

## 기본 상응 공부

홀로 있음 = 안내자로 주님만을 찾음  
잠이 듦 = 천국적인 것에 대한 무의식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이 책은 누가 썼는가?
- 3)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창세기란 어떤 의미인가?
- 5) 첫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주어졌는가?
- 6) 에덴의 동산은 무엇으로 적시어졌는가?
- 7)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무엇을 설비해 주셨는가?
- 8) 동산에서 어떤 두 나무가 특별히 언급되는가?
- 9) 본문에서는 첫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불리는가?
- 10) 아담은 가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을 원했는가?
- 11) 주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에 관해 무엇을 해보라고 하셨는가?
- 12) 아담이 잠들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13) 신화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 14) 스웨덴북은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부르는가?
- 15) 사람이 “홀로”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성서 2) 하느님 3) 창조 4) 시작 5) 에덴 6) 강

- 7) 과일 나무, 씨 있는 식물 8) 생명, 지식 9) 아담 10)아내
- 11)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붙임 12)갈빗대를 취하시어 여인을 만듦
- 13)황금시대 14)태고 교회
- 15)하느님께 가까이 있음 16)자아, 자신

### 3

## 홍수가 빠지다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문인 8장과 더불어 5 - 7장을 읽어두면 홍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그리고 천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에 대한 비교가 많이 언급될 것인데, 본과를 통해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서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8장

8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들의 생각이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기 시작하였다. 2.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3.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백 오십 일이 되던 날인 4. 칠월 십 칠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5. 물은 시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시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6. 사십 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7.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 다녔다. 8.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9.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 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 들였다. 10.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11.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 왔는데 부리에 금방 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12.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 백 한 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14. 이월 이십 칠일, 땅이 다 마르자, 15.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17.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위에서 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19. 들짐승과 짐승과 새와 땅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20.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21.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 교리 요점

- \* 하나의 교회가 그 교회에 주어진 진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신다.
- \* 고대 말씀은 우리의 성경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교회의 가르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 \*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되자, 주님은 양심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이해성 안에 하나의 새로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키셨다.

\* 우리는 주님이 의를 행함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전에 의를 행하는 습관을 형성해 두어야 한다.

## 해설

앞서 우리는 태고 교회 사람들의 스스로 생각하겠다는 결정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높고 행복한 상태인 천적인 상태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첫 단계임을 배웠다. 따라서 그 결정은 길고 긴 하향 추세의 시작점이 된다. 성경 이야기에서 두 번째 단계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단계의 의미는 제 3권과 4권의 2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하지만 창세기 6장 5-8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독립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해주신 것을 잊게 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 속의 자연적인 바람은 주님으로부터 그를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를 영적 파멸에 이르게 한다.

천적인 교회란 심정에 의해 규율되는 교회이다. 따라서 그들의 심정이 약해지면 주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바람에 의해 전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이다. 유아를 예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는 바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 이유는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유아 시절을 거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이기적인 것을 행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은 그 일이 옳지 않음을 지적해 준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그 일이 거절되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있어 양심이란 것을 갖는다. 지식의 교육을 통하여 양심을 더 효과 있게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이 아닌 지성을 통해 규율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천적인 상태 대신에 있게 되는 영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양심을 건설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주님은

우리 속에 이기적인 의지대신 이타적인 의지를 점진적으로 형성시켜 주실 수 있다. 이를 일컬어 거듭남 또는 재탄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첫 사람들이 주님에게 등을 돌린 결과 눈덩이같이 불어난 이기적인 상태에 빠진 속성을 유전 받아 태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하고 행복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 다시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 작업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나긴 인생 작업에 해당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게으른 습관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습관이 나쁜 것임을 지적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잘못된 습관을 지속하면 즐거울지 모르나, 부모 혹은 선생님 등 여러 사람에게 지적당하는바, 벌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고치려하는 것이다. 그런 후 우리는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잘못된 습관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그것을 고쳐보겠다는 노력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결국 잘못된 습관이 멈춰진다.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심정은 그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고 생각 속에서도 그것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런 뒤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남에게서 발견될 때 혹은 스스로 과거를 생각할 때 유쾌하지 못해 자신이 과거에 왜 일찍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을까하고 의아해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처음 바램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의지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 대신 새롭고 올바른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잘못을 행하게 유혹하는 것 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어 보존하려드는 유혹에 저항해 나가면서 자신의 길을 닦아 준비해야만 한다.

태고 교회의 말기에 노아로 표현되는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셔야만 했던 섭리는 그들의 의지에서 그들의 지성을 분리시키시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비록 의지가 원한다하더라도 지성은 의지에 상관없이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 이야기 역시 에덴의 동산과 같이 상징적이다. 홍수란 물의 홍수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홍수, 즉 사람들의 의지가 더욱더 악하게 될 때 그들의 지성 속에 자라 나온 거짓들을 말한다. 다시말해 거짓이 자라남에 따라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할 참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서로서로 파괴하면서 자멸할 때까지 자라난 거짓의 홍수이다. 소수만이 이 굉장한 변화에서 살아남았다. 구원되어지는

선한 이들은 노아라는 이야기로 기술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있던 악들은 성경의 역사 부분에서 짧게나마 나타나는 거인들이다. 민수기 13장 22절의 「아나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갓족의 「골리앗」(사무엘상 17:4) 또는 바산왕 「옥」(민수기 21:33) 등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보트와 비슷한 용도의 방주를 만들었다. 그들은 홍수가 다 빠질 때까지 방주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머물러서 구원되었다. 이는 불순종이라는 유혹(시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계명에 의해 장치된 한계성 안에서의 삶을 그리는 것이다. 제 8장은 시험이 점진적으로 줄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로 노아는 방주 꼭대기의 창을 연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지성의 창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그는 두 마리의 새, 즉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본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 주위를 날아다니는 생각이 새임을 배웠다. 우리의 생각 중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기도 하다. 까마귀는 우리의 거짓된 생각을 말한다. 새 생활에 대한 우리의 첫 생각은 아마 우리를 위해 꽤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지 모른다. 까마귀는 날아 다녔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비둘기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뜻한다. 이 생각은 새 생활은 선하며 행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다. 올리브는 전문적인 용어로 “선행으로부터의 선”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여 있게 되는 사랑에 상응한다. 그리고 올리브 잎은 “선행으로부터의 진리”, 즉 “그분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따라 있게 되는 지식”에 상응한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첫 예배이다. 노아가 제단을 쌓는다거나 제물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하고 의아해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스웨덴붉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은 영계에 있는 모든 것과 상응됨을 “지각”을 통해 알았는데 이 지식이 고대 교회에까지 전해 내려 왔다고 설명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지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상응에 관한 지식을 키워나갔고 그들이 배우는 어떤 것보다 그 지식을 사랑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상응으로 형성되어 그들 예배 역시 상응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대 교회 때에 고대

말씀이 쓰여 졌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모세가 베껴 쓴 것이 창세기 첫 7장까지이다. 주님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을 그들의 악과 거짓으로 인해 다시는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또한 우리 속에 항구적인 장치인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켜 놓으시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도달 가능하도록 해 두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지상 위에 세워지는 각 교회(사람)는 각기 나름대로 하강 국면을 가지게 된다. 주님은 하강이 끝을 맺기 전 완전히 잘못되지는 않은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교회를 위한 길을 준비하시기 시작한다. 새로운 성장의 반복적인 연속이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하는 말씀으로 기술되고 있다.

### 기본 상응 공부

까마귀 = 거짓 사상

비둘기 = 하느님에 관한 진정한 사상

### 질문 정리

- 1) 인간이 창조된 후 그들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2) 왜 그들은 만족치 못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가?
- 4) 인간은 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항상 살 수 없었는가?
- 5)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의 길로 갈 때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가?
- 6)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7) 누가 구원되었는가?
- 8)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9)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는가?
- 10) 비가 그쳤을 때 노아가 연 창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 11)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12)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13)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는가?
- 14) 첫 번째에는 무엇이 발생했는가?
- 15) 비둘기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16) 세 번째에는 어떠한가?
- 17)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는가?
- 18)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9)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20) 까마귀와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21) 올리브 잎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2) 주님은 고대 교회의 시작에서 인간의 구조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에덴 2) 독립하기를 원했다
- 3) 이기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4) 불순종했기 때문
- 5)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6)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7) 노아 8) 방주 9) 40일
- 10) 방주 꼭대기 11) 까마귀, 비둘기 12)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 13) 세 번 14) 되돌아 왔다 15) 올리브 잎 16) 되돌아오지 않았다.
- 17) 체단을 쌓았다. 18) 더 이상 홍수가 없게 하리라. 19) 거짓 사상들
- 20) 거짓 생각과 진정한 생각 21)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 22) 지각 대신 양심을 설치하심

## 4

# 아브람과 롯

### 머리말

본문 외에 11, 12, 18 그리고 19장에 걸쳐 롯의 이야기 전체가 연결된다. 아브람과 롯의 가나안으로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지역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로는 사해 부근으로 추측되며, 성경 시대상으로는 요르단 평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3장 1-13절, 14장1-16절

13장: 1.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겟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3. 아브람은 네겟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 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5.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 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6.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9.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10.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11.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14장: 1.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룩,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2.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인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뫼 골짜기는 지금 짠물호수가 있는 곳이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룻카르나임에서 르비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엠족을 치고 6.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내려 왔다. 7. 그들은 거기에서 발을 돌려 재판 샘터가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 가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룩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10. 그런데 시뫼 골짜기에는 역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12.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13.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 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벨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14.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 낸 사병 삼백 십 팔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때로 나뉘어 밤을 틔다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16.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냈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가 시험되어질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
- \*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은 진정한 역사이면서 비유이다.
- \* 우리의 생각이 천국적 원리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원리에 기초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 \* 주님께 기꺼이 순종해 가는 삶은 천국으로 인도된다.

## 해설

이기심이 태고 교회를 잠식해 가서 결국 파멸시켰듯이 자신의 총명과 지식에 대한 자만심이 고대 교회 속에 있었다. 고대 교회 인들은 그들이 배운 상응의 진정한 의미를 점차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상기하고자 만들었던 고기, 동물 또는 새 등의 형상들을 우상으로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도중에 그들에게 상충되는 신조들이 곳곳에서 생겨나 사람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적이 되어 흩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기록된 역사는 세상의 이런 상태 후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추적 가능한 세상의 역사는 이 때 부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인류가 시작 초부터 우상 숭배자들이고 야만적이었다고 상상한다. 바벨탑은 고대 교회가 깨어지는 마지막을 그려 주는 이야기이다. (창세기 11:1-9)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어 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전과 같이 그들의 의도가 선하게 남아 있고자 하는 소수를 발견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 역시 우상을 숭배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다.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일반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에서 진정한 역사임과 더불어 글자 내에 영적 의미를 담아 영감 된 비유이기도 하다. 아브람은 매사에 주님께 기꺼이 순종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교회인 유대 교회의 아버지가 되도록 선택되었다. 이 교회는 과거 태고 교회 사람들처럼 천적 교회도 아니며 고대 교회 사람들처럼

영적 교회도 아닌 삶의 자연적 평면에 있는 자연적인 교회일 뿐이다. 그들에게 요구된 사항은 율법의 글자 그대로의 순종뿐이었다. 그 예로,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을 거친다. 아브람은 우리 인생 중에서 이런 시기를 그려 준다. 순종은 천국적인 인격의 발달 과정 중 시작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인 진보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아브람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후에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가도록 부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거룩한 땅은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보를 위해 우리의 자연적인 이기적 경향성을 떠나서 천국적인 상태에 알맞게 자신을 고쳐 가도록 주님에게 부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브람의 여행은 창세기 12장 1-10절에 기술되고 있다. 그는 여행 중 하란에서도 머물렀고, 그의 형제 나홀은 그곳에 정착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땅에 진입했고 처음에 세겜에서 멈췄다가 그 후에 베텔에서도 멈췄다. 그리고 그는 각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 후에 그는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갔는데 그곳에서 부자가 되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이집트는 사실을 저장하는 마음의 부분을 그려 준다. 스웨덴봄은 이를 “기억적인 지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진보해 가는 매 단계에서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진보를 더하려면 더욱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의 획득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묘사되고 있다.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기 삶의 어떤 단계에서 이집트에 갔다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옴이란 우리가 획득한 지식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롯은 아브람의 친 조카였고 아브람의 보호 아래 거룩한 땅을 여행했으며, 아브람과 더불어 이집트로 내려가서 부자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족들은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과는 철저한 적이 되었다. 이런 불화의 조짐은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 속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브람과 같은 면이다. 즉, 우리가 획득한 모든 지식을 주님을 섬기는데 선용하려고 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면이다. 그래서

본문 13장 2절에서 아브람은 가축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기술된다. 가축은 자연적인 선한 행위에 마음이 끌리는 상태이며, 은과 금이란 선함과 진리이다. 우리 속의 다른 하나는 롯과 같은 면이다. 롯도 처음에는 나쁜 상태가 아니었다. 롯과 같은 상태란 삶을 보다 쉽게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 롯 역시 많은 가축 때가 있었지만 은과 금을 가진 부자라고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사실 롯이 아브람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선하며 안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모습은 롯이 우리 속의 자연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아브람이라는 영적인 것과 우리 속에서 다투는 광경이다. 다툼이 있게 되면 분리는 필수적이다. 롯이 살기 위해 선택한 지역은 요르단 분지였다. 이는 그곳이 아주 기름져서 만족될 것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평야, 계곡 또는 분지 등은 지면이 낮은 상태인데, 이런 지형은 우리 삶 속의 낮은 평면을 표현한다. 낮은 평면이란 감각적인 쾌락의 수준을 의미한다. 계곡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감각적인 쾌락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유혹들이 거기에 잠복되어 있다. 롯이 먼저 선택하듯이 우리가 이런 평면에서 삶을 보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로 그려지는 갖가지 종류의 악의 영향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기심과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거짓들을 그려 준다. 이기심과 세욕은 시기심과 불화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순진함에 곤란을 줄 뿐만 아니라 순진성 속에 죄의식마저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혹은 나쁜 장소는 되도록 가지 말라하고 당부한다. 한마디로 악에 물들기 때문이다. 롯은 소돔 근처에 살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곧바로 곤경에 처한다. 첫 곤경에 빠지고 아브람이 구출해 주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할 것이다.

롯은 첫 곤경에서 그에게 오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평야 지대에서 살았다. 19장을 보면, 그가 소돔 성문 근처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그는 선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막 파괴되려는 때에 두 천사를 보내어 롯에게 경고해 주셨다. 롯은 다행히 이 경고를 기쁘게 받아 유념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맞추어 소돔 밖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단어 천사란 전달자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위협을 경고해 주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

는 것으로부터 보존시켜 주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천사들이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받 아질 때 우리의 부모, 선생, 친구 혹은 우리 속의 양심까지 동원되어 경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우리가 충고를 기쁘게 받아 유념하면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건져지게 된다.

롯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녀가 소돔을 빠져 나올 때 뒤를 돌아다 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정도는 기억할 것이다. 간단한 예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도중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뒤늦게 깨닫고 그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멈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에 과거의 그것이 달콤하고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껏 깨달아 얻은 좋은 해결의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순간을 맞게 된다. 이 순간이 바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때에 해당된다. 좀 더 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는 소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소금은 좋은 측면에서는 배운 진리의 가르침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다. 반면, 소금의 나쁜 측면은 진리에 따라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없이 진리를 받는 상태이다. 롯의 아내가 되어 버린 소금 기둥은 진리를 나쁜 면에서 수용하려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자 작정하면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8절에 서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고 하신 이유이며, 산은 평야보다 높은 장소로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마음 또는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 누가복음 9장 62절과 17장 28-32절 까지도 읽자. 주님이 당부하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기억해 둘 구절이다.

아브람이 롯에게 제공한 선택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는 선택이 다. 한쪽 길은 지상적 기쁨이 놓여있고 다른 한쪽 길은 천국적인 보물이 놓여 있다. 롯은 아브람에 의해 이끌려지는 한, 그는 양쪽 길에 있는 것을 다 만끽할 수 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정착했는데, 그곳은 거룩한 땅 남쪽 부분에 있는 높은 곳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제단을 쌓았다. 주님에 대한 순종을 기꺼이 해보려는 삶만이 천국 쪽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자. 신명기 30장 15-20절;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내가 오늘 내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느님께 추방당하여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일러둔다. 그리되면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마태복음 6장 19-21: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 기본 상응 공부

가나안 땅 = 천국적인 상태

이집트 = 자연적인 학식이 있는 상태 또는 기억적인 지식

### 질문 정리

- 1) 본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 3) 왜 그들은 우르를 떠났는가?
- 4)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그는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 6)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어 돌아왔는가?
- 7) 그들이 되돌아 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8)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 9) 아브람은 롯에게 무엇을 제의했는가?
- 10)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가?
- 11) 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
- 12)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위험이 그곳에 있었는가?
- 13) 롯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는가?
- 14) 누가 그를 구했는가?
- 15)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무엇을 그려주는가?
- 16)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아브람과 롯 2) 갈대아 우르 3) 주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 4) 체단을 쌓았다. 5) 이집트 6)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 7) 베델 8) 목자들이 다투었다. 9) 지역의 선택 10) 평야
- 11)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12) 소돔 13)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 14) 아브람 15) 당장 쾌락을 주는 것을 다 해보려는 상태
- 16) 이기심, 세상적인 생각

## 5

#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 머리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령에 얻은 아들 이사악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할 수 있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2장 1-14절

22장: 1. 이런 일들이 있던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아!”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2.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4.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6.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깔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9.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1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1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13.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한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바램으로 비롯된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게 되는 시험을 단지 허용하실 뿐이다.
- \* 말씀은 선뿐만 아니라 악에도 연결 가능한 형상(形狀)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 \*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 믿음은 종종 많은 거짓 사상과 혼합된다.
- \* 우리가 말씀에서 계명들을 본대로 순종하여 시험에 맞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의를 행할 힘을 주신다.

### 해설

주님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감에도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제 16장에서는 사라가 이로 인해 심히 고민하여 남편에게 그녀의 여종 하갈을 제공해 자식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부패된 고대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거짓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짓 사상 중의

하나가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요즘에도 옛 시대에서 내려오는 종교를 고수하는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Ishmael)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그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통에 이사악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 즉 자연적인 삶 위에 놓여진 교회의 시작이다. 각 개인의 발달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부모에 의지하면서 있게 되는 것과 부모에 불순종하면 나쁜 것(악)이 되고 순종하면 좋은 것(선)이 되는 아주 어린 시절을 그려주고 있다. 이제 첫 번째 합리성을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상징하는 이사악과 더불어 한 사람은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새 시기란 스스로 생각하며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추론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기준을 두고 추론한다. 스웨덴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추론하는 것을 “현상(외관)”이라고 이름 한다. 따라서 눈에 들어 온 사물이 내게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옳바르다고 판단해 버린다. 그러나 한참 후에 또 하나의 추론이 뒤따른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기초를 두는 판단으로서 앞서 시작된 추론보다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전자의 외관에 의한 추론을 “자연적 이성”이라 부르며, 후자를 “영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이스마엘은 자연적 이성을, 이사악은 영적 이성을 상징한다. 이스마엘은 이사악을 조롱하여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반면, 이사악은 거룩한 땅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의 이스마엘이 제 분수를 지키도록 간직해야 하며, 우리 속의 이사악을 통하여 선한 삶이 발달되도록 해야 한다.

본문의 즐거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사악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느님께서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성서는 진리의 “외관”에 의하여 대부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다. 진리의 외관이란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보여 지는 그대로의 진리를 뜻한다. 아브라함 역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것, 즉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흔히 “왜 하느님은 이런 시련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라고 한탄하는 말들을 듣는다. 그리고

하느님이 과연 시험을 주실까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것 또는 우리의 모든 시험들은 우리 자신 혹은 타인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실지로 하느님은 수많은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이유는 그분에게 그런 시험들이 우리가 저항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성장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배우도록 우리의 나쁜 감정 혹은 잘못된 생각의 필연적인 결과들을 그대로 느끼도록 놔두신다. 이를 시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만사를 해결해 주지만 자녀가 차츰 성장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 자녀 스스로 결정짓게 해 준다. 만약 부모가 늘 자녀의 만사를 처리해 준다면, 자녀의 인격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언제나 연약한 풀잎에 불과하여 비바람과 폭풍에 견뎌내는 뿌리 깊은 강한 나무와 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실제 발생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는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의 지성은 과거 양육되어진 지역의 종교에서 비롯된 사상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사상은 동물을 제물로 하는 것은 물론 사람까지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잘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가진 가장 값비싼 소유물을 제물로 받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제물이 바로 아들 이사악이다.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그가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 이유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헌신을 입증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꽤 유용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삼일이 걸렸다. 삼일의 여행이란 어떤 심정 상태의 완전함을 그려준다. 그가 향했던 목적지는 모리아 산이었는데, 그곳은 오랜 후에 예루살렘 내의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바램은 오랜 후 그의 후손들이 도달해야 할 마지막 높은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그의 여행길의 순서를 살펴보자. 먼저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 아침이란 새로운 심정 상태를, 일어남은 시작을 그린다. 그 후 그는 “나귀에 안장을 엮는다.” 나귀란 자연적인 추론 또는 일반 상식을 뜻하는데, 나귀에 안장을 엮는 것이란 자기가 가진 자연적인 추론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함을 그린다. 그 다음은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이다. 사를 장작이란 뭔가를 올바르게 해 보겠다고 하는 인간에게 오는 느낌이다. 두 종이란 올바른 것을 해내는데 있어서의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뜻한다. 어린 소년 이사악이란 인간이 가진 보다 높은 추론이지만 아직은 연약한 추론을 그린다. 그는 모든 것을 챙겨 가지고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귀와 두 종을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사악과 불씨와 장작 그리고 칼만을 챙겨 산으로 올라갔다. 이는 아브라함이란 우리 속의 절대적 순종이 챙겨 가지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랑(불씨)과 진리(칼) 뿐임을 그리는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우리는 선한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해내기 위한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들이 더욱 순수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실제로 뭔가를 해내는 지점에 도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 중 훨씬 더 좋은 것을 자주 보여 주신다. 연장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막상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주님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아들 대신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보여 주셨다. 이사악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잡아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하느님은 절대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어린 학생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사악을 죽이지 못하게 말리셨을까, 왜 다른 일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도록 허용하셨을까 또는 이사악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면 왜 처음부터 여행을 말리시지 않으셨을까”하는 등의 구태 의연한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사악은 보다 높은 것을 추론하려는 우리 속의 능력을 뜻하므로, 이사악을 죽이는 것은 우리 속의 그러한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그린다.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진 종교를 이리저리 생각하며 추론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이 능력을 파괴하는 것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유명하다는 목사의 강연이라 해서 “덜어놓고 아멘”하고 추론 없이 받겠다면 보다 높은 것을 추론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신의 합리성(능력)을 죽이는 결과이다. “왜”라는 단어가 왜 인간의 언어에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수양이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는 순진한 진리이다. 순진한 진리란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마음을 파괴하지 않는 추론이다. 하느님께서 이 추론을 그분께 바치도록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수양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데 써야 할 추론이라는 뜻이다. 수양은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스웨덴북은 덩불이란 자연적인 사상들을 그린다고 설명한다.

이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의 첫 11장까지를 공부해 왔다. 성경에 관한 자연적인 사상은 첫 11장까지의 이야기들 속에 어떤 진리가 있느냐고 하는 의문을 지니게 한다. 우리가 가진 사상이 자연적 사상뿐일 때는 에덴의 동산, 노아와 홍수, 바벨탑 또는 거인족의 탄생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간주한다. 그리고 "나도 그런 이야기는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며 성경에 관한 생각과 추론뿐만 아니라 기억에 담아 둘 필요가 없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성경의 모든 내용을 거절하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만다. 이런 상태가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연적인 사상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한편, 우리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하려는 찰나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식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는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수양을 풀어내어 그분께 바치는 헌물로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단어 “제물”이란 “거룩하게 만듦”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선용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능력들을 주님의 안내 하에 그분을 섬기기 위해 써야 함을 다짐해야 한다.

### 기본 상응 공부

나귀 = 자연적 이성

수양 = 순진하기 때문에 힘이 센 진리

### 질문 정리

- 1)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2)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였는가?
- 4)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도록 시험되었는가?
- 5) 그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는가?
- 6) 주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 7)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8) 모리아산에는 오랜 후에 무엇이 지어졌는가?
- 9) 아브라함의 여행은 며칠이 걸렸는가?
- 10) 아브라함과 이사악 외에 누가 여행을 함께 했는가?
- 11)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12)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는가?
- 13)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14)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15)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느 시험에서 멈추게 했는가?
- 16) 주님은 그를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17)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무엇을 제물로 발견했는가?
- 18) 시험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가?
- 19) 주님은 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 20) 이사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래 2) 이사악 3)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다.
- 4)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5)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6)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도록(확증하도록) 배려해 주심

- 7) 모리아산 8) 성전 9) 3일 10) 두 종 11) 나귀, 장작, 불, 칼
- 12) 이사악, 아브라함 13)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 15) 그가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에 16) 천사 17) 수양
- 18) 아니다 19) 우리의 인격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 20) 영적 이성

## 6

### 야곱의 꿈

#### 머리말

세 가지 요점을 연결하여 본과를 진행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 야곱과 이사악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 2) 하란 지역 그리고 3) 베델 지역이다.

#### 성서본문: 창세기 28장

28장: 1. 이사악은 야곱을 불러 들여 복을 빌어 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2. 너는 바딤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3.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5. 그리고 이사악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바딤아람으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6.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바탄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7.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탄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8.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한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13.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4.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하며 17.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이로우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20.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21.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22.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 \* 말씀은 주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다
- \* 우리는 말씀의 글자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믿음을 발견한다.
- \* 「기름 부음」이란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확인하는 행동을 상징한다.

## 해설

이사악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이 있었다. 에사오는 큰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졌다. 비록 쌍둥이지만 에사오와 야곱은 구분하기 힘들지 않았으며 서로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 야곱은 에사오를 속인 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야만 했다. 이로 인해 야곱의 힘겨운 여행이 시작된다. 아버지 이사악이 아내를 맞아 들였듯이 그 역시 하란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계획되어져 있었다. 그 여행은 젊은이 혼자 하기에는 힘들고 길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길과 여관도 없어서 밤이 깊어지면 아무데서나 누워 자야 했다. 본 장의 끝 부분을 보면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까지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꾸은 꿈은 그에게 주님이 그를 지켜보고 용기를 주고 계심을 보여 주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당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중의 하나이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한 지역으로서 롯이 선택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이 지역을 베델이라 부르는데, 그 이름은 야곱에 의해 처음으로 불려졌다. 베델은 “하느님의 집”을 뜻한다. 야곱이 베게 삼은 돌이란 진리, 특별히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고 근본이 되는 말씀 속의 진리들을 그린다. 야곱은 아침에 주님이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장소며 용기를 주신 곳 그리고 그분께 서약한 곳을 표시해 두기 위해서 베게로 사용한 돌을 세워 제단을 세웠다. 이 두 약속은 모두 굳건히 지켜졌다.

사다리는 본장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귀감을 주는 부분이다. 히브리 단어에서 사다리

는 길을 뜻한다. 어떤 번역가는 지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사다리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고 말해지는 부분 때문이다. “천사”로 번역된 이 말은 “전달자(특사)”의 뜻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의 천사 또는 전달자가 주님에게로 올라가고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통로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여기서 천사들이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 길의 발은 지상 위에 있다. 즉,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쓰여 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의 꼭대기에 계신다. 야곱이 그곳의 돌을 갖고 베개 삼아 누워있는 광경은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인생 여정에 처할 때에도 주님에 관해서 배운 것들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려준다. 그러나 그는 꿈을 깨고 난 후 베고 잤던 돌로 꿈을 기념하는 돌단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와 주님을 어떻게 연결해 주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게 될 때 두려움 없이 전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 볼 때마다 즐거움이 솟아나는 상황과 같다. 기름은 사랑으로 상응된다. 거룩함을 의미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에 기름을 쏟거나 또는 기름을 붓는 관습은 인간이 상응을 알게 되었을 당시인 고대 교회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왕이나 여왕의 즉위식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은 일어나서 석상을 세우고 그분께 진지한 서약을 했다. 쌍방이 약속을 교환하는 행위를 “언약”이라고 부른다. 주님과 야곱같이 그분은 우리 모두와도 약속하고 계신다. 야곱이 서약했듯이 우리도 서약하고 지킨다면, 주님은 그 옛날 야곱에게 했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신다. 간혹 어떤 이들은 주님이 왜 그토록 야곱을 번성시켜 주셨는지 의아해하며, 야곱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역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임을 느끼게 되고 결국 천국적인 고향에 도달된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보여주시고 진정한 길을 안내해 주신다.

## 기본 상응 공부

돌 = 진리  
기름 = 사랑

## 질문 정리

- 1)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누구인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가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낸 곳은 어디인가?
- 5) 여러분은 본문 외에 어느 부분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접했는가?
- 6)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7) 그는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8)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9)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10) 천사란 무슨 뜻인가?
- 11)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는가?
- 13)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가?
- 14) 꿈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15) 우리가 가진 야곱의 사다리이란 무엇인가?
- 16) 우리의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에사오와 야곱
- 2) 아내를 구하고 형을 피하기 위해서
- 3) 하란
- 4) 베델
- 5) 아브람의 이야기
- 6) 돌
- 7) 사다리
- 8) 주님
- 9) 천사들
- 10) 특사, 전달자

- 11)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12) 석상을 세웠다 13) 16-19절을 읽어 보자 14)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다 15) 말씀 16) 생각들

## 7

# 감옥에 갇힌 요셉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본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공부 중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는지, 그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는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음 등이다. 또한 4반과 5반에서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리즈가 갖는 의미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와 연관된 이집트의 의미도 재고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흥미롭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39, 40장

39장: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2.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3.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5.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말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6.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 생긴 사나이여서 7.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꾀는 것이었다. 8.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 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9.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10.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 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12.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3.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14. 그는 집안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고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 왔구나. 그 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15.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치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 둔 채 뛰쳐나갔다.” 16.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17.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어요. 글썄 그 놈이 내 방에 들어 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18.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19.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던 말이어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2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22.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40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2.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3. 경호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4. 경호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 온지 여러 날이 지났다. 5.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7.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는지요.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다. 9.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도요.” 12.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5.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 올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17. 제일 윗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18.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9.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 나왔다. 21.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22.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애착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애착을 보호하며 강건케 해 주신다.
- \* 요셉의 이야기는 주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 진리는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주님께 순종함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해설

야곱의 열 두 아들이란 우리의 모든 자질과 애착을 뜻하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게 된다. 그 자질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나중에 발달되며, 가장 높은 것이란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 가장 높은 것이 나중에 발달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 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옳은 것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우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나중에 배우는 영적인 것이 현실 세계에서 행동되기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달랐으며, 그들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는 꿈도 꾸었다. 이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원인이 되었고 급기야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요셉이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선행하려는 바램을 의미한다. 이 바램은 성공적인 삶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좋은 경험을 가질 때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바램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될 때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갈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바램이 있기 전 발달된 우리의 모든 자질과 애착들은 현실 세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규율되어야 한다고 완강히 고집 부린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요셉을 보호하셨고 우리 속의 요셉도 보호하시며 죽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의 맨 뒤로 요셉을 밀쳐놓아 마치 그는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바로 이집트의 감옥에 있는 요셉이다. 말씀에서 이집트는 “기억적인 지식”을 뜻한다. 즉, 사실에 관한 모든 실체는 우리의 기억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요셉은 기억적인 지식의 땅에서도 쉽게 큰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와 같이 될까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실로 선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때라도 지닌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 멋진 의복 혹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보다 높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며 설령 우리 자신이 이타주의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이타주의 정신이 최상의 것임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음미하거나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고난, 시험 혹은 실망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게 되어 삶 속의 사소한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진 진정한 질서에 합세 시킬 줄도 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주인의 집 모든 관리를 맡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선행하려는 우리의 바램(요셉)은 선과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집트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과 우리 속의 이기심(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이타심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므로 아예 이타심이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도록 봉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종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감각을 표현 한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구성하신 성만찬에서 "빵은 나의 살이요,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다. 빵은 선을, 포도주는 진리를 뜻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살과 피를 받고자 하면, 이는 바로 우리를 살찌게 하는 하느님의 선과 진리이다. 두 시종장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꿈의 해석이란 하느님께 속한 일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즉, 주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만이 앞으로 그들에게 발생할 것에 대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적절한 용도를 위해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주인의 잔에 붓는 꿈을 꾸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빵을 주인의 식탁에 올리기 전에 새들이 빵 바구니에서 빵을 빼앗아 버리는 꿈을 꾸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복직될 것을, 빵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죽게 될 것을 의미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 즉, 우리의 감각들이 주님을 더욱 현명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진리를 가져오는 진정한 씩씩이를 수행해 갈 때만이 우리와 함께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의 거짓 사상이 그대로 방치될 때는 새들이 빵을 훔쳐가는 것과 같이 거짓 사상이 우리의 선을 훔쳐가게 되어 우리의 감각들은 더 이상 우리의 진실한 종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우리의 감각들이 말해주고 알게 해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시켜 버린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그림을 그려주는 좋은 내용의 책을 선택하여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지만 나쁜 책을 읽게 되면 우리 속의 선한 애착을 혼탁한 사상에 빼앗기게 되어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 우리의 요셉, 즉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바라는 마음은 발생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해 준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경험에서도 종종 입증된다. 우리는 때때로 만사가 잘 되어 가는 때, 즉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복직되었을 때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 그러나 41장 9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우연한 사건이 우리에게 요셉을 상기시켜 주는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잊고 있던 때를 죄스럽게 생각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된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 갈수록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욱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종종 읽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은 요셉의 사건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를 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셉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은 주님이 지상에서 가지셨던 일들과 아주 흡사하며,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그분을 그리고 있다.

### 기본 상응 공부

빵 = 선함

포도주 = 진리

### 질문 정리

- 1)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는가?
- 2)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어디로 끌려갔는가?
- 3)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 4) 그와 더불어 감옥에는 누가 있었는가?
- 5) 요셉은 두 시종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6) 술잔을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7) 빵을 구워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8) 두 시종장의 신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했는가?
- 10) 우리 삶에서의 요셉은 무엇인가?
- 11) 우리는 때로 “이집트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 질문의 답

- 1)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귀여워했고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2) 이집트

3)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4) 파라오의 두 시종장 5) 꿈을 해석해 주었다. 6)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 7) 새들이 빵을 먹는 모습 8)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다. 9) 기억 못함 10) 선해지려는 마음(바람) 11)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를 갖게 되어 선해지고자 했던 마음을 잊으려고 할 때

## 8

# 불붙은 떨기나무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과 본 과를 연관 지어 본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한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 가야함을 망각해 버리는 시험을 겪게 된 것을 본 과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주신 선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옳은 길, 즉 선택해야 할 길 대신에 편한 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롯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목도 예로 든다. 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옳은 것에 항상 고생이 뒤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장

3장: 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더니 2.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3.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4.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5. 하느님께서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6.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뵈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7.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8.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어라.” 11.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15.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17.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기로 작정하였다.’  
 16.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 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22.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얻어 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탈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I am)”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진리에 관한 지식은 악용될 수 있는데, 상응에 관한 지식이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마술로 변한 사실이 그 예다.
- \* 주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

### 해설

우리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질 때 그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한다. 우리의 직업 전선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적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해결책을 모르는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허다하며, 그런 때에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기억들을 총동원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을 발견한다. 요셉은 주님의

건지에서 옳은 것을 하려는 바램을 뜻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요셉은 기근을 위해서 저장해 둔 곡식을 창고에서 꺼내어 그의 형들에게 주었다. 우리의 “요셉”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각자의 창고인 기억 속에 저장해 둔 말씀으로부터 온 교훈들을 끄집어 낸다. 야곱과 그의 가족 일행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요셉의 은혜를 입은 파라오는 그들에게 살기 좋은 나일강 삼각지 고센 땅을 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요셉의 보호 아래 풍요롭게 정착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든 인생 문제에 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 연구나 공부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연구 혹은 성경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까닭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문에 몰두하며 삶에 관한 지식도 배워가지만, 학문 혹은 삶에 관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지식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만 몰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풍요로운 삶에 젖어들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야함을 잊은 모습과 동일하다.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람들은 종종 배움 자체에 노예가 되기도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200여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이집트에서 머물렀다. 그들은 주님을 자꾸 잊어 갔으나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불행한 환경을 실감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진정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들어 올리셨다. 여러분이 모세가 어떻게 구원되고 보호되었는가를 기억할 것으로 믿는다. 파라오가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강가 숲 속에 모세를 작은 상자에 넣어 떠내려 보냈다. 이 때 목욕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 간 파라오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 모세는 구조된다. 이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육되었고 통치자가 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세는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모든 것을 배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히브리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졌다. 그는 40년간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나 히브리인 노예를 때린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했다. 그 지역은 험난한 산악 지역으로 시나이반도 남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의 두 번째 40년을 살게 된다. 미디안의 이름에 따라 그 지역이 미디안 땅이라고 불렸지만, 그는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이 다시 얻은 아내 케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미디안 족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고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예배와 단순한 믿음을 보존해 왔다.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면 그들이 상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주님의 섭리의 한 몫을 담당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지녔던 하느님에 대한 아주 단순한 신앙심을 뜻한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 지식에 휩쓸려 갈 때 보다 나은 방법으로 세상에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힘을 우리 속에 충분히 저장시킬 때까지 한동안 미디안 족, 즉 단순한 신앙심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서 40여 년 동안 그의 몸을 의지해 살았던 것에 해당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미디안 땅에 영원히 머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어져 있는 것이다.

모세는 어느 날 시나이반도 산들 중 하나인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은 이상한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이 붙어 있는데도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였다. 우리는 창조 편에서 식물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생각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풀과 같은 일년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키가 큰 나무도 아니다. 즉, 떨기나무란 어느 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발달된 사상 혹은 중요해질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상태의 사상이다. 이 사상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질 때 뭔가 큰일을 해낼 것 같은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 다시 말하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그 영감을 점검해 보기 위해 불붙은 떨기나무에 조금 더 가까이 간다. 그때 바로 그 사상(떨기나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다가가자 주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우리의 발이 걷게 될 때마다 신은 신발이란 우리가 매일 궁리하는 실제적인 일을 표현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 큰일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갖게 되거나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을 놓으셨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통상적인 이기적 사상들을 신을

벗듯이 한쪽으로 제쳐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나를 위해 맡겨진 임무가 성취될 때까지 너희를 도우며 동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제 본문 1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하느님 이름조차도 다 잊어 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긴 하느님이 이집트인의 하느님과과는 다른 하느님이라는 정도만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에 꽤 익숙할 것이다. 이는 “I am”이 히브리어로 된 형체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시작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겠지만 어찌됐든 시작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 첫 과에서 배웠듯이 주님은 세상과 우리 각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누가 하느님을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제 14절에 있다. 즉, 아무도 하느님을 만들지 않았다. 하느님은 계신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느님은 생명 그 자체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근원 된다.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하느님들, 즉 우상들을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은 우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 계신 존재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모세 시대 이후 많은 세월이 경과한 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제 4장에서는 모세가 주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몇 가지 징조가 언급된다. 모세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함에 있어, “나는 영리하지 못해서” 또는 “나는 그것을 하기엔 역부족이야”와 같은 이유를 든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양심 안에서 듣고 우리의 의무도 배우게 된다.

### 기본 상응 공부

미디안 = 아주 단순한 혹은 어린 시절 같은 신앙심

신발 =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실제적인” 생각들

###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 2) 그는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는가?
- 3) 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는가?
- 4) 그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5) 미디안이란 누구인가?
- 6)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가?
- 7)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산 근처에 있었는가?
- 8)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9) 주님은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 10)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모세는 그 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싶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이집트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머물러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6) 미디안 땅은 좋은 의미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머물렀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불붙은 떨기나무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이집트의 궁전    2) 40년(사도행전 7:23참조)    3)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

4) 미디안 땅 5) 아브라함과 게투라의 아들 6) 40년 7) 호렙(시나이)  
8)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불붙은 떨기 10)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인도함 11) No 12)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13) 은불이와 금불이 그리고 옷 등 14)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5) 지식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지식 자체를 숭배함. 16) 단순한 믿음 17) 시험이 충만해진 상태 18)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심

## 9

### 마라와 엘림

#### 머리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줄거리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순종했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생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한다. 이러한 광야생활 중의 실망과 불평은 구원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광야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시험에 든 상태를 상징한다고 한다. 즉,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한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고 험난함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기복”에 아주 친숙하다. “삶의 기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기복에도 적용된다. 본과는 “up”으로 출발하나 “down”이 금방 뒤따른다. 그리고 또 다른 “up”으로 끝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본과의 공부에 용이할 것이다.

## 성서본문: 출애굽기 15장

15장: 1.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 야훼는 힘 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 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3.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더라. 5.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6.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습니다. 7.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독처럼 일어섰으며 바다 속 깊은 데서 물이 엉겼습니다. 9.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11.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12.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아,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14.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15.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16. 덮쳐 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어라. 19.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노래를 메졌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2.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23.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24.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25.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 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27.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 \*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란 주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이글거리고 있는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 \* 인생 중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 강함을 증진시키는 기회이다.
- \* 선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 즉 선의지는 우리에게 영적성장의 고진감래를 느끼게 해준다.

### 해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집트 땅이 “기억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창고였다. 이집트는 강수량은 적으나 나일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산으로부터 새로운 토양이 평야를 뒤덮어 주어 토지가 비옥하였

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으로부터 농토에 물을 댈 수 있어서 웬만한 가뭄이나 기근은 이집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뭄이나 기근이 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가뭄이나 기근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파라오가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어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정했을 때, 요셉이 행한 일은 파라오의 꿈의 해석처럼 장차 올 가뭄과 기근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새로 습득한 지식들을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만 했던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했다.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우선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과 자신을 따라나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파라오에게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되돌아가도록 해야 함을 확신시켜야만 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인들로부터 금과 은 그리고 옷 등을 억지 차용했고 과월절을 기념한 뒤 출발했다. 이리하여 주님은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들은 홍해에 도착하게 될 때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주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은 마른땅을 딛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물이 합쳐져 추격해 왔던 파라오의 군대는 물살에 의해 삼켜져 버렸다.

본 반의 공부는 그들을 구원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승리의 노래와 더불어 시작된다. 20-21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노래이다. 노래의 가사는 히브리어로 된 것이며, 곡은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끔 사용되는 영창(chant)과 비슷한 형태이다. 이러한 노래 형식만이 성경의 말씀을 크게 바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영창은 유대인들의 찬양방식으로, 오늘날의 유대인들 역시 신을 찬양함에 영창으로 한다. 노래란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자연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노래는 이러한 표현에 상응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노래들을 발견한다. 시편은 모두 노래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영창으로 유명했다.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찬미가 있는 뒤 (이는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시험에서 건져졌음을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즉각적인 느낌들을 말함),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거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집트를 떠나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갖가지 사건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따른 행동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새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서는 옳은 것을 찾아내서 행동할 수 없다.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 오는 광경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속에 담겨 있던 이기적 사고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뒤쫓아 오는 상황이다. 그래도 첫 시험을 극복하겠다는 용기, 즉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면 그것은 극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물은 진리에 상응한다. 광야는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하며 누구도 그곳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 스웨덴붉은 광야란 우리의 “회미한, 불명확한 심정 상태”에 상응한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확히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런 막막한 상태와 더불어 새로운 진리가 대단히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리가 도저히 발견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모세 역시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것이었다.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두 기둥은 말씀의 글자와 글자대로의 의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름”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구름은 해를 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구름을 통과하여 계속 비추고 있다.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말씀의 글자는 때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말씀의 글자 안에서 빛나고 있다. 즉 말씀의 글자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Marah)”라고 불리는 지역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모세가 야훼께 울부짖자, 주님은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나무란 말씀 가운데 있는 선함을 상징하는 많은 것 중의 하나이다. 나무를

물에 던진다 함은 우리가 배운 진리에다 선을 행함을 사랑하는 것 또는 선을 놓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언제나 쓰다고만 느낀 진리를 달게 만든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이 때 그 물은 쓴 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뜻 하신 바를 옳다고 느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것이 쉬움도 발견한다. 진리가 쓰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속의 이기적인 마음이다.

본문을 보면 구름 기둥은 그들을 조금 더 멀리 인도해서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고 한다. 이것은 영적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여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됨으로서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함을 상징한다. 열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적인 만족과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인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샘이란 진리를 뜻하며 종려나무는 선을 뜻한다. 선이란 주님의 권능이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우리와 한편이 되어 돕고 있음을 인식함에서 근원 하는 선이다. 여러분의 행동이 옳게 행해진 뒤에 여러분은 “좋은”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시험과 싸워 저항해내고 나쁜 것을 거절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고 새로운 더 큰 시험에 직면하기 전, 한동안 그것을 즐기도록 해주신다.

### 기본 상응 공부

구름 = 말씀의 글자

종려나무 =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얻는 선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무엇에 의해 인도되었는가?
- 3) 홍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 4)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5)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누구인가?
- 6)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는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기 전 며칠간 광야를 여행했는가?
- 8)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9) 쓴 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인가?
- 10) 그들의 다음 번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 11)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이집트로부터 빠져 나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3)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쓴 물과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란 무슨 뜻인가?

#### 질문의 답

- 1) 과일절 2) 구름 기둥, 불기둥 3) 물이 갈라짐 4) 노래를 불렀다
- 5) 미리암 6) 소구 7) 3일 8) 물이 쓴맛 이었다.
- 9) 마라 10) 엘림 11) 열 두 개의 샘,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
- 12)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영적 상태를 추구함
- 13) 말씀을 담은 글자 14)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반대되어 있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람

# 10

## 궤

### 머리말

본과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법률과 각종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여행 초기 석 달째에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정부 형태를 갖추었음과 그 형태가 그들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지속되며 오늘날의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막 안의 가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되어졌음과 그 재료들이 구해진 곳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출애굽기 12:35-36).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요구되어진 모든 재료들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랑 민족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훈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사료만을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5장 1-22절

25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3. 너희가 받아 들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4.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7.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8.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 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10. 그들은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 높이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1. 순금판을 채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도 고리 두 개를 붙여라. 13.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이 채를 채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채를 들게 하고 15. 채는 고리에 꿰어 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채 속에 넣어라.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8.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름 둘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19. 거름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름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름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20. 거름들은 날개를 위로 퍼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21. 그 속죄판은 채 위에 얹고, 채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채 위에 있는 두 거름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 주리라.

### 교리 요점

\*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

- \*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법의 영적 의미를 공부하면, 말씀을 담은 글자의 세부 사항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실용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 \* 성막의 설계는 천국적 인격을 위한 청사진이다.
- \* 계명들은 심정에 새겨져야 하며 지성에 새겨져서는 안 된다.

##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을 시작한지 석 달째 되던 때 시나이에 도착했다. 시나이 산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부름 받았던 호렙 산맥의 일부로 기억될 것이다. 그곳은 평야에서 갑자기 날카롭게 솟은 듯하며 바위투성이의 산이다. 백성들은 평야에서 아영하고 산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되어 있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규제하고 그 이후 그들이 세울 국가의 기틀이 될 법률과 제사의 지침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 오늘날도 유대 정통과 회당에서는 이에 관한 많은 것을 준수하고 있다. 물론 십계명을 제외한 많은 법들은 글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들이 가진 속 뜻은 우리에게 적용되며, 향후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여러분이 깊이 공부해 가면 그 법들에 관한 세세한 속뜻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법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깊은 것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은 십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전에 계명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롭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초기부터 그 법들을 말해왔고, 모든 사람은 나뉠대로의 법에 대한 기초로 그 법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사람들은 그 법들이 하느님의 법이요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는 알아질 수 없음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시나이 산으로부터 법들이 주어진 광경이 말씀 안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법의 근원과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계명들은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의해 산꼭대기로부터 말해졌다. 모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순간은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유일한 때였다. 그 후 모세는 산꼭대기로 불러 졌고, 주님은 계명들을 두 돌판 위에 쓰셨다. 모세는

돌판을 갖고 하산했을 때 백성들이 우상 쪽으로 되돌아 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여 돌판들을 깨뜨렸다. 그 후 주님은 모세에게 산 밑에서 취한 돌을 다듬어 갖고 올라오도록 하시고 똑같은 계명들을 다시 그 위에 쓰셨다. 산 밑에서 취해진 두 돌판은 궤 안에 넣어 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과 함께 했다.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것 중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들에는 성막 또는 텐트를 짓는 구조와 그 안의 가구들에 대한 지침도 있었다. 백성들은 여행하면서 성막에서 예배했다. 성막은 그들이 머물 때는 칠 수 있고 이동할 때는 함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모세가 받은 지침은 어떤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할 것인지와 여정을 멈추고 진을 칠 때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세세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성막은 진을 칠 때에는 진영의 중앙에 그리고 행군 대열 시에는 대열의 중앙에 위치해야 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중앙에 두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성막을 위해 만들어진 가구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이다. 궤는 가장 깊은 방, 즉 지성소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가구이다. 본문을 보면, 그 가구가 안과 밖이 순금으로 칠해진 아카시아 나무로 된 상자임을 알 수 있다. 성막의 세 장소란 주님을 섬길 우리 삶의 세 평면을 표현한다. 즉, 우리의 심정과 의지와 지성 그리고 바깥쪽 삶이다. 지성소는 우리의 심정 측면을 그린다. 우리는 말씀 중에서 수차례 계명들이 심정 안에 있어야 함을 읽는다(시편 37:31, 40:8, 51:7). 이는 우리가 계명들을 사랑하여 삶의 중심에 그것을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궤는 우리의 심정 안에 계명들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그려준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의하면 아카시아 나무는 “공의에 근거한 선”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모든 선이 주님께 근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서 발달되는 선이다. 나무를 덮은 금이란 순수하며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겸손이라는 영혼으로 순종을 통해 습관을 형성해 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궤 위를 덮고 있는 금 속죄판은 우리의 순종심으로 인해 죄가 정결하게 됨을 그려준다. 그리고 황금 거룩들은 자신만을 신뢰함으로부터 순종심과 선함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의미한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시기 위해 거기에서 만날 것임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어떻게 판명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계명들을 꼼꼼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하려는 삶의 방법 중에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만약 선택하려는 삶의 방법 가운데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결정은 아주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계명과 일치될 때의 모든 가능성도 추측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어느 쪽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까?” 하고 질문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되어 진다. 만일 우리가 심정에 계명을 두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자세를 원칙으로 하여 삶을 꾸려 나가면, 자만심을 높이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총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천국적 인격을 만들도록 하는 주님의 섭리가 확실해질 것이다.

언약의 궤는 오랜 역사를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궤를 성심껏 보관했고, 거룩한 땅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막에 궤를 모셨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해 편히 살 수 있게 되자 궤를 소홀히 했다. 한 때 그들은 단지 궤를 행운의 조각품 정도로 여기며 이기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궤를 한동안 빼앗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궤는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궤는 성전 가장 깊숙한 방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더 이상 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두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아카시아 나무 = 공의의 선

거룩들(cherubim, cherubs) = 거룩한 것을 모독함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섭리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산꼭대기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2) 주님은 이밖에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3)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4) 그곳의 가장 깊은 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그 안의 가구는 무엇인가?
- 6)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7) 궤의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 8) 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 9) 주님은 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10) 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속죄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여러 가지 작은 법들 3) 성막
- 4) 지성소 5) 언약궤 6) 아카시아 나무
- 7) 덮개 8) 두 돌판(계명들)
- 9) 백성에게 말하시는 데에 사용
- 10) 우리의 내적 존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11) 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함

# 11

## 열 두 스파이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본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을 읽어본다. 그 후 레위기서의 일반 목차를 훑어보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기억한다. 이 후 민수기 10장 33-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적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 성 서 본 문: 민수기 13장, 14장

13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3.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4.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6.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7. 이싸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아갈, 8.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10. 즈블론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가띠엘,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띠, 12.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13.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 대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15.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1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은 모세였다.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 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 가 보아라. 18.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20.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 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21. 그들은 썬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살피려고 그 땅으로 들어 갔다. 22.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하만, 세세,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 왔다. 24.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 왔다고 해서 그 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5.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 사십 일이 걸렸다. 26.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28.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29.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32.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 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14장: 1.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3. 야훼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4.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5.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6.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오 8.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 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0.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12. 나 이제 염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 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13.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14.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15.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 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6.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7.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18.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 주시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23.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그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25.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 광야로 떠나거라.”

26.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7.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28.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29.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덩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30.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31.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32.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어야 한다. 34. 너희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35.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3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 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염병으로 죽었다.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39.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40.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올라 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려고만 있을 터이냐?” 41.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42. 올라 갈 생각을 말아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 갔다가는 43.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44.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 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시험은 보류해 주신다.
- \* 구약 성서에서 언급된 거인들이란 태고 교회에서 잔류된 악들이다.
- \*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유전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거인들이다.

### 해설

실제로 궤가 완성되고 성막이 마무리되어 제 위치에 놓여 졌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 위에 머물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의 예배를 인도했으며, 백성들은 주어진 모든 법들을 준수하기 시작했다. 법들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주님은 모세에게 모든 사람의 수를 세도록 이르셨다. 수를 셈, 즉 인구 조사가 민수기서의 첫 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민수기(Numbers)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인구 조사가 끝난 후 각 지파는 그들의 숫자대로 은을 헌납 물로 가져왔으며, 모세는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나 행군을 시작할 때 사용하도록 분부했다. 민수기 10장 11-12절을 읽어보자. “제 이년 이월 이십 일에,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걸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진지를 옮겨가며 행진하였다. 다음에 구름이 머문 곳은 바란 광야였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고 용기 있게 행군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그들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불평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11장 4-6절을 읽어 보자.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 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제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불평에 대해 무엇이 왔는지를 알려준다. 제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반역하여 주님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를 보여주시기 위해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었고 모세의 기도로 낫게 해주셨다.

백성들은 카데스라 부르는 거룩한 땅 경계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주님은 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거룩한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스파이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스파이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안에서 사는지,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 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하

고 일렀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에 관한 그림이다.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보여 주시며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뉘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저하게 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하고 있음도 보여주시나. 우리는 우리의 뒤를 되돌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순간 하고자 원했던 것이 전부다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정말 행복한지 다시 확증해보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는다. 이리하여 우리의 생각들은 천국을 정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열 두 스파이가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일련의 비슷한 보고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거룩한 땅이 과연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우리가 그 땅의 열매까지 맛보도록 허락하신다. 여러분은 이해를 따지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잠깐이나마 행복감을 맛볼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이제 스파이들이 했던 것을 살펴보자.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다” (23절). 그들은 모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 젖이란 선함이 들어 있는 진리를 표현하며, 꿀이란 이와 같은 진리에서 나오는 행복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은 스파이들같이 그 땅에는 많은 적들과 튼튼한 성 그리고 거인조차 있다는 말도 함께 가지고 온다. 우리가 진실로 천국적인 삶을 살아 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의 결점들과 고쳐야 하는 잘못된 사상들 그리고 우리의 결심 앞에 우뚝 선 거인처럼 불쑥불쑥 내미는 우리의 심정 안 깊은 수면에서 기어 다니는 이기적 욕구들이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구약 성서의 수차례 언급되는 거인들이란 태고 교회의 악한 찌꺼기로서 우리의 뿌리 깊은 유전적인 이기심을 그린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용감한 민족은 아니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 속의 어떤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늘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간혹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순간에도 뒤로 물러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일어나는 일과 흡사하다. 우리가 스스로의 결점을 제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신명기 2장 14절과 본문

14장 29절에서 말해 주듯이 본문의 때로부터 약 38년이 걸려서야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들”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느낌은 진실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포기되어야만 한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이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살피고 계심을 배움으로서 점차적으로 마음에 발달되는 새롭게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만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땅에 들어갈 당시 살아 있던 유일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에 관한 것은 차차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젓 = 선함이 들어 있는 진리

꿀 = 선함과 진리로부터 오는 행복

### 질문 정리

- 1) 시나이 산을 떠난 뒤 그들이 도착한 거룩한 땅 경계선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백성들은 누구를 파견했는가?
- 3)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4) 그들은 그 땅에 관해 어떤 보고를 했는가?
- 5) 열 스파이들의 결론적 충고는 무엇인가?
- 6) 어떤 두 스파이가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상기시켰는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한 충고에 따른 벌은 무엇인가?
- 9)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가?
- 10) 나쁜 충고를 준 열 스파이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 11)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해야 했는가?

## 질문의 답

- 1) 카데스 2) 열 두 스파이 3) 포도, 석류, 무화과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
- 5) 그곳 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6) 갈렙, 여호수아 7) 열 스파이의 충고 8) 40년간의 배회 생활 9) 20세 이하인 자, 갈렙, 여호수아
- 10) 재앙이 덮쳐 죽었다 11) 대략 38년

# 12

## 여호수아를 부르심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스토리로 다루기보다는 토의 형식의 진행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우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상기하면서 성경 스토리를 간략히 재고한다. 이에 따른 전체적 윤곽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기본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장

1장: 1.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3.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 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4.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헷족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7.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8.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9.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 간다.’” 12.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13.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 가 동족들과 함께 싸워라. 15.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 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16.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결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결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18.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순위에 두어서는 안 됨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재구성과 증생은 다르다.
- \* 최선의 용기란 시험 중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 해설

여러분은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도록 주님이 벌을 내리신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열 스피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약속된 거룩한 땅을 정복하려는 첫 시도에서부터 겁냈기 때문이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중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정복하기 위해 돌진하고자 했던 두 스피아인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요르단 강을 건너도록 허락되었다. 모세조차도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모세는 과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권능을 사용했기에(민수기 20:1-13) 약속된 땅을 보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광야 생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네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백성들이 들어 갈 모든 땅을 본 뒤 죽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38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수없이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사소한 일들로 모세의 지도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불평하여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만다. 그 결과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안전함과 평안함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해주려는 주님의 섭리였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훈육시키신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선한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배우고 깨우쳐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의 역경이 해결되면 또 다른 역경이 대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과 이기적인 감정들이 차차 죽어준비가 완료되는 때가 바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순간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오점을 분명히 보고 인식한 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타파해 버리지 않으면 천국적인 인격에 해당되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 살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무감이나 세상살이를 좀 더 향상시켜 보기 위해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되돌아가서 광야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주님께 의해 모세의 직책을 맡도록 임명되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여호수아가 승계 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 왔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의 첫 실제 전투에서 이스라엘 용사들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고 신임했다. 스웨덴북은 여호수아란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실제로 진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과 세상에 가득한 악들과 반드시 싸워야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진정한 진리, 곧 싸우는 진리의 지휘 하에 전진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적들은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나쁜 일들의 책임은 남에게 전가 시키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기를 모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분명히 아주 나쁜 습관이다.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싸우는 진리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에 정면으로 맞서 그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안에 든 결점을 보고 나쁜 습관을 고쳐 주려고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나쁜 습관을 외향적으로나마 다스려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어 가정에서 서로 잘 어울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습관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나쁜 습관이 강하게 작용하여 튀어나올 때마다 고쳐나 가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튀어나오는 적들에 해당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들과 싸워야 함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를 스스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진하여 그것을 극복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두 겹으로 된 하나이다. 즉,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는 것과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지키되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는 것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과 낮으로 되새겨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견지에서 정말 옳은 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전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말씀에서 배운 진리의 조각들을 적용하여 살아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이기적일 때는 우리가 길을 잘 가도록 도우실 수 없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이기적인 것은 언제나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신이 보기에 나쁜 것을 누군가가 하자고 할 때 “NO”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강하면서 선한 용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용기를 발달시킨 자들이다.

본 반을 공부함에 있어서 민수기 32장 1-6절과 16-22절까지를 다시 읽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서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요르단의 낮은 계곡이 아주 비옥하고 보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 그 지역은 우리 생활 속의 자연적인 평면을 그린다는 것 그리고 자연적인 평면이란 우리가 가지는 직업 또는 쾌락 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해주며 그 속의 좋은 것을 즐기는 것 등을 배웠다. 또한 롯은 아브람과 헤어진 후 평지에 자리 잡은 사악한 소돔 성에 빨려 들어가 나중에는 곤경을 치러야만 했던 일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요르단 강 동편 저쪽에 정착한 23지파들은 위의 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 지파들은 그들의 전투 용사들이 동료 지파들과 함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싸울 것과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들이 정착할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그 지파들이 그들의 아내, 자식 또는 가축 떼를 요르단 강 건너편 땅에 머무르게 하고 싶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비옥한 계곡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일련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기에 앞서 의를 행함을 우선했음을 염두 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갖도록 하되 그것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알고 계신다. 유일한 방법이란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고 우리의 속성인 이기심을 극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룩한 땅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전에 먼저 정복되어야만 한다. 간단한 예로, 돈을 소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돈을 벌며 그 돈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행복하게 해준다. 반면, 어떤 이들은 타인의 희생으로 돈을 벌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용도로만 돈을 쓸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고독한 수전노가 되거나 그들 자신과 비슷한 이들과 더불어 사회생활에서는 무척 화려하게 보이거나 행복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느라 자신의 일생을 소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의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적당한 관계를 보여주신다. 그분은 세상적인 것에 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6:32-33). 무엇이 인생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지 윌 구절을 통해 정리해보기 바란다.

### 기본 상용 공부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계곡 = 삶의 자연적 평면

### 질문 정리

- 1) 열두 명의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 왔는가?
- 2) 그들이 그곳에 관해 보고한 것 중 좋은 것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 나쁜 것은 무엇인가?
- 4)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열 명의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5) 나머지 두 스파이는 무엇을 충고했는가?
- 6) 주님을 신뢰한 두 스파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9)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10)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야영지는 어디였는가?
- 11)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12) 여러분은 전 과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것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 13)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 14) 어떤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터전을 잡았는가?
- 15) 그 지파들이 정착하기 전 먼저 처리한 일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열매들 2)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 3)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산다.
- 4)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5)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 6) 갈렙, 여호수아 7) 열 명의 스파이의 충고
- 8)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9) 40여년 10) 모압 평야
- 11) 여호수아 12) 좋은 충고를 한 스파이, 또는 군대 사령관
- 1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14) 르우벤, 가드, 므나세 반쪽 지파
- 15) 다른 지파가 정복하는 것을 먼저 도왔다. 16) 거둬냄의 시작

# 13

## 아이성의 포획

### 머리말

먼저 2-6장을 읽고 간략히 재고한 후 본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실이다.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이 우월하여 획득된 승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다. 예리고성을 점령하되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필두로 본과를 시작해 본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7장, 8장

7장: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중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2.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 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 가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 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리하여 군대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5.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삼십 육 명이나 죽었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6.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7.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까. 8.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룰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10. 야훼께서 야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흠쳐다가 자기 행낭에 숨겨 두었다. 12.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15.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17.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18.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중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21.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 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23.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야훼 앞에 놓았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 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26.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렬한 분노가 걷혔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8장: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2.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3.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 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쨍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5.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6.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 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피어내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8.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10.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11.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 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12. 그는 오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13.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14.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체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16.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17.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을 비워 두고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팔을 내뺐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 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체하던 부대가 돌아 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21.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22.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짓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23.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 왔고 24.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25. 그 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해서 모두 만 이천이나 되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뺐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27. 그 성에 있던 가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 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곳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29.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30.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31.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야훼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 둔 모세의 법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없이 모두가 야훼의 계약케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케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짐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34.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35.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 마디도 빠지 않고 낭독하였다.

### 교리 요약

\* 주님은 이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 순위에 놓지 않도록 경고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 우리는 진리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우리 속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한다.

## 해설

여호수아는 주님께 순종했다. 그의 순종심은 요르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즉각 테스트되었다. 그 때의 강은 홍수기였으나 백성들은 수면이 얇은 곳으로 건너기 위해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다. 그들은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곧장 갔다. 첫 사제들의 발이 강물에 적셔지는 순간 홍해바다가 갈라졌듯이 요르단강도 갈라져서 백성들은 마른땅을 밟고 지나갔다. 모든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강 한 북편에 서 있었다. 각 지파에서 뽑은 열 두 사람이 각기 둘 한 개씩을 강 한 북편에서 구해 강 건너 저쪽에 그들이 강을 건넌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과월절 축제를 가졌고 만나의 공급은 중지되었다. 길갈이란 이름은 “굴림, 벗김”이란 뜻이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리고성의 정복이 있게 된다. 예리고성의 정복은 주님에 대한 단순하며 곧바른 순종심을 가졌을 때 그분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싸우지도 않고 그것이 가능했음을 말해준다. 거룩한 땅에 있는 성벽이란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심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지성 안에서 자란 거짓 사상들을 뜻한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거짓 사상들은 주님의 진리로 무너뜨려질 수 있다.

예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은 주님이 분부한 명령의 일부를 거역했다. 여호수아서 6장 18-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 성의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분부되어 있다. 금, 은, 동 그리고 철제품 외의 모든 것은 멸하도록 되어 있었다. 금, 은, 동 그리고 철제품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헌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느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자신 내의 어떤 결점을 쉽게 파악하고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 용서하고 눈감아주는 결점도 있는데, 이러한 결점은 자신이 즐기는 것으로 때로는

사랑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결점은 감추면서 까지도 그것을 보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가 그리는 의미이다.

함락된 예리고성은 요르단 강 근처에 있었다. 요르단 강을 건너자마자 예리고성을 대면하고 함락하는 이야기는 자아성찰과 자아반성이 있게 되면 우리안의 악들이 드러나게 되며 주님께서 그것들을 즉시 제거하도록 명하심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에 있는 두 번째 성 「아이」의 위치는 예리고성과 다르다. 그 성은 베델 근처 언덕 위에 있다. 여러분은 과거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여행했을 때 가나안 땅의 중앙인 세겜에 단을 쌓고 계속해서 더 가서 베델 근처, 즉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다른 단을 쌓은 기사를 기억할 것이다. 또한 베델은 야곱이 천국을 잇는 사다리를 꿈에서 본 곳이기도 하다. 베델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베델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아이성은 베델과 나란히 위치하는데, 그곳은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본문의 아이성은 적이 거주하는 성이다. 따라서 아이 성은 베델로 가도록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이기적인 데에만 이용하려고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보냈던 스파이들은 그 성이 그리 튼튼하지 않으므로 진 군대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작은 군대는 즉각 참패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초기에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알파하고 부화뇌동하는지를 묘사한다. 이이성을 앞두고 공격했다가 패한 이야기는 예리고성의 함락이후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성을 함락시킨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까마득히 잊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예리고성을 점령한 듯이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수의 군대만으로도 예리고성 보다 작고 약한 아이성 정도는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내적인 의미에서 아이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있게 되는 큰 시험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됨을 묘사한다. 이러한 우리의 착각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는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이 필요하지 않다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아는 듯 여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시험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적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낚시 밥을 덩석 물어버리는 고기처럼 시험의 함정에 빠져 버리게 된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 뼈아픈 패배일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호수아가 실망했듯이 패배에 자칫 실망하기 쉽다. 그러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패배의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으며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그르친 즉시 자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자기 검증의 진정한 과정은 제비뽑기로 범 죄자 아간을 색출하는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보여 진다. 제비로 어떤 것을 결정함이란 주님의 진리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 속의 진리에 의거하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그 과정의 첫째로는 일반적 원리들을 테두리로 놓고, 둘째로는 우리가 느꼈고 생각해 왔던 세부적인 잘못된 것들로 범위를 좁히며 구체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잘못을 뽑아내는 것이다. 아간이 천막 밑에 파묻어 둔 금지된 물건이란 우리의 아주 비밀스런 악들이 우리 삶의 중앙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속의 악들, 즉 결점들이 제거될 때 우리는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진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공격 때마다 전력을 쏟아야 하며 여호수아처럼 슬기로워져서 우리의 전력(군인)의 열마를 떼어서 베델 쪽에 배치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영적인 지식에서 오며 그것을 응용하는데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아이성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성의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성의 물건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져야 한다거나 전부 멸해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차지했다. 그 이유는 아이성의 물건들이 우리의 자연적 지식들을 뜻하며 그것들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기적인 용도로 지식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멈추었던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법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낭독되는 대목은 우리가 어떤 승리를 했다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법임을 언제나 회상해야 함 그리고 겸손과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거듭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준다.

## 기본 상응 공부

성벽 있는 성 = 거짓이나 진리로 확립된 상태

베델 = 천적인 지식들

아이 = 자연적인 지식들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 성을 정복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가?
- 3) 이스라엘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 받았는가?
- 4) 그들이 공격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성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 6) 공격해 들어간 군대가 도망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그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9) 범죄자는 누구였는가?
- 10) 그는 무엇을 착복했는가?
- 11) 어떤 벌이 그에게 내려졌는가?
- 12)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얼마의 군대를 사용했는가?
- 13) 그는 군대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 14) 아이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15)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 16) 아간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예리고 2)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3)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
- 4) 아이 5) 작은 군대를 파견했다. 6)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하느님께 실패한 탓을 돌렸다.
- 7)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8) 제비뽑기 9) 아간 10) 외투, 금, 은 11) 돌로 치고 불을 질렀다. 12) 전 군대를 동원했다. 13) 일부 군대를 매복시킴 14)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15) 제단을 쌓고 법을 새기고 읽었다. 16) 자신의 과오 중 어떤 것은 괜찮다는 느낌

## 14

### 판관 기드온

#### 머리말

우선 판관 시대의 요지인 판관기 17장 6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으로부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과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열조시대(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판관시대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왕 시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판관들이란 지방적이며 일시적인 지도자들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6, 7장

6장: 1.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아훼께서는 그들을 칠 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2.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 와

4.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 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았다. 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떼처럼 몰려 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들어 와 온 땅을 망쳐 버렸다. 6.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야훼께 부르짖자, 8.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9.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야훼요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나쎄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17.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다녀 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돌아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19.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20.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21.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 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23.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4.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25.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일곱 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네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은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28.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진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다.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 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3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닦달하였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 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 냈는데 어찌 그냥 뒀겠소?” 31. 요아스는 둘러 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오?” 32. 그 날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3.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강을 건너 이즈르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34.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빨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일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다. 35.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나쎄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나쎄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즈불룬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 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려는 줄로 알겠습니다.” 38.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 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39. 기드온은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4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롯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편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스할 테니 말이다. 3.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 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할 수 없다.” 5.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쪽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워라.” 6.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7.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8.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빨나팔을 거두어 들고는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9.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로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네 손에 붙였다. 10.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11. 그리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접근해 가보니,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14.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15.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 와 일렀다. “일어나거라.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빨나팔 하나와 햇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17.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 기드온이 자기 부대 일백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21.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광질광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 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벳시타에 이르렀고 더러는 타뻏 건너편 아벨므홀라 냇가에 이르렀다. 23.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나쎄 지파에서 불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24.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 전갈을 보냈다. “내려 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무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몰려 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무들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렘과 즈엡을 사로잡았다.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오렘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 전해졌다.

### 교리 요점

- \* 스웨덴북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상태는 사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상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 \* 겸손과 용기는 악과 싸우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땅은 제비 뽑아져 각 지파에게 할당되었다. 또한 그곳의 중심이 되는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다. 실로란 “평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강력한 권고에 순종하지 않았다. 권고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 23장 4-13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 구역 내의 모든 적은

만드시 소탕되어야 하며 그들과 어떤 교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이 숭배하는 신인 바알이나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하도록 유인되어져 갔다. 주님은 이에 대한 우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때 이미 경고해 두셨다. (신명기 6:10-12).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동안 지도자가 없었다. 이 시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판관기 17장 6절의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이다. 우리가 올바름에 대한 지식을 자신에게서 찾으려한다면, 우리는 주님 위에 올라가 앉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그들의 적들이 강세해져 그들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면, 그분은 언제든지 판관을 들어 세워서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소탕하도록 해주셨다. 판관들 중 사무엘만이 전 국토의 백성이 인정하는 권위를 가졌다. 판관이란 특수한 환경에 따른 시험을 이기는데 필요한 특수한 진리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심을 뜻한다.

본문에서의 특수한 적이란 미디안족이다. 사실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출애굽기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친구였고 40년간 모세를 보호해 주며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미디안족의 켄 가문은 이스라엘과 합류해서 거룩한 땅에 정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켄 가문 외의 미디안족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 미디안이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주님께 관한 일련의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들이며 우리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때로 적이 될 수도 있다. 예수의 탄생을 예로 들어보자.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은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는 좋은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단순하게 답할 것이다. 하지만 신앙이 깊은 장년층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되 그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은 구세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깊이 심오한 이해를 말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미디안 족으로 상징된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미디안 족으로 상징되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신앙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고 근본적인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외적이며 피상적인 것들만을 계속 생각하고 고집한다면, 이는 마치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의 들판을 휘젓는 상황과 같아서 정작 성탄절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거두어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주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간주하거나 신성이 어떻게 무기력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질 수 있을까하고 의심하게 되면 어린 시절의 좋고 거룩한 생각들까지도 거짓 사고로 뒤바뀌진다.

기드온은 그를 부르러 온 천사에게 그의 집안은 므나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는 그들 중 가장 어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난폭한 적들에 대항하여 그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부름 받았음을 확증 했을 때, 즉시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다. 겸손과 용기라는 두 자질은 여호수아가 부름 받을 때와 같은 것으로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 이유는 악을 무찌르는 유일한 힘은 주님의 권능이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드온의 첫 번째 과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 즉 마을에 세워진 바알 신의 제단을 엮어 버리는 일이었다. 이 과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인 악을 제거하는데 앞장 설수 있는 의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함을 묘사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비웃는 일을 의롭기 때문에 해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기드온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준다. 처음에 그의 이웃들은 그들이 세운 제단을 내동댕이친 일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용감함은 그들로 하여금 후에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 전투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는 양심적인 용기가 결과적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기드온의 군대를 축소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이 오로지 주님에게서 비롯됨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즉, 우리가 시험에 닥쳐 싸울 태세를 갖추는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싸움에 대한 두려움, 자기 방종 혹은 주저하는 경향을 없애 버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이나 기드온의 군대를 축소한 의미이다. 우리는 시험에 부딪칠 때 우리의 힘이나 논쟁이 아닌 횡발, 즉 말씀 속의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맞서야 한다. 나팔을 불어대는 것이란 계명에 순종함이 더불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삼 백 명의 군사를 세 팀으로 구성해서 공격함이란 우리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행동이 함께 시험을 공격해야 함을 의미한다. 낮은 계곡에 진을 친 적이란 자신의 길을 고집하려고 하는 우리 속의 거짓 추론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자기 합리화하는 거짓 추론은 아주 쉬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거짓 추론들은 우리가 말씀에서 얻은 진리로 비출 때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말씀 속의 진리를 되새기며 계명에 순종해 갈 때 파괴되어 진다. 본문의 이후를 보면 기드온이 요르단 강을 넘어서까지 적을 추격해 소탕했으며 그들의 왕까지 잡아 죽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묘사하는 바는 비록 시험을 승리로 이끈 후라 할지라도 과거의 악과 연결되어 있는 잘못된 감정과 생각이 심정과 지성 속에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판관들 = 특수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특수한 진리들

### 질문 정리

- 1) 본문은 성경의 무슨 책인가?
- 2) 판관이란 누구인가?
- 3) 지도자적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판관시대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5)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6)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 7)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기드온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에게 어떤 확증을 요구했는가?
- 10) 그는 어떤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했는가?
- 11) 주님은 왜 군대의 수를 축소하셨는가?

- 12) 처음 돌려보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 13)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었는가?
- 14) 결국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 15) 그들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졌는가?
- 16) 공격 작전은 어떠했는가?
- 17)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 질문의 답

- 1) 판관기(사사기) 2) 판관은 일시적이며 지방적인 지도자들 3) 전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다. 4)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 5) 기드온 6) 므나쎄 7) 미디안, 아말렉 8) 스스로 겸손했다 9) 양털뭉치와 이슬 10) 아셀, 즈불룬, 납달리, 므나쎄 11) 하느님이 승리를 안겨 주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12) 두려움이 있었다. 13) 물을 마시는 태도로 14) 삼백 명 15) 횃불, 단지, 나팔 16) 적을 포진하고, 단지를 깨고 고향을 지름 17) 혼란에 빠지게 해서 승리함

## 15

###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 머리말

본과를 통해 주님에 대한 정규적인 예배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며 인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를 보면, 예배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충족 그리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 타락해 감을 볼 수 있다.

### 성서본문: 사무엘상 3장

3장: 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2.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3.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5.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 와 자리에 누웠는데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7.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8.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12.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13.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16. 그러는데 엘리가 “애, 사무엘아!”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하고 대답하자. 17.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 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 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 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하고 다그쳤다. 18.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21.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둬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 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 교리 요점

- \* “아껴두심 혹은 나머지”에 관한 교리: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주님께서 우리 속에 놓으신 일들을 말한다.
- \* 말씀의 글자를 담고 있는 기억적인 지식은 우리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 \* 룯기서는 내적인 뜻은 없다.

### 해설

판관기에는 켈와 성막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대신 제멋대로 할 때에 있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과 더불어 성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막이 실로에 아직 있었다는 것,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계속 봉직하고 있다는 것, 성막의 각종 예식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막에 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수 백 년 후 주님이 육을 입으신 때의 유대인의 상황을 연상케 해준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한다. 사무엘상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제 11절은 판관 삼손을 연상케 한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의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의 소원

중 이 부분은 사무엘도 삼손처럼 하느님께 봉사하도록 따로 떼어둔 나지르인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민수기 6장 21절을 보면, 나지르인의 맹세를 한 사람들에게 대한 규율을 알 수가 있다. 삼손의 힘은 계명에 순종함으로 오는 능력을 말한다. 머리털은 신체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 속하며, 말씀의 가장 바깥 부분은 글자다. 판관 또는 예언자로서의 삼손은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사무엘의 힘 역시 순종함에 근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힘을 사용한 곳은 성막 안이었으므로, 그의 힘은 신체적 혹은 물질적이기보다는 영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되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그가 선교적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꺼이 순종했다. 들음이란 언제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의 첫 제사장은 아론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직은 그의 후손 중에서 잇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아론의 계보는 엘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엘리는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의 직무를 계승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들은 악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 가져온 제물을 강탈했고, 그들의 행위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엘리는 아들들의 비행을 질책하며 그들을 깨우치려는 노력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의 악행을 뜯어 고칠 정도로 강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에 빠지는 일이 잦아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무력해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 수 있다.

제사장이 늙고 무력해지고 그의 아들들이 부패하여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한 아이에게 들려 왔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구절을 자주 읽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를 고집하여 잘못되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님에 대한 단순한 순종과 신뢰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기 전 그분은 그를 세 번 부르셨다. 세 번 부르심이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측면, 즉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정리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뜻한다.

본문 1절과 마지막 3절을 읽어 보자. 사무엘의 단순한 순종심은 주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이어주게 된다. 그는 모든 백성이 공인하는 지도자로 유일한 판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를 예언자로 선택했음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일생은 국가 형성을 위한 통일과 발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

### 기본 상응 공부

듣는 것 = 순종하는 것  
머리털 = 가장 바깥쪽의 삶

### 질문 정리

- 1) 마지막 판관은 누구인가?
- 2)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대 사제는 누구였는가?
- 3) 사무엘은 왜 성막으로 데려와졌는가?
- 4)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엘리는 왜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못했는가?
- 7)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 9)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전 주님은 몇 번 그를 부르셨는가?
- 10) 주님은 엘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는가?
- 11) 본문 이 후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사무엘을 세 번씩 부르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리 3) 어머니가 주님에게 서약했기 때문
- 4) 엘리를 섬겼다 5) 주님께 드릴 예물을 착복했기 때문

- 6) 너무나 나약했다 7)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다.
- 8)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9) 세 번
- 10)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잃게 될 것이다. 11) 예언자
- 12) 주님은 세 평면, 즉 생활면과 지적면 그리고 의지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 16

### 사울의 성급함

#### 머리말

사무엘의 인격과 직무는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사무엘과 사울의 직책의 차이점과 사무엘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 사울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기간까지 실제로 존재 했었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그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요소인 선택의 자유에 근원하고 있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3장

13장: 1...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므깃도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4.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5. 블레셋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므깃도에 올라 가 거기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7.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칠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10.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가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1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다가 블레셋군은 므깃도에 집결해 있어 12.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블레셋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1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 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 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육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므깃도에 진을 친 블레셋군과 대진하였다. 17. 블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

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18.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19.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불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불리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1.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22.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23. 불레셋군의 전초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 교리 요점

\*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발전을 위한 기본자세이다.

### 해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지도자로 공인한 유일한 관관이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것은 사무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할 꼭 한 가지 진리를 표현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을 절대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를 따르며 순종함을 만족스러워 했던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적들이 아주 강해 보이자 그들을 구원할 주님의 힘이 적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며 그분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처럼 왕을 원했다. 왕이란 그들을 이끌고 군대를 편성해서 전투해줄 왕을 뜻한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그가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셨고, 그들의 첫 왕은 사울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왕을 뽑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아주 만족했는데, 이는 사울이 키가 컸고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해 주님께서 항상 미리 준비해 두시는데 우리가 보고 납득할 만큼씩만 준비하신다는 것이다.

사울은 건장하며 용감했지만 현명하지는 못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에게 주님을 충실히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울은 안내자로서 사무엘이 필요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울은 백성들을 심각한 고난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통치가 거의 끝나는 무렵까지 주님의 예언자와 판관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란 각자의 삶을 주도하는 우리 속의 원리를 말한다. 제왕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도하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의 진리가 있어야 함을 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마태복음 5:39)”라는 구절을 읽을 때 주님이 글자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신다고 먼저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은 믿음의 초기에 있게 되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악은 기어이 무찔러져야만 한다는 것과 악에게는 양갓음해야 한다는 대목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진실로 주시려는 명령을 판명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꽤 열심히 찾는다면, “양갓음”의 단어가 실제 그리스어로는 자체 내에 반대되는 뭔가를 놓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양갓음하지 말라고 산상설교의 구절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가해진 나쁜 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보내는 식, 즉 “pay back”해서는 안 됨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주님의 진리 역시 성급하고 피상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말씀을 글자대로라도 읽고 배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울이란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는 진리를 뜻한다. 사울은 첫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자기 과신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번제를 드렸다. 본문 11-12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했던 변명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왕으로 뽑혔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는 바깥 상황으로만 판단하여 자신의 모든 행동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려고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블레셋이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살았으며 거룩한 땅 지역 내에서 가장 강하고 번영하는 민족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성가시게 했다.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는 본문 19-22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농사용 도구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발달시키는데 사용되는 진리들을 말한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서 선과 진리가 발달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무기란 우리의 약함과 나쁜 습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리들을 뜻한다. 나쁜 습관이나 약함은 우리 모두가 가진 영적 적들이다. 블레셋은 우리가 가진 영적 적들 중 가장 위험한 적이다. 블레셋이란 행함 없이도 옳은 것을 안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우리 속의 경향성을 말한다. 사울의 군대는 숫자적으로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적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무기마저 없었다. 사울은 자신의 군대 자체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투에 나서기 전 반드시 주님께 먼저 번제를 올려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그와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 항상 순종해야 함을 단호하게 경고한 사무엘의 말(12장 20-25절)을 잊도록 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 위에 우리 자신의 판단을 결코 올려놓아서는 안 됨을 가르쳐 준다.

### 기본 상응 공부

블레셋 = 의를 행함 없이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시험  
사울 = 말씀의 글자만으로 이해해서 얻은 진리

### 질문 정리

- 1)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 2)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 3)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 4) 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 5) 사울이 처음 정복한 적은 어떤 적입니까?
- 6) 그 다음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 7) 이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 8) 무엇이 블레셋을 성나게 만들었습니까?
- 9)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 10)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 11)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12) 사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13) 그는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 14)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15)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6) 특별히 사울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질문의 답

- 1) 전쟁을 이끌 지도자 때문에 2) 사울 3) 제비를 던져서 4) 키가 크고 강건했기 때문에 5) 암몬족 6) 블레셋족 7) 블레셋의 군사가 더 막강했다 8) 요나단의 공격 9)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 직업을 허용치 않음으로 10) 길갈 11) 칠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라 12) 자기 스스로 제물을 바쳤다 13)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므로...”
-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15)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
- 16) 진리를 자연적인 수준에서 이해함

# 17

## 다윗과 골리앗

### 머리말

말씀은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개의 과에서만 각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왕의 통치에 따라 있게 된 사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세 왕들은 성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다뤄지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 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사울)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되기 마련이다. 사울의 실패는 성급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판단이 주님의 것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겨버리는 데서 근원한다. 다윗은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면을 보는 것, 즉 동기를 살피며 자신의 필연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을 자기의 인도자

로 삼아 그분께 절실히 도움을 간구하는 면을 지닌다. 솔로몬도 다윗과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리는 우리의 심정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한 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와 무게를 달리한다. 세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하고 각 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7장

17장: 1. 불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뎀에 진을 쳤다. 2.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불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3. 불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불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 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 6.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받이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 그 창대는 베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육백 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면을 앞에 세우고 8.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말이나? 너희 사울의 즐거어들아, 이 불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 보내라. 9.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그리고 나서 그 불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11.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불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2.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팔 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13.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세째 삼마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헬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6.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볍은 밀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18. 이 치즈 열 개는 그 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19.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군과 싸우고 있었다. 20.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 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올리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22.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 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23.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 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25.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땀해 주는 말을 듣고, 26.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준 다구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27.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리이러하게 해 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 주었다.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은 “그저 물어 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하고는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 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서 불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달린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35. 소인은 한사코 되쫓아 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 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불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욱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7. 계속해서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 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41. 불레셋 장수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 왔다. 42. 불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보고 불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43.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리고 불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올려메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나 다윗은 불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욱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아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47.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불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 다가 49.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불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51. 다윗은 달려가서 그 불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불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불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이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불레셋군의 시체가 덩굴게 되었다. 53.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 와서 불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54. 다윗은 그 불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다. 55. 사울은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와 대결하려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이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요?”하고 물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56.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오”하고 일렀다. 57.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불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58.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헬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 교리 요약

- \* 진정한 추론은 반드시 영적 원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 우리의 자만심은 영적 인생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이다.

###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관시대에서 왕들의 시대로 변화를 겪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의미하는 바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매달려서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삶을 통치해 줄 원리를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서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하는 때이다. 제왕들 중 첫 왕인 사울은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로서, 주님의 진리를 사용하려는 우리의 첫 노력을 그린다. 이에 대한 우리의 첫 사상은 자연적이고 표면적 수준에 불과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마는 결점을 수반한다. 어떤 사건, 사물의 외관, 외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 외적인 결과들을 종합해서 만사를 관조하려 드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인 듯 여겨진다. 그러나 상식만으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내 확인된다. 그 이유는 상식이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나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영적 발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상식은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서로 큰 차이를 둔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권이 실패한 원인이며, 그의 통치가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을 맺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면에서 왕으로서의 사울과 같다. 그러나 다윗 왕은 더 깊고 높은 수준, 즉 영적 수준에서 이해된 진리를 뜻한다.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이 불완전할 때, 우리는 자신을 이끌어줄 더 깊게 이해함을 찾게 된다. 더 깊은 이해력을 갖는 인격은 다윗을 통해 그러지며, 목자라는 그의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함은 마음 밖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서도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순진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려면 순진성과 신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 역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계보인 고로 출생지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불린 것을 상기해야 한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16장 13절)”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그분의 권능은 사울로부터 떠났다. 이 구절에 담긴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야겠다고 느낄 때는 여태껏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상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떠난 뒤에도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군림했다. 즉, 한 때 영적 원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습관이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14-23절을 보면, 다윗이 하프를 쳐서 사울의 숨을 돌리도록 도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다」에서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소구를 켜던 것을 보았다. 스웨덴북은 말씀에서 언급되는 악기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 방식들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관악기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이고, 현악기란 진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를 의미한다.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으로도 불렸다. 다윗의 음악은 사랑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문 3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사울의 무기로 무장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윗이 싸움을 위해서 사울의 무기들을 “입어 본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무기들이란 과거에 아주 영특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추론들을 말한다. 37절의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야훼께서...”라는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신 대신 주님께 의존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개울가에서 골라서 목동 주머니에 담은 자갈 다섯 개와 돌팔매 끈이었다. 다윗이 지닌 무기인 자갈돌 다섯 개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활로 입증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골리앗이 태고교회 거인들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골리앗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기에 혹은 자만심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성향이 우리 속에 깊게 자리 한 것을 뜻한다. 또한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여 자신 속의 악을 인정하거나 극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진리를 인식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42절의 ‘우습게 보는’ 골리앗의 태도는 “타고난 인간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의 푸념과 대동소이하다.

다윗의 첫 돌팔매는 거인의 이마를 맞혔고 거인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은 마태복음 4장이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되었을 때 그분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다. 주님은 매 시험 때마다 성경에서 정확한 구절을 꺼내셔서 시험을 유도한 지배적인 사상을 곧바로 치셨다. 주님이 대답한 말씀의 같은 점은 “...라고 씌어 있나니, ...하지 말라.”이다. 이것은 시험을 대적하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해오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을 극복한 후 자신의 이기심을 방어하느라 발버둥 친 논쟁들이 꾸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다. 골리앗의 목이 잘리자 이스라엘 군대도 불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정복할 수 있었다. 우리 속의 자아만족이라는 악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길은 영적 승리로 열리게 된다. 자아 찬양은 매사에 있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기본 상응 공부

다윗 = 영적 추론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골리앗 = 우리 속에 깊게 자리 한 자만으로 기울려는 경향성

### 질문 정리

- 1) 다윗은 어디에 살았는가?
- 2)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3) 사울의 군대와 불레셋 군대는 어디에서 대치했는가?
- 4) 불레셋 장수는 누구인가?
- 5) 골리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6)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
- 7) 다윗은 왜 군인이 집결한 싸움터에 오게 되었는가?
- 8)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 9)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10) 왜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11)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12)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지게 했는가?
- 13)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14)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베들레헴 2) 목자 3) 엘라 골짜기(느티나무 골짜기) 4) 골리앗 5) 키가 9피트였고 무거운 무장을 했다 6) 불레셋 장수와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 보내라 7) 전투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8)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9) 하느님을 신뢰했다 10) 그의 무장을 입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11) 돌팔매 끈, 다섯 개의 자갈 12) 돌팔매질을 하여 쓰러트렸다 13) 골리앗의 칼 14)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함

## 18

### 솔로몬의 영화

#### 머리말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9장, 10장

9장: 1.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2. 야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4.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 준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5.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리라.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6.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8.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9.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흘러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10.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11.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왕에게 떼어 주었다. 12.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13.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14. 히람은 금 백 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왕에게 보냈다. 15. 솔로몬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하술, 므기또, 게젤을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성을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젤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벳호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18.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말을 다시 세웠다. 19.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마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20.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24.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 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25.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일 년에 세 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6. 솔로몬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27.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28.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실어 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10장: 1.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2.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3.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4.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5.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않으며 6.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시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7.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8.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9.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0. 여왕은 금 백 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두 번 다시 받아 보지 못하였다.

11.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12.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13.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4. 일 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육백 육십 육 달란트나 되었다. 15.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16.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7.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삼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18.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19. 그 옥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21. 솔로몬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2. 또 왕은 다르셋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셋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23.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24.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

25.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7.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28.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29.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에 은 백 오십 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 교리 요점

\*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선하게 될 수 없으며, 시험은 진리로서만 정복될 수 있다.

### 해설

다윗은 사십 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시대는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이었다. 숫자 40이란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기 전 우리 속의 많은 이기적인 느낌과 거짓된 사상들을 극복하는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를 의미하며 그에게는 싸워야 할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모든 적들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위대했지만 그의 위대함은 다윗의 승리라는 반석 위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무지함에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듯이 시험을 이기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이타적인 사고방식으로 단번에 건너뛸 수 없다.

솔로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다. 그는 다윗이 죽기 직전 다윗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어졌다.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 주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제의하셨다.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소원했고, 주님은 그의 소원 내용에 크게 기뻐하셨다. 주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부귀나 권력을 원치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예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그에게 주셨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지혜를 가지며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심정을 의미한다. 만일 누군가가 이와 같은 심정을 갖는다면,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시샘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님과 이웃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하며 도움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그는 환경을 관여치 않으며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 나간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찾는다.

솔로몬은 아주 큰 건축 공사를 실시했다. 솔로몬은 먼저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가 살 집과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그의 아내가 살 궁전도 건축했다. 또한 그는 초기에 적들로부터 파괴된 성읍들도 재건했다. 순수하게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인격 안에 주님의 성전을 세운다. 그 다음 그들은 타인의 행복한 삶을 짓는 것을 돕는다. 이런 가운데 그들 역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는 솔로몬이 아름다운 삼목 재료를 사용한 것과 띠로의 히람왕이 숙련공을 보내서 도와준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지식과 원리들을 갖고 있는데, 이는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가졌다는 기록의 의미이다. 마음과 육체가 가진 모든 능력은 자신이 뜻하고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된다. 이는 솔로몬이 그의 제사장, 신하 그리고 술 따르는 자를 가졌다는 말씀에 해당된다. 솔로몬의 심판은 높고 굳건한 보좌위에 기틀을 잡고 있었고, 그에게는 보좌를 유지시킬 권력도 있었다. 이것은 솔로몬의 보좌로, 유지시킬 권력은 보좌의 양쪽에 있는 사자로 그리고 굳건한 기틀은 여섯 단계로 그려지고 있다. 솔로몬의 해군(상선대)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해군이었고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다. 상선대란 타인들로부터 용역과 사상을 포획하는 우리의 능력을 말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에 관한 세부사항 중 금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금은 사랑에 상응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대목은 우리에게 친숙한데, 이는 솔로몬이 쌓은 명예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세바의 여왕은 상당히 먼 나라에서 왔고 솔로몬에게 진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이는 주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온 것과 유사하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영화와 지혜에 관해서 아주 먼 땅에서까지도 들었다. 그 여왕은 솔로몬과 대화할 때 자신이 들은 솔로몬에 관한 것은 반 밖에 안 된다고 실토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뭔가를 더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세상의 지식과 부귀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호세아가 예언했듯이(호세아 6:3)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귀를 찾게 되며 소유하게도 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솔로몬 =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에 기초하여 진리를 이해함

40 = 시험

### 질문 정리

- 1) 다윗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2) 다윗 후의 왕은 누구인가?
- 3)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4)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 5) 주님은 그가 간청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는가?
- 6) 솔로몬은 다윗에게 금해진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
- 7) 그밖에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8) 누가 솔로몬에게 송백나무와 숙련공을 공급해 주었는가?
- 9)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10) 솔로몬의 첫 아내는 누구인가?

- 11)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창설했는가?
- 12) 어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왜 그녀는 그를 방문했는가?
- 13) 그녀는 솔로몬과 대담한 후 어떤 말을 했는가?
- 14) 솔로몬의 옥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40년 2) 솔로몬 3) 평화 4) 지혜 5) 부와 영예 6) 성전 건축
- 7)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성 8) 히람 9) 20개의 성읍 10) 파라오의 딸
- 11) 상선(商船)단 12) 세마,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13) 들은 것보다 더 슬기롭다
- 14) 여섯 계단, 열 두 사자, 금을 입힌 상아

## 19

### 호렘 산에서의 엘리야

#### 머리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와 이스라엘 왕국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9장

19장: 1.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낄낄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2.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3.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7.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다. 9.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 왔다. 13.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겹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

라. 다마스쿠스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리라.” 19.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열 두 쌍에 거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켤 거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겂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 보게. 내가 어찌 작별인사를 금하겠는가?” 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 간다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 해설

솔로몬의 영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자가 달성한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솔로몬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통치는 영화뿐 아니라 전환점이 되어 기나긴 내리막길이 뒤따르고 있었다. 내리막길의 씨는 솔로몬 자신에 의해 뿌려졌다. 제 9장 1-9절에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 신실해야 한다고 경고된다. 제 11장 1-8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돌변 했는가와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어떻게 끌어 들였는지 말해

준다. 솔로몬이 죽은 뒤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 왕국에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다. 유다라 불리는 남쪽 왕국은 그런 대로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했다. 여러분은 다윗이 전 국토의 왕으로 군림하기 전 칠년 동안 남쪽 영토를 다스렸던 사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할 것이다.

왕국이 분열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되어 존재하는데, 유다는 우리의 심정 또는 의지를 표현하며 이스라엘은 우리의 지성 또는 이해성을 표현한다. 이는 남쪽이 북쪽보다 따뜻하다는 자연의 이치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쉽게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냉혹한 이성의 소유자야”라는 표현을 통해 따뜻함 또는 차가움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가운데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나 선한 삶을 이뤄낼 지혜가 부족한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에도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이루려는 의지가 없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로 일치하지 못한 채 일이 진행된다. 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었고, 백성들이 주님께 계속 예배하도록 인도했던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에 반기를 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백성들이 예전 왕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금송아지를 단과 베텔에 세웠다. 왕이란 중심 되는 원리, 즉 각자 자신들을 이끄는 원리를 표현한다. 여로보암은 인간의 이성이 옳은 것을 결정하나 그것이 주님께에서 온 계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그를 추종했다. 이스라엘 왕국은 주님께에서 옳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짓 원리를 표현한다.

아합은 가장 강하고 성공적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악독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의 아내가 바알 숭배자여서 이스라엘 영토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 사실 그 땅에 남아있던 소수의 적들도 바알을 예배했었다. 여러분은 기드온이 주님을 위해서 첫 째로 바알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헐어버렸음을 기억할 것이다. 바알숭배란 자아숭배이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만을 부추키는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이세벨은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그려준다. 그녀는 바알 예언자들의 후원자였다.

아합 통치 시대 때 구약성서의 제일 큰 예언자인 엘리야가 등장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를 가장 큰 예언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그가 모든 예언자들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언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말라기 4:5), 주님 자신도 이를 세례자 요한이 성취시켰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7:10-13). 이는 엘리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엘리야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는 율법과 예언서가 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합의 시대에 큰 예언자가 등장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경고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언제나 우리 속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제 18장은 엘리야가 아합과 백성들에게 바알은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으며 주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이란 것을 입증하면서 바알 예언자 450명을 키손 시냇가에서 살해하는 이야기이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주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세벨은 바알 예언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즉, 우리의 자연적인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찾아 뭉개버리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말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자신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피신했다. 즉,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그로 인한 결과가 보잘 것 없을 때 “내가 해 놓은 것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과 같다.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의 여행과 되돌아오는 이야기는 주님의 일을 하다 실망한 우리의 상태를 다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그려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허용 하신다. 우리와 늘 동행하는 천사들은 우리의 잠잠해진 심정상태에서 우리 안에 선함과 진리들이 조금은 있음을 지적해 준다. 이는 본문에서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말해준다. 이와 같은 과자와 물이란 경험을 통해 배운 선함과 진리들을 뜻하며 우리에게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 주어진 법률, 즉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계명으로

되돌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그로 인해 주님에게로 인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 그것들은 단지 우리 속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 위에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조용해져, 우리는 작고 여린 음성일지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엘리야는 자신의 일을 맡을 후계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되돌아갔다.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힘이 났다. 그는 주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켰다. 그는 자신의 겹옷을 엘리사에게 걸쳐 주었다. 예언자의 외투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엘리사 역시 주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부름 받을 때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미 열 두 겨리를 갈았다. 황소는 유용한 삶을 갈망함을 뜻하고, 숫자 12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언자가 되기 위한 엘리사의 본바탕은 유용한 삶을 영위하려 전심전력 해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엘리야의 종으로서 자신의 준비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무척 기뻐했다.

### 기본 상응 공부

유다 = 심정 또는 의지부분

이스라엘 = 지성 또는 이해성부분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건립한 세 건축물은 무엇인가?
- 2)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솔로몬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 4) 분열된 두 왕국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리었는가?
- 5) 분열된 왕국은 각각 무엇을 그려주는가?

- 6) 이스라엘에 어떤 승배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 7)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 8) 그 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 9) 본문에서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10)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 11)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 13) 그 다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 14)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과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15)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6)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셨는가?
- 17) 이러한 징조 뒤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 18)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가?
- 19)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20)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 21) 주님이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성전과 두 궁전 2) 왕국이 갈라졌다 3) 우상승배, 무거운 세금
- 4) 이스라엘, 유다 5) 인간의 마음이 심정과 지성으로 구성된 모습
- 6)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숭배했다 7) 아합 8) 이세벨 9) 엘리야
- 10) 그가 바알 예언자들을 살해했다 11) 브엘세바
- 12) 천사들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 13) 호렙 14) 시나이산, 십계명 15) 주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 주셨다
- 16) 아니다 17) 조용하고 여린 소리 18) 주님께 신실한 자가 칠천 명이나 있다
- 19) 새 왕들을 기름 붓고 후계자를 세워라
- 20)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받을 갈고 있었다.

21) 시험 후 조용한 명상 시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그린다.

## 20

### 히즈키야 왕과 이사야

#### 머리말

본문을 통해 유다왕국의 특수한 성격을 알아본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떠올리면서 공부한다. 이스  
라엘 왕국의 모든 왕은 사악했다. 반면,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하는 히즈키야왕의 이야기  
로 그려진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0장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쓰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2.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3.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4.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즈키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 주리라. 삼 일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6. 내가 너의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 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즈키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삼 일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10.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2.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13.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14.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15.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16.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19.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물을 끌어 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즈키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나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 교리 요점

- \* 신약 성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이란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 그곳에 정착하여 산 외국인들의 후손이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포기하고 그릇된 사고로 점령되어 그릇된 사고가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그려준다.
- \* 우리의 지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포로가 되면 우리의 선한 의도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 \* 외향적인 선한 일 안에는 선행(charity)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해설

엘리사조차도 이스라엘 왕국의 악의 득세는 저지시킬 수 없었다. 아합왕의 뒤를 이은 열 두 왕들은 모두 악했다. 왕이란 우리 자신을 통치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지적 부분에 해당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거짓 원리로 통치되어 가는 상태를 말해준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영토,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란 세 나라들을 자주 접한다. 거룩한 땅은 천적인 인격과 인간의 종교생활 면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땅의 유다왕국

은 심적 측면에서의 종교생활을 뜻하고, 이스라엘은 지성적인 측면에서의 종교생활을 의미한다. 이집트는 우리의 기억적인 지식을 표현하고, 아시리아는 마음의 합리적인 평면을 뜻한다. 아시리아로 의미되는 합리적인 평면이란 우리가 기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려깊이 헤아린 후 주님 혹은 자아 중 어느 한쪽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속의 세 나라들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협력하며 일해야 한다. 이사야 19장 23절의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트여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 보리라”라는 기록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심정상태를 그린다. 이 후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의 세 번째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손수 만든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라고 기록된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두 적들 중의 하나로 군림하여 왔다. 아시리아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애썼다. 자연적인 지식만으로 추론하는 사람이 성경이나 종교에 관해서 논쟁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인간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인간이 만든 원리들로 마음을 발달시켜 나갈 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듯이 자신을 포로로 삼아 끌고 가는 거짓 추론이 된다.

이스라엘이 없어지자 유다는 북쪽의 방어벽을 잃게 되었다. 즉, 우리의 지성이 세상적인 사상에 굴복되면 우리의 선한 의도나 심정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왕국에는 주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선왕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서 히즈키야는 가장 선왕이었다. 그는 산당까지도 철거시켰다. 산당이란 자기만족 또는 자기 자랑을 표현한다. 구리뱀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이다 (민수기 21:4-9). 구리뱀이 우상으로 예배되는 것이란 감각(자연적인 것에 끌리는 마음)이 영적 삶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신앙과 이 신앙이 득세하는 상황을 그린다.

히즈키야는 불레셋족을 강하게 휘어잡았다. 앞서 우리는 불레셋족이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아는 체하는 시험을 뜻함을 배웠다. 불레셋족은 성경 이야기에서 꽤 많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이는 불레셋족이 항존하는 시험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애썼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정의 선한 의도가 주님과과의 접촉을 멀어지게 하는 추론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나 히즈키야와 아시리아는 머지않아 대립되도록 강요되었다. 제 18장에서는 히즈키야가 성전의 금과 은 그리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바른 금까지 거두어 아시리아왕에게 선물해 그의 환심을 사보려고 애썼음을 보여준다.

때로는 선한 사람, 특히 자신의 종교를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의 원리와 조금씩 타협하도록 강요당한다. 그 이유는 때로 그의 마음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 안의 선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타협이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여겨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타협이 성취해주는 것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속의 적인 악은 타협을 이용해 점점 더 커져 문제 혹은 타협이 판가름 날 때까지 증폭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느님 혹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이는 교회에 한두 번 나가지 않다가 결국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 히즈키야에게 충고하도록 했고 히즈키야는 그 충고에 기꺼이 순종했다. 이리하여 주님이 기적으로 유다왕국을 아시리아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제 19장에 기술된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이 거짓 추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음을 말해준다.

히즈키야는 심하게 병을 앓았다. 이는 선한 사람도 악에 대한 깊은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히즈키야왕의 종양이란 우리속의 깊은 곳에 자리한 악을 깨뜨려야 함을 뜻한다. 예언자는 히즈키야에게 그의 병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히즈키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벽이란 주님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보호를 뜻한다. 그의 겸허함은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무화과란 내적인 악들이 뿜어내는 독을 중화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 즉 우리의 바깥 생활에서 유용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말한다. 해시계관 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함이란 우리의 낮 시간을 길게 하는 것, 즉 우리의 선한 심정상태가 오래 지속됨을 말하며 이는 겸손할 때만 가능하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참고로 읽어 보자.

이 후 새로운 나라 바빌론이 본문에서 등장한다. 히즈키야는 바빌론이 적이 될

것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친구인 체 하며 사절단으로 내왕했기 때문이다. 바빌론이란 자아사랑에서 오는 지배욕을 표현한다. 이는 자신이 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이 꼭 실천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지성이 주님이 밝혀주신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잃을 때 자아욕은 우리의 심정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선악을 명백하게 구별해낼 수 없게 되고, 위험한 지배욕(바빌론)에 따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친구처럼 용납하기 쉽다.

유다 왕국 역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새로운 적은 점차 세력을 뻗어나가 유다왕국을 점령했고 중요인물들까지 포로로 끌고 갔다. 오직 그 땅의 가난한 자만이 그곳에 남겨졌다(열왕기하 25:12). 가난한 자란 스스로 우쭐거리지 않는 자, 즉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 산상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들 중 첫 번째 내용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마태복음 5:3).

### 기본 상응 공부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아시리아 = 합리적인 평면

###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2) 그 왕의 초기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누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었는가?
- 4) 누가 히즈키야왕 시대 때에 예언자였는가?
- 5) 히즈키야가 심히 아프자 이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히즈키야는 무엇을 했는가?
- 7) 이사야는 주님이 주신 어떤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가?
- 8) 히즈키야의 병명은 무엇인가?

- 9)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무엇으로 낮게 해주었는가?
- 10)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1) 어떤 나라에서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 12) 히즈키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 13) 그래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4)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15)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히즈키야
- 2)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3) 주님의 천사    4) 이사야
- 5)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6) 기도했다
- 7)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 8) 종기    9) 무화과로 만든 고약
- 10)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바빌론    12)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13) 어리석은 짓을 했다    14) 북쪽의 방어벽이 사라진 셈이다
- 15) 아시리아 -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생각들  
바빌론 - 자아사랑에서 오는 지배욕

## 21

### 시편에 관하여 (2)

#### 머리말

시편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주님께 의해 영감 된 노래이다.

### 성 서 본 문: 시편 19편

- 19편: 1.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2.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4.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은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7.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8.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11.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2.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13. 일부러 범죄 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14.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교리 요점

- \* 주님은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 \* 열왕기하와 시편 사이의 성경은 내적 의미가 없다.
- \*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되돌아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진리뿐이다.
- \* 여호와를 경외(두려워)함이란 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 우리는 심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행동도 깨끗이 해 두어야 한다.

### 해설

열왕기하에서 시편서 사이에 있는 룻기서와 같은 책들은 매우 가치 있고 흥미롭다. 그러나 그 책들은 새교회의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시편도 정경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은 시편서는 내적 면에서 주님 자신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서 시편의 위치를 정하여 주셨다(누가복음 24:44). 시편은 주님과 깊은 연결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일부이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그들의 영창곡집으로 간주하여 시편을 그들의 정경에 포함시키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시편은 찬양의 노래다. 모든 시편들은 노래로 불렸다. 다윗이 달콤한 이스라엘의 시인이라고 기억되는 것같이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 졌다. 우리는 다윗이 하프를 켜 노련한 연주자였음도 기억한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진 후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라고 말해진다(사무엘상 16:13).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라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쓴 시편의 말씀들이 주님에 의해 그의 마음에 영감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사무엘하 23:2).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말씀에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들을 음악 위에 놓으셔서 주님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 관계에 따른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러한 연유로 시편은 널리 알려져 사랑받게 된 것이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주님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경험을 한번쯤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정에 시편들을 통해 전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9편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라는 제호가 붙여져 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주님은 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는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지도록 부름 받았고, 사자와 곰을 죽일 만큼 힘이 주어지는 경험도 가졌다(사무엘상 17:32-37). 그는 자신의 주위에 양떼를 모아놓고 밤하늘의 별들 아래 누워 있을 때 주님의 영을 통해서 경이로운 일들을 종종 경험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근접하실 수 있는 우리와 주님과 관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보는 모습이다.

우리가 태양과 달 그리고 별과 같은 자연적 하늘을 생각해 보면 자연의 창조자가 위대하고 지혜로움을 실감하게 된다. 앞서 우리는 창조를 공부하면서 하늘이 우리 마음의 영적 또는 천적인 평면을 그려줌을 배웠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뜻함도 배웠다. 우리들 내에 있는 천국은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도록 해주며 하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진정으로 전하는 것이며, 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진리이다. 따라서 자연계의 하늘에 있는 태양에 관해서 말해진 뒤 곧 바로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라고 읊어지는 것이다.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이다. 이처럼 법도와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순수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벌을 두려워하는 때란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이고, 우리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행복한 때도 아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주님이 결코 벌하시지 않으며 악이 스스로 벌함을 이미 배웠다. 시편이 전하는 주님을 경외함이란 그분에 반대되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행함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두려움(경외심)이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종종 발견된다. 자녀들이 이기적이며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부모로부터 있게 되는 벌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행복한 상태, 즉 이타적인 상태에 있게 되면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갖게 되는 경외심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근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상태 또는 선한 상태가 아니면 결코 슬기로우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놀라기도 한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선하고 순종적일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계명을 지키면 “후한 상”이 있다고 노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길을 따라 갈 때만이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12절과 13절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든 나쁜 것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준다. 13절은 이러한 도움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는 자신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때로 우리는 사건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고집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한 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이것은 모르고 짓는 과오 때문이며 일부러 저지르는 악행과는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하고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이 다윗이 위의 모든 구절을 명상한 뒤에 그의 마음에 주님이 끝맺음으로서 놓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결론적인 영감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그 구절을 자주 낭독한다면, 그 말씀은 추하고 이기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심정이 자유로워지도록 해주며 성급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말들로부터 우리의 혀를 지켜 줄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의미를 더 해 갈 것이며, 이외의 다른 시편들도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을 주님께서 발달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기본 상응 공부

주님의 영광 =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진리

태양 = 하느님의 사랑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했는가?
- 2) 시편이란 무엇인가?
- 3) 주님은 시편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4) 많은 시편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
- 5)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6)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7) 시편 19편 1절은 무엇인가?
- 8) 그 첫 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시편은 주님의 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 10) 주님을 두려워 함 혹은 경외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2)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시편서 2) 노래 3) 시편은 주님께 관해 말했다 4) 다윗 5) 찬송
- 6) 주님께 관해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 7)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 8)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 10) 주님을 언짢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11) 의를 행함으로 행복해진 상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 12) 우리의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 대 예언서에 관하여 (2)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대 예언자, 성경에서 이 책들의 위치, 이 책들의 역사적 시기와 예언자들의 직분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예언의 의미와 영감에 따라 예언자가 말했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 성서본문: 예레미야 1장

1장: 1.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삼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일년 되던 해의 오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5.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6.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7.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9.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둔다. 10.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1.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숭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다

니 12. 야훼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13.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술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4. 야훼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5.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 와서 예루살렘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16.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17.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 주리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못담처럼 세우리니, 19.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감이 없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인간을 인도해 줄 충분한 진리도 주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 \* 예언자란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모든 말씀은 예언이다.
- \* 우리가 자아의 힘과 지식 대신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열매란 진리에 순종하는데 근원한 선을 표현한다.

### 해설

여러분은 앞서 히즈키야왕을 공부하면서 예언자 이사야에 친숙해 졌을 것이다. 주님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예언자란 특별히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행함에

다른 결과와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본문의 10절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신다. 그 임무는 예언자의 진정한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두 가지 부분을 갖고 있다. 즉, “악을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선을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우리는 심고 세우기 전에 뽑아내고 무너뜨려야 한다. 즉, 우리는 주님께서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천국적인 인격의 성장을 저지시키려는 이기적인 느낌과 생각이 우리의 깊은 곳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그것들을 먼저 뽑아내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네 개의 대 예언서는 그들이 간직한 예언들이 소 예언서보다 많이 말씀 속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대 예언서들은 유다왕국 시절 약 250여년 사이에 예언되었는데, 강림과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언들은 유다왕국의 몰락과 포로 신세라는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 주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선량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주었다.

예레미야서는 대부분이 질책과 경고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에 관한 예언은 극히 드문데, 이는 23장 3-8절, 30장 1-3절 그리고 33장 6-18절에서 볼 수 있다. 예레미야는 개혁을 시도한 유다의 마지막 왕 우찌야 통치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우찌야의 뒤를 이은 네 왕의 통치기간은 약 25여년 이었다. 왕국의 형편은 날로 악화되어 급기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당하게 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에 살았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힘입어 포도밭과 들판을 돌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향땅에 머무르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가난한자들에게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그곳을 지키고 인내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이집트로 피난 가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피난가면서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데려갔다. 제 43장과 44장 그리고 그의 후기 예언들은 이집트에서 쓰였을 거라고 추정된다. 애가서는 히브리어로 된 다섯 개의 경이로운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함을 상실한 슬픔이 유다왕국의 포로 신세로 표현되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두개의 환상이 주어졌는데, 이는 “감복숭아 가지”와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하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에 관한 것이다. 주님은 두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셨다. 주님은 알몬드 나무가지에 대해서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깨어 지켜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감복숭아(살구) 나무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표현하며, 감복숭아(살구)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에 순종함으로 비롯되는 선을 표현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7장 1-8절(공동번역 17:17-23)을 읽어 보자. 가지(지팡이)란 힘을 상징한다. 여러분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발휘한 힘을 기억할 것이다. 감복숭아 가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 주셔서 오게 되는 굉장한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환상은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인도자로 찾은 대신 자연적 또는 세상적인 사상만을 우리의 길로 간주할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술(가마)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차디찬 북쪽이란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영혼의 태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술 안에서 끓는 물처럼 모순된 사상, 즉 온갖 종류의 사상이 다투는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목적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거짓 사상들은 북쪽지역의 악들이 유다왕국을 멸망시켰듯이 우리의 선함을 탈취해버린다. 두 환상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영적 의미가 글자로 설명된 말씀중 하나다. 따라서 영적 의미를 배우며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증 해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글자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멸망에 접어들어 유대 국가의 상황과 그로 인한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적 의미로 볼 때 말씀 속의 모든 예언들은 전 시대 모든 이들의 심정 상태에 적용된다.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여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길이 옳다고 계속 고집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알려주고 주님께 순종할 때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말해준다. 예언자 중 예레미야만이 자신이 말한 예언들을 육의 눈으로도 목격했다.

## 기본 상응 공부

가지 = 힘

감복숭아(살구)나무 = 주님으로부터의 진리

### 질문 정리

- 1)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구했는가?
- 2)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
- 3) 4개의 대 예언서는 무엇인가?
- 4)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 5) 예레미야는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6)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8) 주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예레미야가 가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10)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1) 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12)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3) 예레미야는 어떤 비극을 목격했는가?
- 14) 애가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5)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예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 16) 그는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더 예언했는가?
- 17) 그는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18)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19) 그들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2)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 3)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4) 히즈키야왕의 시대 5) 요시아왕의 시대
- 6)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7)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 8) “뿔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9) 감복송아 가지 10)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켜보리라” 11)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는 부글부글 끓는 솔물 12)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3) 바빌론의 침공 14)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함
- 15) 유다왕국 16) 이집트 17) 그의 의사와는 달리 반역적인 백성들에 의해 끌려감
- 18) 바빌론 19) 포로로 끌려감

## 23

### 에제키엘의 환상

#### 머리말

대 예언서의 배경을 재고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4권의 대 예언서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직무와 네 권의 책을 대(Major) 예언서라고 이름 한 이유도 알아본다.

#### 성서본문: 에제키엘 1장

1장: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밭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보자의

아들 예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밭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4.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놋쇠 같은 것이 빛났다. 5.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6.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이었다. 7.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8.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9.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0.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11.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12. 돌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3.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햇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14.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였다. 15.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 네 짐승 옆 땅바닥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16. 그 바퀴들은 넷 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17.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8. 그 네 바퀴마다 불쭉 솟은 테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19.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20.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1.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2.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있었다. 24. 짐승들이 나느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탈소

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25.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26.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27.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28.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 왔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진리를 사용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로부터 진리를 감추신다.
- \* 예언자의 환상은 당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다.
- \*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죄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 해설

바빌론이란 자아사랑에서 근원 되는 지배욕을 표현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집은 우리의 속성으로 볼 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약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의 고집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며 마침내 주님의 도움으로 그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의지를 획득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거듭난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성경에 수록된 히브리국가의 점진적 변화가 솔로몬의 평화롭고 행복한 통치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러짐을 배웠다. 하지만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표현하는 솔로몬도 시험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솔로몬의 시험은 주님만을 섬겨야함을 잘 알고 있는 그가 많은 외국인 아내들을 위해 이방신들의 신전을 지어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그

역시 외국인 아내들과 함께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만심에서 오는 교만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진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총명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타락하여 거짓 사상과 악한 애착을 진리와 선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거짓 사상이 솔로몬의 이해성에서 점점 우세해져 감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왕국을 침략하여 그 백성들을 끌고 가버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심정 속에 놓아주신 선함마저 강탈당하는데, 이는 바빌론이 유다왕국을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우리는 아시리아가 언제나 적으로서 공격해 온 반면 바빌론은 친구인체 하면서 좋은 것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선왕인 히즈키야는 유다의 몰락을 지연시켰다. 이는 우리가 한 때나마 우리의 과오를 뉘우치고 개혁을 시도하는 상황과 같다. 그러나 히즈키야의 아들 므나세는 아버지의 선한 사업을 유지하지 않았다. 히즈키야왕 후 선왕은 우찌야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모든 상황은 나쁘게 가속화되어 갔다. 여호야킴왕 통치아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요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 성전의 보물과 일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데려갔다. 다니엘은 그 젊은이들에 속해 있었다. 여호야킴이 죽은 후 느부갓네살왕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이 된지 석 달밖에 안 된 여호야긴과 궁내대신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과 대장장이들을 포함하여 만여 명의 포로들을 끌고 갔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키야를 왕으로 세워 뒀으나, 후에 그가 반역하자 느부갓네살은 결국 유다왕국을 멸망시킨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포도원과 농토를 관리하도록 남겨둔 아주 가난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끌려가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는 예언자 에제키엘의 삶과 일에 관한 배경이다. 그는 사제로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그밭」강가 갈대아 지방에 놓여 졌고 여호야긴이 포로신세가 된지 오 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 받았다고 에제키엘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 본서의 24장까지는 백성들의 악한 심정상태와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한 환상이다. 이 후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약 십 사 년 이상

유다의 적들이 맞게 될 숙명에 대한 환상이 에제키엘에게 주어 졌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남아 있던 이들에게 그들의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과 40-48장에 걸쳐서 재건설될 성전에 대한 길고 상세한 환상이 보여 지면서 에제키엘서는 끝을 맺는다. 포로 신세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환상과 약속만으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상들은 우리가 우리의 과오를 인식하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변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 안에 천국적인 인격의 재건설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새교회를 짓는 모든 모양을 그려주는 것을 말한다. 요한 계시록에 수록된 환상도 에제키엘이 본 환상과 아주 유사함을 주시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은 에제키엘의 첫 번째 환상인데, 이는 여러분에게 기이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그가 본 바대로 마음속에 그려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꿈도 환상은 아니지만 그것 역시 그려내기가 어렵다. 제 10장에서 에제키엘은 다시 이와 같은 생물을 거룩들(cherubim)이라고 부른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동산 입구에 거룩들과 불칼이 놓였다 (창세기 3:24). 또한 주님은 모세에게 계약계 위 속죄판에 두개의 금으로 된 거룩들의 모양들을 놓도록 하셨고 거룩들 사이로부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거룩들이란 상징적 모습이다. 그것은 통상적으로는 하느님의 섭리를, 특별히 선을 보호하시고자 작동하는 섭리를 뜻한다. 여러분은 악과 죄의 차이점을 알 것이다. 모든 이기적 바램들은 악이며 그것들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시나, 우리는 단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 바램들을 보게 되면 아마 실망하여 자포자기해 버릴지도 모른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적 바램들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는 때마다 하나씩 보여주신다. 반면, 우리가 이러한 악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감추어 두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임을 알면서 행했을 때 죄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에제키엘의 환상에서 거룩들은 날개를 가졌다. 날개란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저 세상에 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물은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다. 손이란 뭔가를 성취하는 능력을 뜻한다.

또한 생물은 광을 잘 낸 눈썹처럼 윤이 나는 곧은 다리를 갖고 있다. 다리란 우리로 하여금 땅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우리의 바깥쪽에 속한 것, 즉 일상생활속의 선함이 눈썹이라는 금속으로 표현되고 있다. 생물들은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란 우리의 인격이 표출되는 신체부분이다. 따라서 거룩들의 네 얼굴은 하느님의 섭리가 작동함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의 인격의 표출을 뜻한다. 사람의 얼굴은 총명을, 사자의 얼굴은 하느님 진리가 갖는 힘을, 소의 얼굴은 자연성 안에 있는 선을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은 아주 높은데서 환히 보는 합리성을 말한다. 그 다음 바퀴가 있다. 바퀴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저곳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고, 특별히 뭔가를 쉽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환상에서 바퀴는 하느님의 예견하심을 말한다. 그 이유는 바퀴에 눈이 하나 가득 박혀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환상을 가져 보았으면 하고 한 번쯤 소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을 기억해 낼 때 언제든지 우리도 마음속에 환상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칫 행하기 쉬운 잘못들을 점검해 선함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들을 설비해 두신다.

### 기본 상응 공부

거룩들 = 하느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날개 = 세상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드높여 주는 진리

### 질문 정리

- 1) 4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2)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3)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4) 에제키엘은 예언의 직분 외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5)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 6) 주님은 그가 예언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7) 그가 본 생물은 몇 이었는가?
- 8) 생물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가?
- 9) 생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 10) 생물들의 다리(발)는 어떠하였는가?
- 11) 생물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2) 생물은 자기 옆 땅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바퀴들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 14) 날개 소리는 무엇 같았는가?
- 15) 에제키엘은 생물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 16) 옥좌 위에 누가 계셨는가?
- 17) 에제키엘은 후에 이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18) 거룩들에 관한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 19) 거룩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유다 3) 바빌론 4) 사제 5) 그밭 강가에서 6) 환상 7) 넷 8)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0)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11) 사람의 손 12) 바퀴 13) 생물과 더불어 움직였다 14)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향소리처럼 요란하였다 15) 옥좌 16) 주님 17) 거룩들 18) 에덴의 동산, 증거궤 19) 거룩한 것이 모독되는 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섭리

## 24

### 소 예언서에 관하여

## 머리말

본과에서는 예언서를 탐사할 것이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과 성경에서 예언서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흐름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요엘 4장 9-20절 (개역 성경 3:9-21)

4장: 9. “너희는 못 민족을 불러 전쟁을 선포하여라. 장사들을 불러 모으고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쳐 올라오너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11. 그리고 빨리 오너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그리로 모여라.” 야훼여,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 주소서. 12. “못 민족은 떨쳐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낫을 대어라. 13.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술틀이 찼다. 독이 차 넘친다. 못 민족의 악이 이토록 극에 달하였다.” 14.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 왔다.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다. 16.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함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17.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느님으로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는 줄을. 예루살렘은 성소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리라.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19. 그러나 이집트는 썩밭이 되고 에돔은 허허벌판이 되리라. 억울한 유다 백성의 무고한 피를 쏟고 어찌 벌을 면할 수가 있으랴? 20. 내가 그 피 값을 보상하리니 아무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심판한다.
- \*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고자 하면 성경으로부터의 계발을 얻게 된다.
- \* 말씀에서 배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 \* 이기적인 것들은 들추어내서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더욱 더 이기적인 쪽으로 쏠려 버린다.

## 해설

우리는 호세아서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 열 두 권의 책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소 예언서의 각 책은 아주 짧은데, 특히 오바디아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성서가 양피지 같은 두루말이에 보존되었던 당시 소 예언서는 두루마리 하나 안에 기록되어 보관되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환상과 예언들은 약 400년 이상 동안 주어져 온 것인데, 대체로 유다의 우찌야왕의 통치때부터 포로가 귀환한 후 150여 년 동안의 것으로 추정된다. 년대로 보면 기원전 8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해당될 것이다. 요나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으나, 그 중 아모스는 유다왕국에서 태어났다. 그 외 예언자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다. 오바디아의 예언은 포로생활 동안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깨,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 예언했다.

예언자들 중 일부는 동시대 사람들이기도 하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있어 왔다. 우리는 종종 예언자들의 집단에 대한 말씀을 접한다. 또한 우리의 예배 기도문에서는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서술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등장하는 예언자들만을 통해서 주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신다고 가상하지 않는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본래 말해진 대상, 즉 당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반면,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나 환상들은 전 시대 모든 이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소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살았는지 혹은 예언자와 당대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는 우리에게 과히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요엘서는 당대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과 자칫하면 우리들에게 올지 모르는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마치 모든 일이 뒤틀린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스웨덴봄에 의하면, 그것은 그날 재수가 없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자. 학생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제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어느 날에는 좀더 자고 싶어서 이부자리에서 꿈틀거리다가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난 후에야 허둥지둥 일어나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지참해야 할 물건을 빠뜨리거나 옷을 잘못 입거나 하여 빨리 준비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더 늦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아침을 가진 후 학교에 가서도 그날 종일 일이 안 풀린다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의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하루 종일 불평에 싸여 지낸다. 그러나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일의 시작이 타인이 아닌 자신 속의 이기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욱 나쁘게 물들어 가게 된다. 요엘이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탕쳐 먹었다”라고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1:4). 이와 같이 나쁜 감정은 하루를 즐기도록 해 줄 선하고 행복한 감정들을 먹여 치우는 해충과 같은 것이다. 요엘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방치해두면 정작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 할 때 이미 늦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불만에 가득해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처신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것들을 자신과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들이 평생 동안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어릴 때는 사랑스럽고 순진한 어린아이에 속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들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방치했을 뿐이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짜뿌듯한 기분과 같이 시작된 나쁜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면

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끝는 처음과는 다를 것이다. 그들은 죽을 때 천국적인 행복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타적으로 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요엘은 선과 악이 마지막으로 분리되는 때를 “주님의 날(야훼께서 거동하실 날, 여호와와 날)”이라고 부른다. 마가복음 13장 32-37절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시작된다. 혹자는 “주님의 날”을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로 착각하기도 한다. 주님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심판의 날에도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심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랑과 이타심을 간직했던 이들은 그분을 환영하며 따랐다. 그러나 이기심만 간직해 온 이들은 주님을 미워했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낼 때 오게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영원히 지니게 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된다. 본문의 9절은 “군인들을 총동원하여”로 시작된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을 위협하는 결점들을 찾아내어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과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기심과 선함은 공존할 수 없다. 이는 시편 1편 1절의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선함을 선택해 가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선택을 만드실 수는 없다. 선택이 없는 우리는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14절의 “타작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라는 구절을 살펴보자. 우리는 군중이다. 결정의 골짜기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한다. 주님의 날은 언제나 결정의 골짜기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 기본 상응 공부

누리 = 선을 파괴하는 거짓

황충 = 감각적인 것에서 나온 거짓

## 질문 정리

- 1)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2)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3) 왜 소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4)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 5) 우리는 그 책들이 영감된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 6) 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 7) 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8) 요엘서는 소 예언서의 몇 번째 책인가?
- 9)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요엘은 우리의 심정 속의 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 11) 그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불렀는가?
- 12) “결정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타작 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4) 주님의 날에 선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5)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2) 열 두 권
- 3) 각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
- 4) 구약 성서의 맨 끝부분
- 5) 각 책 모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 6) 호세아
- 7) 말라기
- 8) 두 번째
- 9) 3장(공동번역 4장)
- 10) 해충
- 11) 주님의 날
- 12) 우리가 죽을 때
- 13) 우리의 일상생활
- 14) 지옥
- 15) 천국
- 16) 우리가 스스로 매일 선택하여 영원히 지니게 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요나와 큰 물고기

### 머리말

먼저 소 예언서들의 배경을 살핀 후 요나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 성서본문: 요나서 1, 2장

1장: 1. 야훼의 말씀이 아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3.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셋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셋으로 가는 배를 만나 배 삿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4. 그런데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5.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 주실지 아느냐?” 7.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보니 요나가 나왔다. 8.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9.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했다. 11.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12.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13.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14.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15.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훼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2장: 1.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2.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뱃속에서 내게 하셨다. 3.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4.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다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밀려 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5.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6.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7. 저 땅 밑 뱃속에 빠져 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 내셨습니다. 8.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9. 헛된 위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10.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 교리 요점

- \*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배움을 거절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것을 허용하신다.
- \* 교리란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 \* 상대방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이단’이라 악언을 해서 안된다).

## 해설

열 두 권의 소 예언서는 구약 성서의 뒷부분에 있다. 하지만 책들의 순서는 예언자들의 역사적인 년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예로 요나서는 다섯 번째에 놓여 있으나 실제로 요나는 소 예언서들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전의 예언자로 추정된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는 즈불론 지파 영토인 갓헤벨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요나서에 기록된 것 외의 다른 예언들을 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요나서는 소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다. 그 이유는 요나서가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이야기 형태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나의 구원은 성경의 다른 기적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한다. 요나의 이야기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요나에 대해 언급하시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비교하셨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2:40). 하지만 요나서의 큰 물고기가 고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일반적 견해는 이 구절에 대한 그리스어의 잘못된 번역에서 유래된 것이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요나의 이야기 역시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의 일부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분의 삶에 언제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율법과 예언들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악과 거짓을 이겨내는 삶을 사심으로 말씀 통해서 뜻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람들의 눈앞에 살아 내셨음을 뜻한다. 본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우리는 요나가 곤경에 처한 이유를

토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다. 요나는 주님의 예언자였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신 예언들을 충실히 전달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예언하러 가라고 명령하셨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아서 도망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아시리아가 적국이었다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선민사상으로 인해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차별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자만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차별을 내포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칭하던 단어이다. 이러한 관습은 주님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언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후 주님의 명령마저 무시해 버렸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예언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였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로 인해 그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전복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삶속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회피하려 할 때 더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다.

말씀 속에서 배는 언제나 교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교리는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전하는 설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교리란 사고의 체계 또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방법을 뜻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리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그것의 근거와 명분을 합리화 해주는 것이 바로 교리이다. 요나서의 “배”는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교리를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배를 타고 삶이라는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면, 즉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법칙과 계획을 따르면 우리의 배는 안전하게 잠잠한 바다를 향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배는 곤경을 맞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폭풍으로 의미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 속에 이기심이 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5절에서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반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비가 당연히

요나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하면 그분이 곤경의 진정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요나가 마치 불순종한 예언자의 표본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 사실 요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근본이 선한 사람이었다. 12절을 보면, 요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겁먹은 선원들에게 자신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많은 이들을 생사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님께서 요나를 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그가 보인 ‘나를 희생하여 나를 구하겠다’는 진심어린 의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주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는데 쓰인다.

이제 요나가 살아나게 된 이유를 성경의 상응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물은 좋은 의미로 진리를, 반대적인 의미로는 거짓을 의미한다. 바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바다 속의 생물인 물고기는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은 진리를 향한 큰 애착만이 거짓에 혹해서 시험에 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선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과 삶을 통해 배우고 살아 나가기로 소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의 배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머물러있어야 했던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물고기의 배 속에서 한 요나의 기도 또한 아주 중요하다. 요나는 자신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요나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이기심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배 = 일반적인 교리  
바다 = 모든 기억된 지식들

###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소 예언서는 어느 책인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3) 어느 성경책의 구절에서 요나의 신변이 확인되는가?
- 4) 주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5)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 6) 왜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가?
- 7) 그는 어떻게 순종을 피하려고 했는가?
- 8) 그가 탄 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선원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기로 했는가?
- 10)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떠했는가?
- 12)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는가?
- 13) 요나의 기도 종류는 무엇인가?
- 14) 그는 기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 15)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지자 무엇을 했는가?
- 16)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질문의 답

- 1) 요나(다섯 번째 책) 2)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3) 열왕기하 14:25
- 4)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 5) 아시리아의 수도 6) 너무 거만해서
- 7)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탐으로써 8) 폭풍을 만났다 9) 제비를 뽑아서

- 10)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11) 잠잠해졌다 12) 3일 13) 감사기도  
14)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15) 니느웨로 갔다  
16)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 것과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

## 26

### 주님의 세례

#### 머리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네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장

1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3.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5.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2.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 그 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21.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 가 가르치는데 22.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24.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25.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 갔다. 27.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8. 예수의 소문은 삼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2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30.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37.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40.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1.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42.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43.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44.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45. 그러나 그는 몰려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 교리 요점

\*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거룩한 땅에

살았기 때문이다.

- \*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시켰고 신, 구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 \*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그것들을 죄처럼 멀리해야 한다.
- \* 진실로 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 해설

구약 성서가 끝나고 신약 성서가 등장하는 시대 사이에는 약 사백 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 그 세월 동안에는 어떤 예언자도 출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고 유다왕국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중 유다 백성들만이 귀환되도록 허용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에즈라서나 느헤미야서와 같은 역사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스웨덴본은 그들이 귀환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분의 율법과 예언들의 완성과 그들 안에서 말씀 속에 감춰진 신성한 진리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오셔야 했고, 말씀 안에 언급된 장소들의 이름이 내적인 진리에 상응되도록 하셨다.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했고 그들의 종교도 재정립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였음을 알았으므로 우상숭배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 대신 예배를 수행하는 규정이나 법들에 스스로의 의견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신 것이다(마태복음 15장 6절).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로 인해 글을 모르던 단순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말씀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몰랐던 것이다.

이제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6절을 살펴보자. 말라기서는 예언서로는 마지막이다. 즉, 말라기 이후 주님의 강림 때까지는 예언자가 없었다. 말라기서는 구세주이신

메시아의 강림과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불리게 될 예언자, 즉 전달자가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전달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가 말한 것을 믿었다. 헤로데 왕조차도 그가 예언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죄상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직접적인 지적은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며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 직접 진리의 빛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거부하거나 부인하게 되며, 이로 인해 또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요한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를 직접 받기 전에 그에 합당한 마음 상태를 이루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 메시아임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옳은 것을 행할 수 있기 전 먼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중단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은 참된 기독교인적인 삶에 있어야 할 첫 번째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이다. 물세례란 진리에 의거해서 생활을 깨끗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요르단 강이란 선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 즉 계명 같은 진리들을 의미한다. 계명과 같은 진리가 우리의 첫 단계를 이끄는 진리인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삶의 자세야말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선을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을 보면, 요한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오셨음을 알아채고 오히려 자신이 주님께 세례 받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한이 그분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여기서 세례란 물세례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즉 참된 기독교적인 삶의 합당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의 삶을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땅히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세례 직후 주님 위에 내려 온 비둘기는 성령을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려 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선한 바램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의 내용들 속에서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줌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세례 당시 주님 위에 내려 온 비둘기는 믿음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말씀 속의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거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북의 환상에 따르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진리들로 대화하면 비둘기들이 그들 주위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비둘기”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수호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진리들을 떠올린다고 한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본문 첫 절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아들이 세상에 주어졌음과 그 아들의 이름 중의 하나가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주 하느님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시지만 결국은 같은 한 분인 하느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주님 스스로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이라고도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장 9절).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오시게 되는 구세주를 일컫는 칭호이며 주님께서 곧 아버지 하느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공생애는 그분이 세례 받으신 직후 시험으로 시작되었다. 주님은 그분의 자연적인 육체와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악들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셨다. 그 후 그분은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주님의 공생애는 세 부분, 즉 전도와 가르침 그리고 병 고침으로 구분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전도는 마음에, 가르침은 이성 그리고 병 고침은 육체에 해당된다고 한다. 본문은 병 고침에 있게 되는 세 가지 다른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가버나움의 회당과 갈릴래아 지방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도들이 된 첫 네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알 수 있다.

## 기본 상응 공부

세레 = 진리에 의거하여 삶을 깨끗이 함

요르단 = 입문적인 진리

## 질문 정리

- 1) 구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신약성서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특징 지워 구분되는가?
- 3) 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는가?
- 4)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귀환 후 예언했는가?
- 5)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의 책은 무엇인가?
- 6) 말라기의 예언 후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
- 7)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8) 복음서는 몇 권인가?
- 9) 주님은 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몇 권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는가?
- 10) 마르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마르코는 주님의 생애 중 어느 시절부터 기록했는가?
- 12) 세레자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1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14)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 15)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16)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17) 세레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누가 나자렛으로부터 세레 받으러 왔는가?
- 19) 주님이 세레 받으시자마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 20)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이 제자라고 부른 첫 네 사람은 누구인가?

##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역사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 가나안에 유대주의의 재건설
- 4)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 5) 말라기 6) 약 사 백년 7) 예언이 없었기 때문
- 8) 네 권 9) 상호 보충해 주기 때문 10)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음, 베드로와 함께 여행했음 11) 주님의 세례 12) 말라기의 예언
- 13) 광야 14)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15) 메뚜기와 들꿀 16) 회개하라
- 17) 주님의 진리로 삶을 깨끗하게 꾸려감 18) 예수 19)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
- 2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1) 시므온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27

## 새 포도주

### 머리말

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 기적들에 관한 것과 주님의 공생애는 설교와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 언급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그분의 능력의 표시임을 설명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2장

2장: 1.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뚫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6.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10.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12.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하고 대답하셨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다. 19.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칫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20.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켜겨 더 찢어지게 된다. 22.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그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24.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행하셨다.
- \* 주님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 해석만을 “부수셨다. broke”
- \* 인간이 기적으로 고쳐지려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Faith had to be present if a man was to be healed by a miracle)
- \* 안식일에 선을 행함은 옳은 일이다.

### 해설

마가복음서 첫 장은 주님이 세례로 시작하여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을 극복하신 것과 갈릴래아로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심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실 때 그들의 아픈 육체보다 병든 영혼에 관심을 두셨다. 따라서 그분이 병을 치료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기 원하며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선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선용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삶이 될 것이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선용을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도구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훌륭한 예술가가 자신의 도구들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육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가 지니는 참된 사용처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질병은 언제나 어떤 영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본문은 중풍을 앓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풍 또는 마비 증세란 선한 의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삶으로 그것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무능력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변명하거나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영적인 중풍 병자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먼저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후 주님은 그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중풍에 대한 치료는 우리의 영적 중풍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 근원이 바로 자신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세상, 주위 사람들 혹은 부모님을 탓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치료와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료의 완성엔 주님께 치료를 받은 중풍 병자가 그동안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함을 알고 있는 일을 주저 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민중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이 새로운 설교자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했으며, 그들의 권위가 바로 율법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에 손상을 입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권위나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소하기

위해서 약점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그분을 꾸준히 따라다녔다. 복음서들에는 이러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자주 언급된다.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들과 부르셨다(마태복음 23:13-33).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우문으로 만드는 현답을 언제나 갖고 계셨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기소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으나 그분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 나서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님은 설교자의 의무는 의사들과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구원은 그것을 필요로 하여 구하는 사람에게만 있게 된다는 말씀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발견한 두 번째 비판 사항은 주님의 제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만사에는 때가 있는 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이 단식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셨다. 단식이란 슬픔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험기간 동안의 슬픔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40일 동안 그분 역시 단식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슬픔이 그들에게 올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동안 그들은 단식을 하지 않았다.

주님은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옷이란 우리의 애착을 감싸는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받게 될 때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낡은 사상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 먼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 역시 그 원칙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땅 곧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새 포도주란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란 주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에 인간들이 만든 규정들을 첨가하여서 일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율법에 첨가된 인간들이 만든 규정들이 바로 새 포도주가 부서야 할 헌 병(가죽부대)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한 바리사이파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날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다. 안식일을 근엄하고 어려운 날로 만든 것은

미국의 초기 시대 때의 청교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리사이파인들과 청교도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속보다 겉을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전 공생애동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깨트린 자라고 바리사이파인에게 비난 받으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이리저리 자유롭게 다니셨고 병자를 돌보시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베푸셨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들의 안식일은 반드시 깨뜨려 져야 할 낡은 병(부대)에 해당된다.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폐지하시려는 의도가 아닌 안식일이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셨음은 누가복음 4장 16절의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라는 구절로도 알 수 있다. 참된 안식일은 주님을 배우며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세상적인 활동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쉬면서 그동안 이웃을 위해 가지지 못했던 사랑의 나눔을 행하는 날인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7일 중 가장 특별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웃이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계명들은 부정적인 어투, 즉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는 늘 하던 습관대로 또는 직업과 같이 주일에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이렇게 되면 안식일의 진정한 선용은 고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자체도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중풍병 = 의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무기력함  
 단식 = 시험 속의 슬픔

### 질문 정리

- 1)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 2)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3) 첫 네 제자들은 누구누구인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5) 주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 6)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어떤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가?
- 7) 그 구역 중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8)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느 구역에서 있었는가?
- 9) 공생애 동안 주님은 어디서 사셨는가?
- 10)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11) 중풍 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12) 주님은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 1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 누구를 부르셨는가?
- 14) 그 제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란 어떤 이들인가?
- 16) 사람들은 왜 세리를 멸시했는가?
- 17) 본문에서 주님에 대한 첫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8)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9) 주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20)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2) 안식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비둘기가 나타났다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4) 전도, 가르침, 병 고치심 5) 회당 외 많은 곳에서 6)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대 7) 유대 8) 갈릴래아 9) 가파르나움(갈릴래아 해변가)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11) 요에 뉘여서 들고 왔다 12) 그의 죄를 용서하심 13) 레위(마태오)
- 14) 세금을 거두는 자 15) 바리사이파인 - 율법주의자, 율법학자 - 성경을 베끼는

이들 16)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임 17) 세리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임  
18)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임 19) 공존해야 할 필요성 20) 안식일을 주님이  
깨트렸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2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이다”  
22) 예배드리고 주님께 관해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 28

### 열 두 사도

#### 머리말

27장에서 공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서 본장을 시작한다.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재고한 뒤 본문 서두의 기적을 그 예로 언급한  
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3장

3장: 1.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하시고 4.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나? 죽이는 것이 옳으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과 예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물려 왔다. 9.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 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14. 예수께서는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5.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뽑으신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혁명당원 시몬, 19.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20.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 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니 하고 떠들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26.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27.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 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31.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 보냈다. 32.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34. 둘러 앉은 사람들을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35.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교리 요약

- \*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예비해두신다.
- \*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회가 말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 \* 믿음은 이해성 또는 생각적인 평면에 속한다.
- \* 선행은 심정 또는 의지적인 평면에 속한다.
- \* 심정 속에 든 이기적인 욕망들은 외적인 선행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행을 파괴시킨다.

### 해설

본장의 공부는 27장과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27장을 통해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즉각 그것의 의미를 보여 주셨음을 배웠다.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주님은 병자가 보이자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9-13절에 있는데 살펴보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에 그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물어 보셨다. 그 결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이 옳았음을 알게 되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로데 당원들을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했다. 바리사이파인과 헤로데 당원들이 서로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모질고 악독했는가를 알게 해 준다.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오그라진 손이란 중풍 병자에 대한 상응과 유사하다. 그 이유는 손이 힘을 상징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대부분 손을 수단으로 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그라진 손을 가진 자란 영적인 자양분의 결핍으로 인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주님 당시의 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주님이 그의 손을 고쳐주신 것같이 주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행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주님은 해변이나 산에서 자주 가르치셨다. 바다는 모든 물이 흘러 내려가 모여 있는 곳이듯이 우리의 기억 안에 수집된 지식들을 말한다. 산이란 이러한 지식들을 토대로 생각하되 보다 상승된 사고를 의미한다.

마가복음 4장 1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한 척을 미리 준비토록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주님께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 그분을 만지기를 원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억 안에 모아진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행동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과거에 익혀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오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다음 주님은 산으로 올라 가셔서 마음에 두셨던 사람을 부르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들을 제거하고 선한 삶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이 산으로 부른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세상적인 평면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서 천국적인 삶에 관해 배우기를 진심으로 원한 이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이 선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도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산에 오른 이들이 바로 그분의 사도로서 보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란 보내지는 자를, 제자란 배우는 자를 의미한다. 주님의 사도는 열두 명이었다. 숫자 12란 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것 혹은 하나라는 전체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열 두 사도들이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알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모든 자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각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수한 자질을 표현한다. 비록 사도들이 표현하는 모든 자질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 안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세 부분이란 의지와 사고 그리고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를 자극하는 동기 혹은 욕구가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동기나 욕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이뤄 내기 위해 사고하고 그것을 이뤄 낼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생겨버린 동기와 사고가 행동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참된 삶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믿음은 이해성 또는 사고적인 평면에 속하고, 사랑은 동기 또는 심정적인 평면에 해당된다. 참된 삶이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삶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단순한 선행을 보고 사랑에 의한 행위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선행이란 심정 안에 있는 사랑을 행위로 옮겼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선행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인간의 행위가 선하다고 하여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선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이기적인 이유로도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세 부분을 표현하는데, 이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삶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산 = 사교의 높은 평면

베드로 = 믿음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중풍으로 앓는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주셨는가?
- 2)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행해야만 하는가?
- 3)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가?
- 4)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결점을 주님께에서 발견했는가?
- 5)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6)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7) 5번 질문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바는 무엇인가 ?
- 8) 본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은 무엇인가?
- 9)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불만족했는가?
- 10)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음모를 꾸몄는가?
- 11) 주님은 군중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 13) 주님은 몇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보자.
- 16)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17)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18)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 19)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 20) 주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왜 주님은 가족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 질문의 답

- 1) 죄를 용서하심 2) 일어나서 요를 건너 걸어감 3) 마태오(레위)
- 4)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깨트린 것
- 5) 새 그릇이 필요하다 6) 옛 사상과 새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 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8)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 9) 안식일,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 받았다 10) 헤로데 당원 11) 바닷가 12) 산
- 13) 열 둘 14)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냄 15) 본문 참조
- 16)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음 17) 악마(베엘제불)
- 18) 우리의 악을 질책하는 진리를 거절함
- 19)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
- 20)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21) 주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29

###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 머리말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전체가 비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본문의 첫 비유를 풀이하셨음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4장

4장: 1.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삼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백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13.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15.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22.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어라.” 24.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 주면 달아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27.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32.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써 말씀을 전하셨다. 34.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갔다. 37.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배개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책망하셨다. 41.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 교리 요점

- \* 모든 말씀은 비유이다.
- \* 더 나은 삶 곧 선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원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 지상의 삶이 끝난 후 가게 되는 영원한 고향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심정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 사랑 중 어느 쪽이 주도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 해설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는 주님의 비유들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 스스로 그 비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이다. 비유란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많은 비유들이 있다. 스웨덴북은 말씀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모두 비유로 설명한다.

주님이 언제나 비유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34절)가 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11-12절에서 직접 설명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야 한다고 비평한다. 주님이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불평하던 사람들 모두가 그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명령들을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될까? 그들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면서도 그대로 사는 것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 결국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되는 천국으로 향한 길마저 막히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했고 한 번에 열 계단을 뛰는 방식이 아닌 한 발자국씩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단순한 이야기로 듣고 기억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로 기억된 말씀들은 우리 마음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그 이야기들은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풀어 주게 되어 우리는 점차로 말씀이 갖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실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비유의 적용이 일반적이어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설명을 들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인십색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누군가를 한번쯤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주님의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마치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와 같아 아무리 가르쳐도 발전되지 않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하나 듣기도 바쁘게 잊어버리는 산만한 학생도 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잘 듣고 이해하여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지만 막상 실전에는 약한 경우도 있다. 또한 재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배운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학생도 있다. 주님의 진리를 배우는 우리 역시 학생들처럼 다양각색의 모습으로 진리를 받으며 받은 진리를 활용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받는 진리를 등불에 비유하신다. 방안에 밝혀진 등불은 방안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쳐준다(마태복음 5:15). 집이란 우리의 인격을 말하며, 방이란 그 안에 있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 안에 밝혀진 진리의 등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해주어서 그 안에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준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결점이나 악함을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등불을 뒷방으로 덮어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결점이나 악함을 덮어서 숨길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세상일뿐 저 세상에 가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진리의 등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의 결점과 악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선용하기를 거절했던 진리에 대한 지식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임을 본문의 24-25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마태복음 6장 19-21절도 참고 하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같이 본문의 다른 두 비유도 씨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비유가 의미하는 비는 우리가 어릴 적에 배운 진리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자라 올라오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가능한 한 많이 취하고 거뒀던 것은 가능한 한 적게 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간혹 그릇된 것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과 혼합된 채 자라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선과 악이 뒤섞여 혼재한 상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을 때까지, 즉 자신의 결점과 이기심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24-30절에서 가라지의 비유로 주님께 의하여 말씀되고 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배운 모든 진리는 마치 아주 조그만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겨자씨는 언뜻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나 싹이 트고 자란 후 많은 가지를 내어서 우리속의 방황하는 생각들을 상징하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큰 나무, 즉 큰 원리로 성장한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지들을 내었는지 각자 반문해 보고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자.

### 기본 상응 공부

씨 = 말씀에서 나온 진리들

###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는가?
- 3) 주님은 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 4) 본문의 비유 중 셋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씨란 무엇인가?
- 6)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7) 주님은 등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9)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 10)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11) 곡식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
- 12) 누가 곡식을 자라도록 해 주는가?
- 13) 주님은 겨자씨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이 씨와 연관 지어 볼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 질문의 답

1) 감추어진 의미를 가진 이야기 2) 구약성서에 48개, 신약성서에 40개 3) 처음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진리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씨 5)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 6) 각기 다른 마음 7)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야 한다 8) 계발시켜 주는 진리 9) 자신의 결점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10) 사용 안 된 것은 빼앗긴다 또는 등불이 꺼진다 11)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찬다.” 12) 하느님 13)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14)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 들일 만큼 된다.” 15) 어떤 진리는 처음에 우리에게 하찮은 진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된다.

# 기적을 베푸신 주님

## 머리말

본장의 핵심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구절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근원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기적을 공부할 때 기적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베풀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5장

5장: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5.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6.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 가 그 앞에 엎드려 7.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8.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12.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15.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이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19.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이르셨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22.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하시었다. 2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25.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체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않았다. 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 \* 이제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 해설

마가복음서에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술되고 있다. 앞서 공부한 바대로 중풍병자의 치료,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소경의 눈을 여심, 나병환자의 치료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일 등이 그 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주님의 기적들 중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 즉, 악마를 내쫓으심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주님이 수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바대로 실제 했던 사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시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주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우리 영혼의 치료와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기적이란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주님이 갈릴래아 호수 건너편 동쪽 지방으로 건너가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거룩한 땅이란 천국적인 삶 또는 말씀속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주님을 인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을 표현한다. 그러나 요르단 건너편 동쪽 지역이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령에 들린 사람이란 한 번도 주님과 연결된 적 없이 삶을 살아 온 사람을 말한다. 주님께서 오신 시대는 악마들의 권세가 매우 강성하여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대한 지식마저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이파인들에 의해 거꾸로 뒤집혀버려서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결과 당대의 악령들은 사람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도 악령들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런 악령들의 시험들을 모두 이겨서 지옥의 권세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 태초부터 보장된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되돌려 주셨는바, 이것이 주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님 이후의 인류도 악령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악령과 같은 성향이거나 악령에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악령들의 시험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으며, 주님의 도우심과 권능으로 인해 그것들을 거절하면 악령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악령이 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찾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본문에서 악령이 든 사람은 아주 가엽고 극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이는 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됨을 보여준다. 그는 무덤사이에서 생활했는데, 이는 악한 인격이 영적인 삶에 속하는 모든 것을 잘라 내 버린 상황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억제시키기 위해 묶어 놓은 쇠사슬을 끊어 버렸는데,

이는 자신 안의 악이 자신을 지키며 타인도 안전하게 해 줄 모든 안전장치들을 끊어버림을 상징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 알고 있는 옳은 것을 행할 수 없어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양심을 표현한다.

본문에서 악령이 들린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그는 주님을 알아 볼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주님은 그를 즉시 고쳐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악령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군대였던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악만을 볼 수 있으나 실상 모든 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모든 악은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되며, 인간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악마들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돼지 떼란 우리의 탐욕스러운 세상적 쾌락들을 말한다. 돼지 떼가 물에 뛰어 들어 죽었다는 것은 악령들이 최후에 그러한 것들마저도 파괴하여 결국 그 사람 안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전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셨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들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 한 여인이 주님의 겹옷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12년간 앓아왔던 출혈증이 치료되었다. 겹옷이란 우리의 애착들을 입히고 있는 진리들을 말한다. 따라서 주님의 겹옷은 말씀을 의미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주님의 겹옷자락만 건드렸을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겹옷자락이란 하느님의 법이 가장 낮은 형태 또는 가장 바깥쪽 형태에 임하여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바 곧 십계명에 해당된다. 피는 살이 선에 상응되는 것과 하나를 이루며 진리에 상응된다. 피가 우리 몸 안을 순환하며 몸 안의 모든 기관과 세포들에 활력을 공급하듯이, 피에 상응하는 진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순환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에 강건함과 생명력을 공급해준다. 따라서 하혈증(혈루증), 즉 피가 밑으로 흘러 나가는 병은 진리가 자신의 마음 밖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 차차 영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있게 되는 중요한 시기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세상적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거나 겪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 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인 하혈증을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문의 마지막 기적은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몇 번 보여주셨음을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이 곧 생명이심을 입증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언급되는 요한복음 11장 1-4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두고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본문의 아이로의 집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주님이 나사로와 소녀를 다시 세상에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분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인 영계에서 우리를 깨워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진짜가 아니었고 진정한 행복과 참된 삶은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인 그곳에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요르단 건너 동쪽 지역 =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상태  
돼지 = 탐욕에서 오는 즐거움

### 질문 정리

1) 기적은 무엇인가?

- 2)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기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4) 첫 기적은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 5) 첫 기적 속의 사람은 어떠했는가?
- 6)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였는가?
- 7)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 8)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악마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10)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11) 주님은 갈릴래야로 되돌아 가셨는데, 누가 도움을 청했는가?
- 12) 야이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 13) 야이로의 전달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 14)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15)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16)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떻게 소녀를 고치셨는가?
- 18) 주님은 부모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하셨는가?
- 19) 주님은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수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 2) 중풍병자, 오그라진 손을 펴심 3) 3 4) 요르단 건너 지역
- 5)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6) 달려와 주님께 경배했다 7) 군대
- 8)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9)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 10)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11) 야이로
- 12)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13)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 14)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15)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서

- 16) 그녀는 잠을 자고 있다 17) 손을 잡고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18)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19)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 31

###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머리말

주님을 만났던 군중, 제자들,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헤로데와 나자렛 마을 사람들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6장

6장: 1.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가셨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3.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5.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7.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8.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9.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1.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13.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5.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7. 이 헤로데는 일찌기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18.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와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 주마”하고는 23.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24. 소녀가 나가서 제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하고 의논하자 그 어머니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시켰다. 25.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 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쟁반에 담아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29.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3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3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나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하자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40. 군중은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45.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베싸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46.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시쯤이었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50.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며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 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 교리 요약

- \* 주님의 능력은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신다.
- \*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 \*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 말씀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 해설

우선 본문의 서두에서 주어진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는 타인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못 마땅해 여기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특히, 우리는 자신 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그들의 성공을 운으로 돌리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이 뒤틀린 것으로 당연이 그른 것이나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뒤틀린 마음 상태였을 것이다. 본문 첫 부분에는 예수께서 병자 몇 명만을 나사렛에서 치유하셨을 뿐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님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주님께서 더 이상의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닫혀 있어서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유대인들이 요한이 예언자로 인정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헤로데왕 (이 왕은 주님 탄생시의 헤로데의 아들임)까지도 요한을 예언자로 믿었으나, 그는 동생 필립보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법을 깨트렸다. 그리고 헤로데는 예언자의 조언을 수궁하여 자신의 삶을 고칠 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요한이 그의 죄를 누차 간하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는 요한을 미워하지는 않았으나 요한의 조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헤로데와 결혼한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했는데, 그녀는 기회를 엿보다가 딸을 이용하여 헤로데에게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아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서 헤로데는 요한의 죽음을 명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은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여 스스로를 함정에 빠트리는 어리석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후에 헤로데는 이 일로 매우 두려워하여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처벌하려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주님이라고까지 생각했다. 헤로데란 우리들 지성을 지배하

려드는 사리사욕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남들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려드는 위선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옳다는 것을 알고 실행하려다가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치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방법만이 옳고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외쳐 대는 자아 사랑을 의미한다.

주님은 열 두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며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전도하도록 하셨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여행을 위해서 돈이나 음식 혹은 여분의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보내져 그들의 말에 청종하는 자의 집에서 묵으며 음식을 얻어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발견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주님이 인간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미 인간이 스스로가 선하고 지혜롭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진실한 생각과 선한 바램들이 주님에게서 근원됨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도들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 왔을 때 그들을 위한 주님의 훈련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며 더 많은 증거와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하루 종일 지내자 사도들이 군중들을 보내서 필요한 음식을 각자 구하도록 하자고 간청했음을 주목해 보자. 주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음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일들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혹은 “내 처지로는 너무 과분한 일이야.”라고 말하며 아예 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문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열 두 사도들이란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우리의 모든 자질을 표현한다. 오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있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군중들이 느낀 배고픔이란 날마다 의를 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산상설교의 열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임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갈구하는 진정한 양식은 주님으로부터 온 선함과 진리이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음식이 무엇인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야 할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본문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에 있는 모든 숫자는 의미를 지닌다. 본문의 제목인 오병이어, 즉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등장하는 다섯과 둘이란 숫자 역시 그러하다. 다섯이란 ‘조금’을 의미하나 그것은 부족해서 조금이 아닌 장차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조금’이다. 빵 다섯 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해지려고 하는 의지가 아직은 ‘조금’임을 의미한다. 둘이란 지성에 해당 되는 것 또는 결합을 의미한다. 물고기란 선과 진리 그리고 지식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래서 빵 다섯 개와 함께 있는 물고기 두 마리란 조금이기는 하나 우리 마음에 있는 선의지를 삶으로 살아내는데 필요한 진리를 의미한다. 오병이어에 담긴 의미는 선한 인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되 선의 주인이 그분임을 인식하면서 조금밖에 안 되는 선함과 그에 따르는 진리일지라도 그것들을 그분 앞에 내놓으면 그분께서 축복하셔서 ‘조금’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41절에서 주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뭔가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함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되 우리의 특성에 맞춰 잘 살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과 축복을 구하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조금 밖에 안 되는 선함과 진리는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배가 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충분한 지혜와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우리는 사도들이 오병이어의 교훈을 진정으로 깨우치지 못했음을 42-5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도들의 어리석음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겪었던 곤란과 새롭게 발생된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 이미 해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처럼 당황해한다는 것이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베풀어진 주님의 기적을 바로 전에 목격했던 사도들은 역풍을 만나자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권능을 모두 잊고 말았다.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역풍이 잔잔해 지며 우리의 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무사히 도착하도록 해 주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진정으로 확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헤로데 = 마음을 지배하는 사리사욕  
 헤로디아 = 심정 속에 든 자아 사랑

### 질문 정리

- 1)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는가?
- 2) 주님은 사도들을 파견할 때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3) 헤로데 왕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4)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5) 요한을 실제로 죽게 한 자는 누구인가?
- 6) 우리 속에서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7) 제자들은 군중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자고 제안했는가?
- 8)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10)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11) 주님은 물고기와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2) 몇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가?
- 13)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 14)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 15) 제자들은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주셨는가?
- 17) 우리는 육신의 양식 외에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한가?
- 18) 우리의 영적 양식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 질문의 답

- 1) 그곳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 2) 어떤 여분도 취하지 말라
- 3) 세례자 요한 4) 그의 목을 베었다 5) 헤로디아 6) 사리사욕, 자아사랑의 지배
- 7) 제각기 양식을 구하러 보냈시다 8)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9)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10) 오십 명 백 명씩 떼 지어 앉히셨다 11) 축사하시고 떼었다 12) 오천 명 13) 열 두 광주리 14) 베싸이다 15) 역풍을 만났다
- 16) 물 위로 걸어 오셨다 17)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사랑과 지혜 18) 홀트려진 생각을 질서대로 놓고 우리의 재질을 최대한 선용하면서 지식과 강함을 주님께에서 찾는다

## 32

#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 머리말

본 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공부할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의 초기에 연유되고 있다. 성서 지도에서 거룩한 땅의 세 구역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요르단강 건너편과 여리고를 지나간 경로를

확인해 본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0장

10장: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 때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하고 반문하셨다. 4.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6.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1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하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2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6.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천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 주셨다. 33“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 갈 것이다. 34.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제배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38.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40. 그러나 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41.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46.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48.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자 50. 소경은 걸음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 왔다. 51.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찾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 순진함이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 \* 재물에 의지함이란 자신의 선함과 지혜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본문의 첫 절이 주님께서 유다지방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시작됨을 기억하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북쪽에는 갈릴리지방, 남쪽에는 유다지방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구약성서 이야기 중 분열 왕국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의지부분을, 이스라엘은 이해성 부분을 표현한다. 그래서 주님 시대의 세 지역들 중 유다는 의지를, 사마리아는 이해성을 그리고 갈릴리는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의 지침을 표현한다. 예배의 중심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고, 주님 역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는 참으로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의 의지나 심정에서 비롯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올바르게 틀이 잡힌다.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올바르게 되는 데는 길고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이며, 공생애의 대부분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주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주어진 것이고, 더욱 정확히 표현하자면 갈릴리 호수 근처 가버나움에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셨다는 구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유다 지방에 계신다는 것은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심정에 대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사이파인의 처신에 해당된다. 그들은 선함을 사랑하지 않고 매우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고 뽐내기

좋아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만 경건한 척 하는 위선적이고 겉치레가 심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유다 땅에 밭을 딛자마자 그분을 떠보려고 했고 그분을 궁지로 몰 방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주님께 결혼과 이혼에 관해 물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모세의 율법 중 단 한 구절만을 추켜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아내가 싫어지면 이혼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구실로 삼고 있었다. 주님의 답변은 이들에게 주어진 신명기의 이 구절에 대한 편의상의 해석을 금하는 것도 모세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주님의 가르침은 결혼이란 깨어지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신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해가 갈수록 그들의 결혼 관계가 더욱 단단해져 궁극적으로 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본문의 둘째 사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 생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것은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매사에 있어서 그분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말씀 안에서 어린이는 언제나 순진함을 표현한다. 순진함이라는 단어는 “해를 주지 않음”을 뜻한다. 남에게 해를 주는 일들의 주된 원인은 심정 속에 든 이기심이다. 스웨덴북은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기꺼이 원하는 것이 순진함이라고 말한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이 청년은 주님을 그저 비범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는 하느님 한 분만이 진정으로 선한 분이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기를 진실로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조언에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본문에 부자 청년은 잘 훈육되어 자라서 체계 있는 사회생활을 했고 계명에도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 과정으로 인해 그는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서 그의 교만과 허영의 근본이 되는 것, 즉 그의 선함과 지혜로 그가 남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믿는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

“재물에 의지함”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에 의지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주님이 책망하는 재물에 의지하는 자란 돈에 의지하는 사람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응으로 이해하자면, 재물에 의지하는 자란 선함과 지혜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천국 밖에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선과 지혜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지하듯이 천국의 모든 이들은 주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보면 사도들 또한 이러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당위성만을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주님을 따르는 보상으로 외적인 것, 즉 가시적인 종류의 것을 원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는 보상에 관한 설명도 언급된다. 28-41절을 읽어 보면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도들이 바리사이파인과는 달랐던 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까지 선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행복이란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주는 것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섬기는 자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절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들이 된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보아서 주님을 계속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눈이 멀었다는 것, 즉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영적 진리에 대해 무지함을 표현한다. 그리고 보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보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게 된다. 눈이 먼 바르티매오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게 된 그가 자신의 믿음을 바로 입증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시자 그가 오히려 그분의 길을 따라나섰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유다 지역= 의지 또는 심정  
사마리아 지역= 이해성

### 질문 정리

- 1) 본문이 있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 2)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3) 주님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4) 주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순진이란 무엇인가?
- 7)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0) 부자 청년은 왜 되돌아갔는가?
- 11) 주님은 부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2)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3)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15) 주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유다지방 2) 예루살렘 3)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 4) 너희들의 심정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5) 어린이같이
- 6) 글자대로 보면 해치지 않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바람
- 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 8) 계명에 순종하라 9)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 10)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11) 재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12)

-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신뢰함 13)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  
14) 자리에 앉게 하는 특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15) 섬김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 33

###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 머리말

본장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종려주일에 관한 것으로서, 성탄절에 공부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어진 자의 의미를 언급한다. 기름이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 성서본문: 마가복음 11장

1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4.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7.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수많은 사람들이 겂옷을 벗어 길 위에 펴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10.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1.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 보셨으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셨다. 16.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하고 나무라셨다. 18.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러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25.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7. 그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하고 물었다. 29.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33.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였다.

### 교리 요약

- \*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 \*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는 경향들로

부터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

\*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산”이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나아가는 길가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을 말한다.

## 해설

우리는 부활절 전 주일, 즉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한다.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주님은 이 마지막 주간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제자들과 과일절을 기념하셨고 배반당하시며 사로잡히셨고, 심문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무덤에 놓이셨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종려주일에 왕이자 판관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마가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망아지”를 타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타 복음서에서는 그분이 타신 것이 나귀 새끼라고 명확히 말해지고 있다. 이것은 곧 즈가리야 9장 9절에서 예언된 바를 이루신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이 예언과 왕이나 판관이 노새나 나귀를 타는 것이 그들의 관례임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판관기 5장 9-10절과 열왕기 상 1장 33- 34절을 읽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이외에도 구약성서에는 위의 관습에 관한 구절들이 많다. 이와 같은 관습은 의미 없이 행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역사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나귀의 상응에 관해서는 앞서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에서 설명했다. 나귀란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을 말하며, 이 이성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능케 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성취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이성이 매우 유익하며 필요한 능력임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이성은 이 세상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에 대한 이해성, 즉 더 높은 능력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하려 들 때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일을 해내면 뭐가 나한테 돌아오지?” 또는 “이렇게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내게 만족을 줄까?” 등 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의 소리인데,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도 이기심이 이러한 우리를 부추기도록 오히려 유도해 간다.

자연적인 이성을 완전히 조절하여 종속시키신 분은 주님뿐이시다. 주님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가져와서 주님이 타시도록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겂옷이란 마음을 옷 입히고 있는 진리들을 말한다. 주님의 겂옷이란 말씀을 담은 글자와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느낌을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겂옷이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들이다. 제자들의 겂옷을 낀 새끼 나귀의 등위에 주님이 타셨다고 함은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모든 이해들이 주님 아래 반드시 종속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이 더 확실하게 상징화되도록 군중들은 주님이 입성하시는 길에 그들의 겂옷을 깔았던 것이다. 나뭇가지란 일상생활을 주도해 가는 우리 각자의 원리들을 말한다. 주님께서 나뭇가지를 밟고 입성하신 광경이란 우리 일상생활의 원리들까지도 주님 아래 종속되어야 함을 보여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임을 알 수 있는데, 종려나무가지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만이 천국적인 인격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하에 그분이 우리를 규율하고 인도하시도록 순종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아래 종려나무가지를 까는 모습이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들에게 전해져 오는 관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은 인식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호산나란 “구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나다”라는 뜻이다.

주님을 그들의 구세주와 왕으로 환영했던 군중들은 그분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세력을 꺾고 그들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왕을 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알려주는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있다. 하나는 주님이 성전을 깨끗케 하신 장면이다(15-17절). 주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 뭇가

착복하려고 종교를 오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혹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 사귀는 데 용이해서라든지 또는 설교나 기도를 소리 내서 잘 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환전상과 같아지며 이를 묵인하는 바리사이파인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또 다른 사건은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12-14, 20-21절), 이는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지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을 진정한 선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무화과나무란 우리 삶의 자연적인 평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잎이란 이 자연적인 평면에 해당되는 진리를, 그 열매는 자연적 수준의 선한 일들을 말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의 산상설교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호로 환영했던 군중들은 금요일이 되자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여러분은 이렇게 며칠 만에 인간의 마음이 돌변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의외로 우리에게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감명을 받아 올바르게 진정한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회회에 빠져 말씀에서 배운 것을 마음 밖으로 내던지고 만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환영한 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환영하는 것이며 그분께 성실히 순종해 가려고 끈기 있게 노력해갈 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노력하는 자세를 포기해 버린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며칠 만에 등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군중들의 틈 속에 있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구절이(22-24절) 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많은 이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믿음을 단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환자와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의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건강을 상담하고 진찰을 받으며 그가 처방해 준 약을 지시대로 복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하느님에 관한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고 살아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그분의 섭리(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기도하거나 원하는 행위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산이란 우리의 영적 삶의 길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번쩍 들어서” 던져버려야 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겉옷 = 행동의 원리가 되는 진리들

나무 = 일반적인 원리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2) 그분은 어디에서 성장하셨는가?
- 3)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누가 미리 보내셨는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인가?
- 5) 본과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6) 이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7) 주님은 무슨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8)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귀를 발견했는가?
- 9)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10) 주님은 어디에서 밤을 보내셨는가?
- 11)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2)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 13)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14)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 15)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6) 주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17)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 18) 이 주간의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 1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20)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신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나자렛 3) 세례자 요한 4) 3년 5) 종려주일 6)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7) 나귀 8) 길가로 난 문 앞에서 9)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기 때문(요한복음 12:13) 10) 베다니아 11)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셨다 12) 말라버림 13) 산을 움직인다 1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자를 용서하듯이 15)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16)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근원을 물으심 17) 성주간 18) 마지막 만찬 후 체포되심 19) 십자가에 달리심 20) 그분의 자연적인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셨음

## 34

### 성 만찬

#### 머리말

본과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그분이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셨음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4장

14장: 1.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5. 이것을 팔면 삼백 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7.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0.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하고 말하여라. 15.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서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16.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19.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열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0.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셨다. 31.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32. 그들은 계제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34.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36.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37.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하시고 39.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돌아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2.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3.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 지어 왔다. 44.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5.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46.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그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48.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9.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49.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50. 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1.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52.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여 들었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의 뒤를 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 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57.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58.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 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그 때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1.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2.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63.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65.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66.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67.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68.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69.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 께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 께일 거요”하고 말하였다. 71.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72.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

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 교리 요점

- \* 성만찬은 우리의 삶 안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수단이다.
- \*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이층방”은 주님과 천국적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 방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고 설비해 두어야 한다.
- \* 성만찬은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으신 주님, 즉 대속하신 주님을 기념한다.

### 해설

앞서 우리는 33장에서 주님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처럼 꾸밈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진정한 위대함은 각자의 명성이나 부유함을 내세우는 대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도중 곧 그분의 마지막 여행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항은 지상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주님은 그분의 친구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아에서 밤을 지내셨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마을이었다는 것이다.

본문의 첫 사건은 바로 베다니아에서 이다. 요한복음(12:3)에 의하면 값비싼 향료를 주님께 부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고, 이 여인의 행위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화를 낸 자가 유대였다고 한다. 주님께서 이 작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과 같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혜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서 더 배워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이 이제 곧 죽음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후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과월절을 기념하시면서 그것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는 것을 읽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찾아 준비하도록 두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분은 또 다시 두 제자를 보내서 과월절을 기념할 올바른

장소를 찾게 하시고 그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 숫자 둘은 우리가 단순히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안 진리를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의지와 이해력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두 제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물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발견한 장소는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방”이었다. 그들이 이제 하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참으로 거룩한 친교를 갖는 일이다. 집이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한다. 그 집 속의 이층방이란 세상적인 생각만을 하는 마음의 수준 위에 있는 우리 인격 속의 높은 부분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이층방을 갖고 있다. 이층방이란 주님과 천국적인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을 자주 닫아 놓고 먼지가 낀 채 사용하지 않는 때가 허다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그 방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가구를 마련해 두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 방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는 것은 말씀에서 얻은 지식을 되새겨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며, 가구와 같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을 이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월절은 가장 큰 축제였다. 이 축제는 오래 전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속박되었던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월절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다. 이렇게 축제나 기념일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거의 만국공통의 관습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이는 바로 몸을 위한 음식과 물이 영혼을 위한 음식과 물인 선과 진리에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몸을 위한 양식과 영혼을 위한 양식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면 그들의 영혼들도 서로 가까워져 선과 진리를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제자들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제 그분의 일 곧 과거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인 악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이 완성단계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 시기가 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독교회를 위한 새로운 축제를 주셨다. 우리는 이 축제를 주님의 만찬, 성만찬 혹은 거룩한 친교 등으로 부른다.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글자대로 받아 들여서 우리 몸에 들어간 빵과 포도주는 어떤 신비한 비법에 의해 실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앞 구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진실로 사랑과 지혜의 분이시며 선과 진리인 분이시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선함과 진리의 상징인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게 된다. 즉, 우리가 자신 속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느낌과 생각을 던져 버릴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분께 열어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취하게 되면, 주님은 어느 때보다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선함과 진리를 그분께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와 더불어 주심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며 늘 우리에게 선과 진리를 주시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정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거룩하고 새로운 성찬식에 참가한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분의 선함과 진리를 받으려는 상태에 있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가 바로 주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가리옷 사람 유다였다. 유다는 주님의 추종자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주나 실상 속으로는 자신의 편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표현한다. 또한 그는 겉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기울려는 우리의 경향성도 표현해 준다.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다면, 우리는 자신 안에 이러한 경향성이 다분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저입니까?”라고 묻기 시작했음을 주목해두기 바란다. 우리는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대사제 앞에서 심문당하시며 베드로가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이층방 = 영혼의 높은 평면

빵 = 선함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작은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 부자 청년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3) 주님은 그 청년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4) 그 청년이 기꺼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재물(에 의지함)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는가?
- 7) 진정한 위대함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베다니아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9)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10)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11) 주님은 두 제자에게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셨는가?
- 12) 과월절을 준비한 방은 몇 층에 있었는가?
- 13)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1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각기 뭐라고 물었는가?
- 15)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6)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서 이날 시작된 예식은 무엇인가?

- 17)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주님은 저녁 식사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 19) 거기서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 20)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21) 그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가?
- 22) 주님은 어디서 심문을 받으셨는가?
- 23) 대사제는 주님에 대해 어떤 죄명을 만들었는가?
- 24)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무엇인가?
- 25)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 질문의 답

- 1)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 2)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3) 계명에 순종하라
- 4)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 5)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 6) 영예의 자리
- 7) 모든 이를 섬김
- 8) 주님께 기름 부었다
- 9) 쓸데없이 낭비했다
- 10) 그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 11)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 12) 이층방
- 13) 이집트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됨
- 14)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 15)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16) 성찬
- 17) 신성한 선함과 진리
- 18) 계셰마니
- 19)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 20) 가리옷 사람 유다
- 21) 입마춤
- 22) 대사제 앞에서
- 23) 신성모독, 그리스도라는 주장
- 24)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 25)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

## 35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 머리말

성만찬이 제정된 것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까지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사제들이었다는 점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5장

15장: 1.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3.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3.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하고 다시 물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6.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8. 군중은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전례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 달라는 것이냐?”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14.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냐?”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16.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들였다.

17.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18.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배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나갔다. 21. 그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23.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24.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씌여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손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2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3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32.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하고 서로 지껄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33. 낮 열 두 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36.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고 말하였다. 40.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 다니며 예수께 시중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42.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43.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44.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 되었는가 물어 보았다. 45.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 가지고 온 고운 베에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 교리 요점

- \*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면하신 시험들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 \* 설사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허용하지 않으면 악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

### 해설

주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대사제에게는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다. 그래서 대사제는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분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으나 대제사장과 유대 군중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주님의 진리를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곳에 던져두고자 한다.

이 이야기에서 대사제란 우리의 심정 속에 들어 있는 이기심을, 빌라도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 빌라도가 대사제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우리 속의 이기심이 주는 충동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이 어떤 잘못된 것을 거둬하여 원할 때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계속하여 충고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섭리 하에 우리의 이해성은 심정에 비해서 이기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빌라도처럼 주님이 옳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사제 같은 우리 심정의 이기심은 생각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발버둥 친다. 이러한 이기심의 발버둥은 본문에서 군중들의 함성소리로 표현되고 있다. 지성은 진실로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를 심정에 호소하지만, 이기심이 심정을 조정하게 되면 심정은 이러한 지성의 호소를 무시하고 적당한 구실을 찾아서 몽개 버리고 만다. 빌라도가 군중의 폭동을 염려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묵인하게 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사실 빌라도는 주님을 석방시킬 수도 있었지만, 흥분한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 반역죄와 살인죄 명목이 붙은 바라빠를 놓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추론 능력이 우리의 이기심에 넘어가서 선한 것 대신에 악한 것이 지성과 심정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상황이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을 처벌하는 형태 중 가장 참혹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겪게 하면서 죽게 하는 사형 법이었다.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그분이 겪으신 고통들 중에서도 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28-30절, 요한복음 8장 59절과 10장 17-18절과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0-11절을 읽어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를 십자가상에서 구하실 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군중의 비웃음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인간과 당시 그분을 미워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분의 적들까지도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적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하는 신성한 능력을 행사하면 그들 자신도 예수를 하느님이라고 인식하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조롱했다.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지 않은 까닭은 기적이거나 이적으로 그들의 심정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적이거나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은 강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8절을 보면 성전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출애굽기 26장 31-33절에서 성전의 휘장을 살펴보자. 이 휘장은 초기시대 때부터 언약궤를 모셔 놓는 지성소를 사제들의 시야로부터 가리기 위해서 쳐놓은 일종의 커튼이다. 말씀 가운데서 휘장은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보고 싶을 때 색안경을 쓰고 보듯이 인간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설비해 두신 신성자체를 가리고 있는 가리개를 뜻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사용하신 마리아로부터 취하신 인성이 바로 이 휘장에 해당된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인성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극복하심으로서 마침내 휘장을 완전히 벗기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진 것이 의미하는 바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유대인들의 평의회의 의원인 명망 있는 아리마태이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분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은 내용이 나온다. 유대교의 정치적 모임에는 최고 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 의회는 약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들과 본문의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요한복음 3:1-13)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고평의회 의원들 중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주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지내는 데 요셉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저명한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히 행할 수 없었던 것을 빌라도에게 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쌀 고운 베를 구입했고, 니고데모는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져왔다. 베와 향료란 각기 다른 종류의 진리들에 대한 상응물이다. 이 두 지도자는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육신을 떠났다고 생각한 순간까지도 그분에게서 발견한 진리들을 보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두 남자와 세 여인들(40절)만이 주님이 죽은 듯 보였을 때도 그분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님에게서 영예와 부귀를 얻고자하여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

라 그분에게서 발견한 진리와 선함으로 인해 그분을 섬기려했던 자들로, 우리 속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한다.

### 기본 상응공부

고운배 = 마음의 자연적 평면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온 진리  
휘장 = 주님의 유한한 인성

### 질문 정리

- 1)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그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셨는가?
- 2)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이 때 주님이 새로 설립하신 축제는 무엇인가?
- 4) 기독교의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5)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6)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맨 먼저 심문을 당하셨는가?
- 7) 대사제는 어떤 명목으로 주님께 죄가 있다고 했는가?
- 8) 그 다음 주님은 실형에 처하도록 누구에게 보내 지셨는가?
- 9)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왜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는가?
- 11) 주님 대신 빌라도는 누구를 석방했는가?
- 12) 빌라도의 병사들은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 13) 주님은 어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 14) 끌고다로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누가 운반해 주었는가?
- 15) 병사들은 주님의 걸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했는가?
- 17) 주님의 적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는가?
- 18)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백인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20) 누가 주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가?
- 21)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 22)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까지 어느 여인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 23) 왜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도록 허용하셨는가?
- 24) 주님의 겉옷을 나눠 가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함 3) 성찬
- 4) 악의 노예에서 구속됨을 기념함 5) 가리옷 유다
- 6) 대사제 7) 신에 대한 모독 8) 본디오 빌라도
- 9) 주님에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 10) 군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11) 바라빠 12) 주님을 희롱했다 13) 골고타
- 14) 키레네 사람 시몬 15) 체비뽀아 나누었다 16) 두 강도
- 17) 십자가에서 내려와 빠라 18)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 19)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 20)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1)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22) 두 마리아
- 23) 악은 실지로 선을 파괴할 힘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음
- 24) 자신의 주장을 타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단을 발췌함

## 36

### 부활하신 예수

## 머리말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정리하면서 본장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6장

16장: 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4.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6.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8.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10.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 두 사람도 돌아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1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21.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22.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 교리 요점

- \*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 즉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 \*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언제나 영적 성취가 있다는 것이다.

### 해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장되었고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러 막혀졌다. 돌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 돌이란 우리가 지은 인격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단한 반석과 같은 진리들을 말한다. 우리는 반석위에 영적인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벽을 친다. 좀 더 낮은 측면에서 본다면, 돌이란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들이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들이기 보다는 우리에게 힘겹게 받아들여진 사실들을 뜻한다. 진리를 상징하는 또 다른 것으로는 물이 있다. 물은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진리를 그리나, 바닷물의 경우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하고 세례식에 쓰이는 물은 우리의 삶을 깨끗케 해주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금속 중에서 은도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마음속으로부터 나와 빛을 내는 진리, 즉 광채가 나는 장신구의 역할을 하는 진리를 뜻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되고 죽음에 놓이신 것과 그분의 시신이 돌무덤에 안에 안치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당시 군중들이 물질적 번영을 약속해주지 않는 왕을 원치 않았던 것과 영적 삶에 대해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이란 완고하고 단단한 당시 사람들의 물질주의를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양면적인 상응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돌은 진리를 상징하나 때에 따라서는 거짓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상징하는 완고한 물질주의란 고대 유대 국가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입으신 육, 즉 물질적인 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실은 글자이다. 우리가 말씀의 글자 안에 신성이 담겨 있음을 믿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오는 진리를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논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오실 수 없도록 굴려서 입구를 막은 돌이란 우리의 감각들이 느끼는 것, 즉 자연적인 진리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올리기를 거절함을 의미한다. 부활주일 아침 매장소로 달려간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 그 여인들은 주님이 홀륭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희망을 잃었던 것이다. 남자들이 실망과 좌절로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반면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분을 위해서 여전히 뭔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신에 바를 향료를 사서 누군가 입구의 돌을 굴러 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매장소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 여인들이

매장소에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때만이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것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사랑쁨임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주님이 일어 나셨다고 말해진 첫 사람이요 주님의 천사가 말한 것을 믿은 첫 사람들이 되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 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여인들이 가져온 향료는 다른 각도에서 진리에 대한 상징으로, 선한 자들에 의해 지각된 내적이며 보다 높은 진리들을 말한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주님은 이미 수차례 그들에게 그분이 죽어야만 하고 삼 일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는 그들에게 “소귀에 경 읽기”일 따름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너는 성격이 느리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거라.” 혹은 “너는 성격이 급하니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거라”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일러준다. 이렇게 부모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들을 자녀들에게 일러주나 자녀들이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명심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진리와 좋은 충고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이다. 즉, 우리는 때로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는 배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 나셨음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변화 시켜 그들이 두려움과 실망함으로부터 벗어나 대담하고 용감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했다.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소식의 전달자라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이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목임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이 살아 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봄으로써 그동안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에는 이렇게 변화한 제자들이 행한 전도 여행들도 큰 몫을 했다.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거의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변화시키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음을 볼 때 조금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본문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것은 진리이다. 세례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속의 진리로 우리 삶을 정화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신의 판단, 즉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자명하다. 이기적이 된다고 함은 지옥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이미 단죄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인간의 이기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악한 영이라고 한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어떤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 이러한 징조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따라 왔다. 이러한 징조가 발생한 일들은 사도행전 2장 1-4절, 5장 12-16절, 10장 44-46절과 28장 1-6절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징조들은 당시의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하지만 후에 사람들이 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여서 이와 같은 증거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징조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영적 결과들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돕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남에게 어떠한 해를 주지 않으면서 참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안다. 그리고 이들은 악과 싸우며 스스로의 악함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주님의 부활은 영계가 진짜라는 것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잠들면서 저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주님이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임

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 기본 상응 공부

향료 = 선에 근거한 내면의 진리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2)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가?
- 4) 왜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5)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 6) 왜 군중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7) 왜 군중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게서 돌아섰는가?
- 8) 그 주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일요일 아침 무덤에 누가 왔었는가?
- 11) 그들은 왜 왔었는가?
- 12) 그들은 오면서 무엇을 의문스러워했는가?
- 13) 그들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4)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5) 주님은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는가?
- 16) 그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었는가?
- 17)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8)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9) 주님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20)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 21)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그리는가?
- 22) 주님이 일어나신 후 왜 여인들이 처음 그분을 뵈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부활절 2) 죽음에서 예수가 일어나셨음을 기념 3) 종려주일 4) 군중이 주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5) 왕의 표시 6)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 7)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해서이다 8) 마지막 성찬 9) 십자가에 달리심 10) 두 마리아 11)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12) 자기들을 위해 누가 돌을 굴러 내줄까? 13) 돌은 굴러졌고, 주님은 가셨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14) 그분은 일어나셨다 15) 막달라 마리아 16) 아니다 17)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18)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19) 구원 받을 것이다 20) 승천하셨다 21) 물질주의적인 생각 22) 그녀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하기 때문

# 37

##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 머리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사도 요한에 대한 것과 당시의 주변 환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 성서본문: 요한계시록 4장

4장: 1.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3.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었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훤훤 따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신이십니다. 6.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네 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쳤다. 9.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하고 찬양했습니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있게 되는 영적인 전투는 계속 된다.
- \*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 주님만이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이시다.

## 해설

여러분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의 승천에 관하여 읽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부활 후 40일이 지나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12절에 가장 잘 기술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준다. 사도행전 그리고 당시 사도들이나 다른 이들로 조직된 기독교인의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인 21권의 서간문은 내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서 공부 과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들에는 기독교인 모두를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도들은 세상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에 굽주린 사람들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애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그들의 거동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고 그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전통은 요한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다고 전한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90세가 넘도록 까지 살았다고 한다. 요한은 그의 생애 말기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되었다. 당시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조직된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다.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에게 많은 환상들이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마지막 책이다. 계시록 1장 19절과 본문의 첫 절에서 이 책은 예언의 책이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주님에 관한 환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제 1장). 요한은 환상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바로 과거에 자신이 따라 다녔던 스승임을

인식했고, 그분이 바로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요한에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주님은 그 일곱 교회들의 내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 교회들은 제각기 처한 상태가 달랐다. 그들에게는 좋은 특질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있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의 과오를 회개하고 고쳐야 함이 경고되고 있다.

주님이 사도들을 떠나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직면한 문제점은 그분의 가르침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사도들과 다른 전도자들의 견해차를 사도행전과 21권의 서간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로의 견해차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에 많은 교단들이 기독교에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스스로 이해하고 마음에 와 닿는 진리만큼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설사 공부한 것을 잘못 이해했다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정당성이 되는 근거를 찾기 위해 말씀을 공부한다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게 된다. 기독교회들 안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자와 그저 따르는 체하는 자가 언제나 섞여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모두 선과 악 양쪽에 대한 경향성을 지닌다. 주님과 천사들은 각 개인 또는 교회 내에서 악을 조절하며 선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한 영적인 전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지속되며, 우리가 저 세계에 들어 갈 때에 비로소 선과 악이 분리되는 진정한 심판이 있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와 그 결과로서 있게 되는 심판이 바로 본문에서 요한에게 생생하게 보이는 환상들이다.

요한의 환상은 오래 전의 예언자 에제키엘이 가졌던 환상과 아주 유사하다. 에제키엘서 1장 26-28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과 24장 10절을 읽어 보자. 나팔소리란

주님의 진리에서 오는 권능이 말하는 것을, 옥좌란 심판을 의미한다. 옥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주님이시며, 그분은 진리를 수단으로 심판을 집행하신다. 보석들이란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말하며, 보석이 각기 다른 색깔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듯이 그것들은 각기 다른 진리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보석들이 한결같이 깨끗하며 빛난다 함은 보석들이 각기 다른 양상의 진리를 표현하나 그것들이 표현하는 진리들의 깨끗함과 빛남은 모두 다 같다는 의미다. 유리바다란 자연적인 천국에 사는 사람조차도 정결한 분위기에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제키엘이 보았던 무지개는 햇빛이 빗방울에 굴절 반사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진리들은 우리 안에서 빛나면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우선 예제키엘 1장 5-14절을 읽어 보자. 예제키엘이 본 “생물, living creature”은 요한이 본 “생물, beast”과 같다. 그러나 그리스어의 번역인 beast 보다 히브리어의 번역인 living creature가 그 의미상 더 나을 것이다. 예제키엘서 공과 부분을 기억한다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그리고 독수리가 상징하는 바도 알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들이 아니며, 이는 영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생물들은 “거룩들, cherubim”이라고 불리며, 성서에 있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상징적인 것으로 하느님의 섭리가 말씀의 글자를 통하여 임하시며 보호하는 힘을 표현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다”고 기록된 이유이다. 그들의 눈이 앞뒤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것 곧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보심을 의미하기 위함이다. 생물들이 가진 날개란 우리의 생각을 지상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말씀이 가진 힘을 의미한다.

흰옷을 입은 24원로(장로)들이란 진리를 배움으로써 스스로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선한 사람들을 표현한다. 금관이란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모두 시험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원로”들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칭이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원로”가 되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려고 하면 매 해마다 지혜로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원로들과 생물들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끝을 맺는다. 이리하여 요한은 그의

환상 초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천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확증을 가졌다. 그 이유는 그가 후에 극심하게 위험한 환상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초기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미리 확신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요한이 가진 확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쓰여 졌기 때문이다.

### 기본 상응 공부

나팔 = 진리의 힘이 말을 하는 것

옥좌 = 심판

### 질문 정리

- 1) 성서의 어떤 책이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해 말해주는가?
- 2) 우리는 왜 이 책을 다루지 않는가?
- 3) 우리는 본과에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4) 이 책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5)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누구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7) 요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
- 8) 요한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 9)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 10) 본문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11) 옥좌에 관해 기술해 보자.
- 12) 몇 명의 원로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생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 14)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 15)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생물을 공부했는가?

- 16) 이 생물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 17)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 18)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행전, 서간서 2) 속뜻이 없기 때문 3) 계시록 4) 묵시록 5) 환상들
- 6) 사도 요한
- 7) 파트모스섬, 유배되었다 8) 부활하신 주님 9)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10) 옥좌
- 11) 제 2-5절 참조 12) 24 13) 4 1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 15) 에제키엘 1장 16) 거룩들
- 17) 기록하시다. 기록하시다. 기록하시다. 18) 예배시간의 답창 순서에서

# 38

## 봉인된 책

### 머리말

37장의 내용이 본과의 서론이 되므로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5장**

5장: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6.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효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 교리 요점

- \* 새 교회는 열린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 \* 주님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들을 스웨덴북에게 밝히심으로써 말씀의 봉인을 떼셨다.

## 해설

본문은 제 37장의 본문인 계시록 4장에 이어지는 환상이다. 앞서 보좌관 심판을 상징해 주는 것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요한이 본 것은 기독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질 심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와 견책의 메시지가 주어진 후 곧바로 본문이 뒤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새교회는 대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님의 선택을 받은 스웨덴북이 목격했음을 인정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때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심판의 시간이 찰 때 까지 가상적인 천국에서 살도록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의 시간이 차는 시기란 주님께서 말씀의 내적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여실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영이 발달한 시기를 말한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 혹은 책을 여심으로 시작되었다. 두루마리 또는 책이란 말씀을 말한다. 이 말씀은 “안과 밖”으로 쓰여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처럼 읽고 이해하게 되는 겉 의미와 우리의 영혼과 천국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속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이 속(내적)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도록 허용된 소량만을 제외하고 모두 봉인 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구절에 대한 본 보기가 바로 본문의 8절이다. 이 구절에서는 “항이 가득 담긴 대접”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다니엘서 12장을 참조하면 말씀이 봉해져야 했던 이유와 봉해진 말씀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의 환상 가운데 봉인된 책은 심판의 옥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우리 모두는 빠르던 느리던 간에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는지를 심판받는다. 제 20장 11-1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가운데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의도와 생각들이 마치 영화라도 보듯이 눈앞에 환히 보여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봉인들이 하나씩 떼어짐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주님의 섭리로 이뤄지는 어떤 준비에 관한 것이다. 말씀의 가장 깊은 이타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심정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옥에서 발견할 때까지 점점 더 빛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에 하모니를 이루는 모든 심정들은 거룩한 성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되게 된다. 옥좌에 계신 주님이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말한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란 그분의 사랑에서 뻗쳐 나오는 힘에 관한 주님으로, 그 힘은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까지 내려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남겨 두신 측면에서의 주님이다.

오직 주님만이 봉인을 떼실 수 있었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쓰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신 것은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라고 거듭하여 강조한다. 또한 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시고 자신의 이해성을 열어 주셔서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도 열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재림임을 그의 저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봉인된 말씀의 영적 의미가 풀림으로서 마지막 심판이 영계에서 거행되게 되었다.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서 영계로 올라간 모든 영들은 천국과 지옥 중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웨덴북이 설명하는 각 개인의 심판이다. 이러한 선택은 전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이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뤄진 가상적인 천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봉인을 푸셔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의 내적 의미를 알고 이해하게 되는 영계의 심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영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 세상에 도착한 영은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동안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삶의 질이 그 사람의 사랑으로부

터 비롯된 것이며 그 사람의 사랑이 곧 그 사람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 그 향은 곧 성도의 기도”라는 구절은 성소의 금 분향제단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하프는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온 주님께 대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37장에서 말씀에 언급되는 몇 가지 약기를 공부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현악기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며, 관악기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을 상징함을 기억할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양 = 순진함 또는 선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 = 영적인 선으로 예배함 또는 성도들의 기도

### 질문 정리

- 1) 하늘에서 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2) 옥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가?
- 3) 몇 명의 원로가 그곳에 있었는가?
- 4) 얼마나 많은 생물이 그곳에 있었는가?
- 5) 그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
- 6) 그 생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생물은 주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 8)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오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 9) 왜 요한은 울었는가?
- 10)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11) 요한이 본 어린 양에 관하여 설명해 보자.
- 12) 원로들과 생물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는가?
- 14)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 15) 노래 부른 뒤 네 생물은 뭐라고 말했는가?
- 16) 아멘은 무슨 뜻인가?
- 17) 이 책의 나머지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8) 새교회에서는 봉인이 떼어짐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옥좌 2) 주님 3) 24 4) 4 5)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6) 거룩들 7) 기록하시다. 기록하시다. 기록하시다. 8) 두루마리 또는 책 9) 봉인을 뿔 자가 없어서 10)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11)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뿔, 일곱 눈 12) 거문고나 향이 담긴 금대접 13) 수천수만 1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5) 아멘 16) 그렇게 되어 지리다 17) 모든 것의 심판 18) 주님이 그 책을 여셨다는 것, 하여 내적인 의미를 알도록 하셨음

## 39

### 심판과 기록한 성

#### 머리말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을 읽어 보자. 또한 계시록 21장 2절도 주목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21장 1-7절

20장: 11.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가 하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선택들로 자신의 “생명의 책”을 집필한다.
- \* “생명의 책”은 “인격의 책”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이 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 \* 천국적인 교리로 읽게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길과 목적에 관련된 무한한 진리의 근원이 된다.

## 해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사도들의 전도로 세워지게 되는 기독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다.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전파로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악과 거짓 사상들이 이내 그 교회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된다. 계시록은 대부분 선과 악의 대립, 진리와 거짓간의 싸움 그리고 악과 거짓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로 이뤄져 있다. 계시란 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에 의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벗겨져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리 속의 나쁜 것들을 어느 정도 덮어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세상에 가서는 우리의 진짜 인격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채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며 여기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후에는 악에서 선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개과천선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이 상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200여 년 전 주님이 재림을 이루셨을 때 영들의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들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재림을 이루셔야 했을 때 기독교회로부터 올라 온 모든 사람들은 선함과 악함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처럼 저 세상에서 쉬어 살면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을 여셔야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하느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선과 악이 분리되기 전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차이점들을 비교 검토하여 알도록 해준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간에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을 행해야한 다는 것이다. 즉, 모든 계명을 글자 그대로는 잘 지키는 사람들의 행실이 선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사람을 죽이면 받게 되는 법적 혹은 사회적인 처벌이 두려워서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몸으로는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21-26절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형성한 인격이 바로 우리가 영계로 들어 갈 때 가지고 가는 우리의 생명책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이 책을 집필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의를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선택해간다면,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배우며 행해간다면, 저 세상에서 펼쳐지게 될 우리의 책은 요한의 환상에서 보이는 옥좌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생명책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책 안에 써진 것을 발견한다는 내용의 의미이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도 전한다. 말씀에서 이름이란 한 개인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성질(性質)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삶 동안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며 이기적이고 외적인 삶만을 중시해온 사람들은 생명의 책 안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요한의 환상 중에 있는 악한 자들이 던져지는 불 못이란 지옥에 대한 표현이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인 자들로서, 시기심이나 탐욕 또는 증오와 같은 악한 애착들로 훤히 타고 있는 것이다.

제 21장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영계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심판 후에 선으로 형성된 진정한 기독교인의 천국을 뜻한다. 하늘이란 내적인 상태를, 땅이란 외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요한의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말씀에서 성이란 교리를 상징한다. 교리란 가르침이

라는 말의 유의어다. 따라서 성이란 각 개인이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가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뜻하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란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를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란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는 새 교리를 가진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새교회이며, 새 교회의 정식 이름은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있게 되는 교회 또는 새 예루살렘교회이다. 20장 3-4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교리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큰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새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는 분 곧 성령이기도 하다.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주님은 생명의 물 곧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값없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거듭 나아짐이요 곧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 이는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이기적이며 악한 경향성을 극복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어 내려져 온 것 곧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 배양해감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 기본 상용 공부

이름 = 품질, 품성, 성질

불 못 = 심정 속에서 타고 있는 자아 사랑, 지옥

### 질문 정리

- 1)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무슨 책인가?
- 2)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봉인이 찍혀서 봉해져 있었는가?
- 3)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4) 본문에서 옥좌 앞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5) 열려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 6)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되는가?
- 7)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제 21장 첫 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9)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처음 접해보았는가?
- 10)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 11) 이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이 도성에서 축복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15)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 16)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말씀 2) 일곱 3) 주님 4) 죽은 자들 5) 개개인의 인격 6)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7) 불 못에 던져지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창세기 1장 1절 10) 거룩한 성 11) 새 예루살렘
- 12) 우리 교회의 이름이므로 13)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
- 14) 알파와 오메가 15)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16) 생명의 샘물
- 17) 진리에 목마름

## 40

### 새 교회 날

#### 머리말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과 인류를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함(계시)이 재림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 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회는 예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많으나 그분을 거절하는 대가 역시 같은 비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뺀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미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교리 요약

- \*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성경을 열어 주심으로써 성취되었다.
- \* 이 밝히심은 인류에게 있게 되는 마지막 가장 큰 밝히 알게 하심이다.

## 해설

우리는 분명 새 시대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에 의해서와 젊은이들이 부모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새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인간의 기준과 기술은 늘 변하지만 하느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계명들은 사실 인류 아주 초기 때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 3500년 전쯤에 시나이 산에서 계명들을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서 그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느님의 근본적인 법칙임을 입증해 주셨다. 그리고 약 2000여 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환상 속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 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빼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 주신 뒤 있어진 말씀이었다.(계시록 21:1)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 환상은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라고 시작된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느낌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한 법칙은 하느님의 법칙이며, 이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 똑같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동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행동하고 살아감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그들을 창조한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동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천국적인 지식은 영원하다. 그렇기에 이 지식은 지상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상의 지식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만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행하는 자신의 선택으로 영원히 가지고 살아야 할 자신의 인격을 형성 시키고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1770년 6월 19일 주님께서서는 그분만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도록 영계 전체에 사도

들을 보내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적인 삶과 지상적인 삶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새 시대란 우리 각자를 위한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도 의미한다.

###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 2) 우리는 그날을 왜 그렇게 부르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4)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인가?
- 5)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은 어디서 자주 접했는가?
- 7) 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만드셔야 했는가?
- 8) 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뜻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 9) 우리가 어디다하더라도 위의 사항(8항)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10) 왜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가?
- 11) 10항과 같은 잘못된 결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 12) 어떤 법이 결코 변할 수 없는가?
- 13) 주님은 우리의 새 시대에 부응되도록 무엇을 해주셨는가?
- 14) 주님의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의 답

- 1) 새교회의 날 2)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91항 참조 3) 나는 알파와 오메가...
- 4)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5) 요한이 그분을 인정했으므로
- 6) 예배의 축복기도에서 7)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통찰할 필요성 때문
- 8)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함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

- 9)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 10) 굉장한 과학 발전
- 11) 성경의 법은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 12) 주님의 법
- 13) 말씀의 내적인 예배를 여셨다
- 14) 새 진리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